WHEN NATION BECOMES FAITH: A GROUNDED THEORY STUDY OF OLDER KOREAN CHRISTIANS' INTERNALIZATION OF NATIONAL SYMBOLS

국가가 신앙이 될 때: 노년 한국 크리스천의 국가 상징 내면화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Kyu Woon Lee
May 2026

This Practical Research Project, completed by

Kyu Woon Lee

under the direction of his faculty committee and approved by its members,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Faculty Advisors

Yong Hwan Kim,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Yuki Schwartz

May 2026

Abstract

When Nation Becomes Faith: A Grounded Theory Study of Older Korean Christians' Internalization of National Symbols

by

Kyu Woon Lee

This study is rooted in pastoral concerns and the conflicts experienced during ministry, especially in observing the public faith practices of older Korean Christians. These experiences have raised questions about the structural conditions under which such forms of faith are developed. Consequently,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how the faith practices of elderly Christians are exhibited in public spaces within Korean society and to examine the underlying structures that shape these practices.

To this end, the study employs field observations of *Taegeukgi* (Korean National Flag) rallies alongside in-depth interviews with elderly participa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developed by Strauss and Corbi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ublic faith practices of the elderly generation cannot be adequately understood as merely political actions. Rather, they are constituted within what this study identifies as a "closed, self-reinforcing faith–nation meaning system," in which religious faith and national symbols are closely intertwined. Elements such as anti-communism, patriotism, and national symbolism interact with lived experiences of war, poverty, and national reconstruction, generating a powerful form of religious resonance. This resonance functions as a structure in which meanings rapidly intensify around specific symbols.

To account for this phenomenon, the study proposes a model of faith formation articulated through the concepts of resonance and a “bottleneck structure.” This model explains how encounters with particular symbols amplify the faith of the elderly generation. It offers an interpretive framework that moves beyond ideological explanations and instead situates these practices within a structured process of faith formation.

As a practical theological response, the study proposes a “Healing Prayer Gathering for the Memories of the Elderly Generation,” designed to provide a communal space in which older adults can reinterpret their memories and faith experiences. This proposal aims to offer Korean churches new ways of understanding the faith of the elderly generation while addressing intergenerational tensions through renewed structures of faith learning.

Keywords: Older Adult Christians, Internalization, Ageism, Anti-Communism, Grounded Theory

국문 초록

국가가 신앙이 될 때: 노년 한국 크리스천의 국가 상징 내면화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by

이규운

본 프로젝트는 내가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갈등과 목회적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나는 한국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노년 세대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을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며, 그 신앙이 어떤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노년 세대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을 이해하고, 그 신앙이 형성되는 구조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태극기 집회 현장 관찰과 노년 참여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제시한 근거이론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년 세대의 공적 신앙 실천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신앙과 국가 상징이 결합된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 속에서 형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반공주의와 애국주의, 국가 상징과 같은 요소들이 전쟁과 가난, 국가 재건과 같은 생애사적 경험과 결합하며 강한 신앙적 공명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명은 특정 상징을 중심으로 의미가 급격히 증폭되는 구조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노년 세대의 신앙이 특정 상징과 만나 증폭되는 과정을 '공명(resonance)'과 '좁은 통로(Neck)' 구조로 설명하는 신앙 형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노년 세대의 공적 신앙 실천을 단순한 이념적 선택이 아니라 특정한 신앙 학습 구조 속에서 형성된 의미 체계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 틀을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신앙 형성 구조를 성찰하기 위한 실천신학적 대안으로 노년 세대의 기억과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노년 세대의 기억 치유 기도회’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 교회가 노년 세대의 신앙을 이해하고 세대 간 갈등을 성찰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 학습 구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키워드: 노년 세대 크리스천, 내면화, 에이지즘, 반공주의, 근거이론

Summary

For over twenty years, the author has served as a senior pastor in a congregation where about seventy percent of members are elderly. In this setting, recurring tensions have arisen between the faith expressions of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especially concerning the public religious practices of elderly Christians in Korean society. Practices such as participation in *Taegeukgi* rallies—where hymns, prayers, and national symbols are combined—have often generated divergent interpretations and conflict within the church. These experiences raised a central question: should these expressions be understood merely as political choices, or do they reflect a deeper structure of faith formation?

Driven by this question,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as part of a Doctor of Ministry program in Practical Theology, using grounded theory to examine the core structures of meaning within lived faith practices. Data collection involved around ten months of field observations at *Taegeukgi* rallies and detailed interviews with elderly participants. The data analysis employed open, axial, and selective coding methods, based on the framework developed by Strauss and Corbin.

The analysis uncovered a central phenomenon of "resonance," wherein patriotism and anti-communism become deeply intertwined with religious faith. This phenomenon is rooted in several causal conditions, including memories of war and national division, persistent exposure to anti-communist ideology, and historical narratives that depict the United States as a national savior. Among the contextual conditions are generational experiences of industrialization, marginalization, and ageism, while intervening conditions encompass the ritualized, worship-like structure of public rallies and the limitation of interpretive questioning.

Within this framework, participation in rallies is interpreted as an expression of faith, political discourse is translated into religious language, and a strong sense of communal identity and mission is reinforced. These processes culminate in what this study terms a “closed, self-reinforcing faith–nation meaning system,” in which religious faith and national symbols become tightly integrated, often contributing to rigid interpretations and intergenerational tension.

To interpret this phenomenon, the study proposes a model of faith formation based on the concepts of resonance and a “bottleneck structure,” through which specific symbols intensify meaning when they intersect with the lived experiences of the elderly generation. This model offers a new interpretive framework that moves beyond reductive ideological explanations.

As a practical theological response, the study proposes a “Healing Prayer Gathering for Elderly Believers,” a communal, worship-centered space in which participants can reinterpret their life experiences and faith memories. Rather than attempting to correct or challenge the beliefs of the elderly generation, this approach seeks to cultivate new structures of faith learning that foster reflection, reinterpretation, and mutual listening.

This study ultimately posits that the faith of the elderly generation should not be viewed as a problem to be fixed, but rather as a form of faith shaped by lived experiences. In light of the current context of rapid population aging, it urges the Korean church to recognize elderly believers as active agents of faith and to foster communities where diverse generational interpretations can coexist. Instead of striving to eliminate conflict, the study encourages a reexamination of the structures that give rise to such tensions and proposes a path toward healing through shared memories and relational engagement.

국문 요약

나는 지난 20 년 동안 노년 세대가 약 70%를 차지하는 교회를 담임목사로 섬겨 왔다. 목회 현장에서 나는 노년 세대 성도들의 신앙과 젊은 세대의 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노년 세대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일부 노년 세대 성도들은 태극기 집회와 같은 공적 집회에 참여하며 찬송과 기도, 국가 상징을 결합한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노년 세대의 신앙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어떤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회적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의 갈등의 치유와 변혁을 위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실천신학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갈등을 보다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론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신앙 실천의 의미 구조를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다가왔다. 나는 이러한 연구 접근을 통해 노년 세대의 공적 신앙 실천을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의 구조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나는 약 10 개월 동안 태극기 집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찰일지를 기록하며 연구에 참여하였다. 집회 현장에서는 찬송가와 군가가 함께 불리고, 기도와 구호가 반복되며, 태극기와 성조기가 신앙적 상징처럼 사용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은 단순한 정치적 집회라기보다 신앙적 수행과 상징 행위가 반복되는 일종의 예배화된 공적 공간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나는 노년 세대의 공적 신앙 실천이 정치적 참여 이상의 의미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노년 세대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을 이해하고, 그 신앙이 형성되는 구조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태극기 집회 현장 관찰과 노년 참여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스트라우스(Strauss)와 코빈(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윤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 분석 절차에 따라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과정을 거쳐 분석되었다. 개방 코딩 과정에서는 총 18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년 세대 신앙 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 단위들이 확인되었다. 이어지는 축 코딩 단계에서는 연구 자료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구조로 재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나타난 중심 현상은 애국심과 반공주의가 결합된 노년 세대의 공명(resonance)이었다. 인과적 조건으로는 전쟁과 분단의 생애 기억, 반공주의의 반복적 학습, 미국을 구원자로 인식한 역사적 서사가 작용하고 있었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산업화 세대의 집단 기억, 노년기의 상실 경험과 에이지즘,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의 주변화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중재 조건으로는 예배화 된 집회 구조, 질문과 해석의 차단, 반복적인 신체 수행과 정서 동원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나타난 작용/상호작용은 집회 참여를 신앙 실천으로 인식하는 경향, 정치 담론을 신앙 언어로 전환하는 현상, 그리고 공동체 소속감과 사명감의 강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노년 세대의 신앙은 신앙과 국가 상징이 결합된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로 나타났으며, 해석의 경직성과 세대 간 단절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노년 세대의 신앙이 특정 상징과 만나 증폭되는 과정을 '공명(resonance)'과 '좁은 통로(Neck)' 구조로 설명하는 신앙 형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노년 세대의 공적 신앙 실천을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나 이념적 선택으로 이해하기보다, 특정한 신앙 학습 구조 속에서 형성된 의미 체계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천신학적 대안으로 노년 세대의 신앙을 교정하거나 설득하는 방식보다, 그들이 자신의 기억과 신앙을 다시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 학습 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시도로 '노년 세대의 기억 치유 기도회(Healing Prayer Gathering for Elderly

Believers)'를 제안하였다. 이 기도회는 노년 세대가 자신의 생애 경험과 신앙의 기억을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해석하고 나눌 수 있는 예배적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 노년 세대의 신앙을 단순히 비판하거나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기보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형성된 신앙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의 목회 현장에서도 나는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며 함께 신앙을 성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신학적 내용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배와 설교, 소그룹과 공적 신앙 실천의 장 안에 질문과 해석, 경청이 허용되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실천신학적 시도이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은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신앙을 나누는 치유와 상호 이해의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노년 세대를 신앙의 주체로 다시 인식하고, 세대 간 신앙 해석이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갈등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갈등을 낳아온 학습 구조를 성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관계적 질서를 다시 배우는 여정의 출발점이다.

목차

TABLE OF CONTENS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문제 제기와 논의 (Statement of the Problem)

나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기독교대한감리회 S 교회를 담임하며 지난 20 여 년간 교회 안팎에서 목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다. 본 교회는 65 세 이상 노년 세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노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목양이 목회의 핵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2016 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2025 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를 거치며 한국 사회에 깊어진 이념적 양극화는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 갈등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 갈등은 태극기 집회 참여와 국가 상징에 대한 이해, 신앙과 정치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세대마다 동일한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면서 예배 분위기, 대화 방식, 공동체 의사결정까지 갈등의 온도는 점차 높아졌다.

목회적 조정과 상담이 수차례 이루어졌음에도 갈등은 쉽게 완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갈등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동일한 감리교 지방회와 타교단의 여러 목회자들과 대화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유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교회 전체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세대, 역사, 정치, 신앙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처음에 나는 이 갈등을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1] 라는 변화

[1] 이미나, 김희영, 김동일, 김재옥, and 김병남, *웰빙과 웰다잉을 위한 노인 돌봄과 노인상담* (서울: 공동체, 2020), 12. 고령화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며, 총인구 중에 65 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말한다. 고령화사회는 그 비율이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UN 에서는 65 세

속에서 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노년 세대가 경험하는 신앙적 의미와 정서,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의 복합적인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목회학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년 세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었다. 특히 김용환의 "Aging and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강의를 수강하며 깊은 깨달음을 경험했다. 그는 노년을 단순한 생애의 말미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어 온 기억의 공동체(memory community)이자 해석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 그들의 신앙 해석, 국가관, 정체성 형성은 단순한 세대적 특징을 넘어 보다 복합적인 역사적, 사회적,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김용환은 노년을 단순한 생애의 말미가 아니라, 해석의 주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노년의 신앙과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그분들의 삶을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자기를 다시 만들어 가는 이야기로 들어야 한다. 노년의 신앙 고백은 그저 오래된 기억의 반복이 아니다. 그분들은 평생의 경험을 해석하며 신앙을 다시 통합해 간다. 그래서 노인의 신앙은 단순히 약해진 신앙이 아니라, 삶 전체가 응축된 깊은 해석의 신앙이다.[3]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 대비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라고 부른다. 한국은 2025 년에는 이미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돌입했다.

[2] Yong Hwan Kim,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lecture, Context of Ministry and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Winter, 2025). 김용환은 코호트 개념을 설명하며, 노년 세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기억의 공동체'로 규정하였다.

[3] Kim,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김용환은 노년을 단순한 생애 단계로 보지 않고, 해석의 주체로서의 노인을 이해하는 신학적 시야를 제시하며 다음의 학자들을 소개한다. 제롬 부루너(Jerome Bruner)는 인간은 이야기(narration)를 통해 삶의 의미를 구성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며 정체성을 만들어간다고 보았다. 이는 노인의 삶이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서사적 의미를 가진 현재형 이야기라는 점을 시사한다.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은 인간의 자아 정체성이 경험을 해석하고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 고정되고 강화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노년기의 '자아 통합 vs 절망' 단계에서 삶 전체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과정이 핵심임을 보여준다. 제임스 파울러(James

김용환은 이를 단순한 차별의 차원을 넘어, 노년의 주체적인 의미 형성 및 해석 과정을 소외시키는 구조적 왜곡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년 세대[4]의 신앙은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해석하고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이들의 신앙 표현은 개인적 선택이나 일시적 입장으로 환원되기보다, 노년의 삶이 지나온 역사와 기억, 그리고 공동체적 경험이 층층이 쌓여 현재의 태도와 깊이 결속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은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을 단순히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현상으로만 설명하는 접근에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게 되었다. 노년 세대 크리스천들이 공적 공간에서 드러내는 신앙 실천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그들은 왜 특정한 상징을 신앙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신앙 실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의미와 긴장을 형성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경험이 신앙 형성과 하나님 이해,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 안에서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성찰하려는 실천신학적 질문이다. 이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으로 구체화된다. 첫째,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의미화하는가? 둘째, 이러한 의미화 과정에는 어떠한 경험과 해석이 작용하는가? 셋째, 이러한 신앙 실천은 교회 공동체 내 세대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Fowler)는 신앙은 단순한 교리 수용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이는 개인의 신앙 정체성 형성과 직결된다고 설명한다. 그의 이론은 노인의 신앙 고백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심화되고 통합된 신앙적 자기 이해임을 밝혀준다.

[4] 박미경,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인적자원으로서의 노인인식과 기독교 노년교육 연구,” *신학과 실천* no. 82 (2022): 672. 박미경은 UN의 발표를 인용하여, 1956년,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지칭했다. 대한민국은 국민연금법의 노인연금수급기준은 60세이다. 나는 본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65세 이상을 노년 세대의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질문은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본 연구는 노년 세대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들의 신앙 실천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노년 세대를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경험과 신앙을 해석하는 주체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긴장을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신앙 경험과 해석이 만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초고령 사회[5]로 진입한 한국 교회는 세대 간 신앙 이해의 차이와 정치적 긴장이 예배와 공동체 정체성의 문제로 확장되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노년 세대가 국가 상징을 신앙의 언어로 수용하고 표현하는 현상은,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신앙과 삶의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을 그들의 생애사적 경험과 기억, 그리고 해석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한국 교회가 직면한 세대 간 갈등을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하기 위해 요청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노년 세대의 경험과 신앙 실천을 면밀히 탐색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해석의 과정을 통해 한국 교회가 직면한 긴장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B. 논지의 흐름 (Thesis and Scope of the Study)

나는 본 연구를 통해 태극기 집회 참여 경험이 있는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신앙적 정체성의 표현으로 내면화하게 되었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5] 서주일 and 황병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농촌지역 노인목회 연구,” *실천신학* no. 73 (2021): 889. 서주일과 황병준은 UN의 분류를 인용하여,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일 때로 정의한다.

10 개월간의 현장 관찰일지, 집회 참여자의 언어, 행동, 상징을 담은 사진 분석, 그리고 심층면접을 종합하여 입체적인 자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다층적 자료 분석[6]을 바탕으로 개방, 축, 선택 코딩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태극기 집회 참여 경험이 있는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의 신앙 실천이 어떠한 경험과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장 관찰, 집회 참여자의 언어와 행동, 상징적 실천에 대한 자료, 그리고 심층면담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형성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문제 제기를 제시하고, 연구 질문과 연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2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과 연구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 관찰, 사진 자료, 심층 면담을 포함한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기술했다. 3 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경험의 특징들을 정리했다. 4 장에서는 3 장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의 대화를 시도하며,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을 보다 넓은 신학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했다. 5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고, 노년 세대의 신앙 경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성찰하며, 공동체적 이해와 관계 형성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했다.

C.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Definition of Key Terms)

나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하였다. 질적 연구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용어이지만

---

[6] 유기웅, 장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2nd ed. (서울: 박영스토리, 2018), 393–98. 나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Merriam 방식 중에서 삼각검증법, 연구 참여자 확인법, 장시간 관찰법, 동료 검토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연구 방법과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2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1. 한국 노년 세대 크리스찬 (Older Korean Christians)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한국 노년 세대 크리스천이란, 대체로 65세 이상으로 분류되는 연령 집단[7] 중에서, 한국전쟁(1950) 전후의 격변을 직접 경험했거나,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살아온 생애사적 기억을 공유하며, 개신교 신앙 전통 안에서 신앙정체성을 형성해 온 이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단순한 연령 집단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기억을 공유하는 '코호트(cohort)'이자 '기억의 공동체(memory community)'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 국가 인식, 정치적 감수성은 개인적 선택을 넘어 전쟁과 반공주의 그리고 근대화와 교회 성장기 등 한국사회의 역사적 구조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8]

2. 에이지즘 (Ageism)

에이지즘은 1968 년 노년학자 로버트 버틀러(Robert N. Butler)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노인과 노화 자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의미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배제에서 시작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에이지즘은 언어적 폭력, 제도적 차별, 사회적 배제의 속성을 가지며 이러한 태도는 노인을 주변화하고 사회적 시야에서 밀어낸다고 했다.[9]

---

[7] 박미경,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인적자원으로서의 노인인식과 기독교 노년교육 연구," 672. 박미경은 UN의 발표를 인용하여, 1956년,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지칭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를 노령연금 수급의 기준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적 기준과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학계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연령 분류에 따라 65세 이상을 노년 세대의 범주로 설정하고자 한다.

[8] 서선주 and 이은성, "한국기독교의 '기독교 국가론'과 '반공신앙'의 태동과 특징에 관한 연구," *기독교와 통일* 15, no. 1 (2024): 140-48.

[9] Ashton Applewhite, *This Chair Rocks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trans. 이은진 (서울: 시공사, 2016), 29-35.

김용환은 이러한 차별이 무의식적으로 이뤄지며 노인과 차별 주체 모두를 희생양으로 만든다고 지적한다.[10]

3. 반공주의 (Anti-Communism)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의 이념, 정치, 사회 체제를 반대하거나 저지하려는 사상적, 정치적 태도를 의미한다. 특히 20세기 냉전 구도 속에서 민주주의 진영은 반공주의를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이데올로기로 삼았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넘어선 정체성의 축으로 기능하였다.[11]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는 해방 이후 분단 체제와 한국전쟁(1950–1953)을 거치며 국가 건설의 정당성을 지탱한 핵심 이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주의를 국가 정체성과 동일시했고 한국 교회 역시 북한 정권을 하나님의 적으로 규정하며 이를 종말론적 선악 대립 구도와 연결하였다.[12]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공주의는 정치 담론을 넘어 신앙과 종교적 정체성 속에 깊이 내면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공주의를 단순한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 노년 세대 크리스천의 역사적 경험과 신앙적 정체성에 깊이 각인된 동시에, 신학적 비판을 필요로 하는 내면화된 담론으로 개념화하여, 역사적 경험과 신앙 정체성 형성에 작용한 분석 렌즈로 사용한다.

4. 내면화 (Internalization)

내면화란 외부의 가치, 규범, 상징 체계가 개인의 인지와 정체성 구조 안으로 흡수되어 반복적 실천과 해석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의미한다.[13] 심리학적 전통에서는 이를

---

[10] Kim,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11] 서선주 and 이은성, "한국기독교의 '기독교 국가론'과 '반공신앙'의 태동과 특징에 관한 연구," 148.

[12] Seon Kyo Park, "Political Grief and the South Korean Church," *Religions* 16, no. 3 (2025): 308.

[13] 박수민 and 이남호, "내면화의 개념과 사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어문교육* no. 34 (2021): 185–90.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내적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이해해 왔다.[14]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내면화는 단순한 심리적 흡수에 머물지 않는다. 김용환은 반복된 신앙 실천과 공동체적 상징 수행 속에서 형성되는 의미의 구조화 과정이며,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특정 신학적 해석 틀과 결합되어 정체성으로 굳어지는 실천신학적 과정으로 사용된다고 했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면화는 노년 세대 크리스천들이 국가 상징을 신앙적 의미 체계 안에 통합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형성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D. 청중 (Target Audience)

이 연구의 첫 번째 청중은 바로 연구자인 나 자신이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 노인 세대가 가진 생각과 감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선이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한다. 두 번째 청중은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며 다른 문화를 경험해 왔지만 각 세대가 어떻게 상징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해 왔는지를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를 조명하고 세대 간 상호이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오해와 갈등 너머에 있는 이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세 번째 청중은 이 연구를 읽는 모든 세대의 독자들이다. 태극기와 성조기에 대한 의미는 단지 나이 많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 상징의 의미는 세대와 맥락에 따라

---

[14] 박수민 and 이남호, "내면화의 개념과 사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185–90.

[15] Kim,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김용환은 내면화 개념을 설명하면서 Freud 가 사회적 규범과 부모의 가치가 초자아(superego)로 자리 잡는 과정을 내면화로 이해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Vygotsky 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인의 내적 기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내면화로 설명하였고, 외부 세계의 가치와 규범이 개인의 심리 구조 안에 흡수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이 상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함께 풀어낸다.

E. 연구의 범위와 한계성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의 한계를 지니며, 또한 기독교 노년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노인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맥락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는 노년 세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국가 상징과 신앙 언어가 서로 다른 세대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경험되는지에 대한 비교적 관점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과 중년 세대를 포함한 세대 간 비교를 통해, 신앙과 국가 상징의 의미가 어떻게 다층적으로 구성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비교적 유사한 교회 유형과 신학적 배경에 속해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교회 전통과 신학적 성향, 공동체 문화에 따라 신앙과 국가 상징이 결합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교단과 신학적 맥락 속에서 이러한 의미 형성 과정이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탐구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분석이라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앙과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재구성되는지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노년기의 신앙은 생애사적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재해석된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신앙과 국가 상징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특정 집단과 맥락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신앙 형성 구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적 차이, 사회적 경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신앙의 내면화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변형되는지를 비교하는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기된 논의를 보다 넓은 차원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F. 연구의 독창성과 공헌 (Contributions of the Study)

본 연구는 교회가 노년 세대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선을 재고하도록 요청하며 그들을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해석하는 주체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노년 세대는 교회와 사회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해석을 생성하는 중요한 신앙 공동체로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노화를 단순한 생물학적 쇠퇴로 이해하는 접근을 넘어, 삶의 경험이 축적되고 통합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16] 나아가 이는 목회적 돌봄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점을 드러내며, 교회 공동체가 세대 간 갈등을 새로운 이해와 성찰의 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노년을 의료적 돌봄이나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시각[17]을

[16] Lynn W. Huber, "Aging as Pilgrimage: Spiritual Potentials of Late Life" in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eds. Melvin A. Kimble and Susan H. (MN: Fortress Press, 2003), 12.

[17] Margaret Cruikshank, *Learning to Be Old: Gender, Culture, and Aging*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3), 40–45.

넘어, 사회적 경험과 기억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해석의 주체로 재조명한다.[18] 이는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을 단순히 특정한 입장이나 태도로 환원하기보다, 그들의 삶의 경험과 신앙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은 노년 세대를 둘러싼 기존 담론을 확장하며, 실천신학, 노년학, 문화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한 신앙 실천 현상을 단순한 결과로 규정하기보다, 그 의미가 형성되고 해석되는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세대 간 신앙 이해의 차이를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학문적, 실천적 기초를 제공한다.

[18] 강남순, *데리다와의 데이트* (파주: 행성비, 2023), 112.

Chapter II

질적 연구 방법과 절차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Procedures)

1장에서 본 연구의 문제 상황과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논증하며 핵심 개념을 정리하였다면, 2장은 이러한 연구 질문을 실제로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계이다. 본 장에서는 질적 근거이론 방법론의 이론적 기반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자료 수집 방식, 분석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이후 장에서 제시될 이론적 도출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A. 연구 방법 (Research Method)

1. 왜 질적연구인가? (Why Qualitative Research?)

본 연구는 노년 세대 크리스천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신앙적 언어로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현상은 통계적 수치나 변수 중심의 분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신앙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의 내적 구조를 포함한다.[19] 그러므로 참여자들의 목소리와 경험 그리고 감정을 직접 듣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접근이 필수적이다.[20]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이 '내면화 과정의 구조'를 밝히는 데 있는 만큼, 선행 이론 검증이 아니라 자료로부터 개념과 범주를 생성하는 근거이론 접근이 방법론적으로 가장 적합하다.[21]

또한, 노년층 신앙인들의 경험은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

[19]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2.
[20]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146.
[21]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2–35.

동일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참여자의 세대적 배경, 역사적 기억, 신앙적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 이처럼 다층적이고 맥락적인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목소리를 존중하며, 그들의 언어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나가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22]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의 관점, 태도, 연구 준비 수준에 따라 결과의 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연구자가 양적 연구 전통에만 익숙하고 질적 연구의 관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 초기부터 질적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훈련해 왔다. 질적 연구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연구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본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교수의 자문을 통해 연구 설계와 분석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받아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23] 아울러 동료집단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연구 설계와 진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였다.[24]

2. 근거 이론 (Grounded Theory)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근거 이론을 적용한다. 근거 이론은 1967 년 바니 G. 글레이저(Barney G. Glaser)와 안셀름 L. 스트라우스(Anselm L. Strauss)에 의해 제시된 질적 연구

---

[22]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2004), 102.

[23] 신경림 et al., 105.

[24] 동료 연구자와 후속 기수들 간의 협업을 통해 이론적 완성도를 높였다. 논문 제안 단계에서 박사과정 중인 목회자들과 차기 논문 연구자들과 함께 ZOOM 을 통해 연구 제안서를 공유하였고, 이들은 전반적인 주제 구성, 연구 타당성,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 신학적 함의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연구자의 시야를 넓히고, 논문의 방향 설정과 이론적 정합성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반성적(reflexive) 자세와 연구 윤리를 실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피드백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부록과 관련된 실제 촬영 영상(촬영일시: 2025 년 4 월 14 일 오전 9 시-정오 12 시)은 구글드라이브 안에 녹화된 영상(Proposal Presentation 2025.mp4) 형태로 공유 문서함에 보관했다.

접근이다.[25] 근거 이론의 목적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작동하는 추상적 원리나 이론을 발견하는 것이다.[26] 근거 이론은 사회안에서 상호작용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초점을 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27] 나는 이러한 근거 이론의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면담을 하였다. 면담은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으로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과 1 대 1 로 면담을 하는 형태이다.[28] 김영천은 심층 면담이 연구 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소개한다.[29]

나는 노년 세대 기독교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드는 현상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현장 관찰과 심층 면담 그리고 사진자료 분석을 통해 추출하고 그 과정을 이론화했다. 나는 반구조화 면담 가이드에 따라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 면담이란 사전에 정해진 질문 틀은 있으나 순서와 방식은 유연하게 조정하여 참여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면담 방식이다.[30] 특히 국가 상징과 신앙이 결합된 경험은 참여자 스스로도 명확히 개념화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보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잦았다. 따라서 반구조화 면담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의 기억과 신앙 경험을 방어적이거나 교정적인 방식이 아닌, 비교적 안전한 서사로 풀어낼 수 있는 적절한 연구 도구로 기능한다.[31]

---

[25]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346.
[26]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52.
[27]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354.
[28]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V*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562.
[29]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323.
[30] 김영천, 326.
[31] 김진희, 김영순, and 김지영, *질적 연구 여행* (성남시: 북코리아, 2015), 225.

본 연구에서는 안셀름 L. 스트라우스 (Anselm L. Strauss)와 줄리엣 M. 코빈(Juliet M.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분석 절차를 토대로 자료를 해석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분석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며,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순으로 진행했다.[32]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3 단계 코딩[33]

단계	목적	핵심 질문
개방 코딩(open coding)	원자료를 해체, 검사, 비교, 개념화, 범주화하는 과정[34]	지금 자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축 코딩(axial coding)	범주 간 관계를 코딩 패러다임으로 재조직하여 구조화[35]	이 현상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지속/강화되는가?
선택 코딩 (Selective coding)	전체 범주를 핵심 범주(core category) 중심으로 통합하여 이야기 구조(스토리라인) 구성[36]	이 연구 결과를 관통하는 중심 구조는 무엇인가? [37]

이와 같은 세 단계의 코딩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윤리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심층면담을 진행할 때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필사본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을 직접 읽어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필사본 제공을 원하는 참여자에게는 요청에 따라 이메일로 문서를 전달하였다. 또한 녹음이 허락되지 않아 메모만으로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면담 당시 기록한 메모와 이후 재구성한 내용을 참여자에게

---

32 Anselm Strauss and Juiet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근거이론의단계*, trans. 신경림 (서울: 현문사, 2001), 91-147.

33 유기웅 et al.,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86-100.

34 유기웅 et al., 86.

35 김요완, "근거이론을 적용한 이혼소송과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21, no. 2 (2009): 561.

36 유기웅 et al.,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93.

37 유기웅 et al., 97.

다시 들려주어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의미를 연구자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오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중심현상은 자료 내에 제시되는 중심 생각으로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38] 즉,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중에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현상을 일컫는다.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 문제, 쟁점을 다루는 방식을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이라고 하며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를 결과(consequence)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39] 조건에는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중심현상(phenomen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이 있다.[40]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일으키거나 발전시키는 사건이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일컬으며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들을 말한다.[41]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일컬으며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하는 조건을 말한다.[42]

김영천은 근거이론을 "사람들의 행위 혹은 사회적 현상이 그 삶 속에서 가지는 의미와 그 의미 생성 과정의 근거를 탐구할 때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설명한다.[43]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근거이론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노년층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전쟁, 분단, 반공

[38] 유기웅 et al.,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94.
[39] 김요완, "근거이론을 적용한 이혼소송과정 분석," 561.
[40] 유기웅 et al.,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95.
[41] 유기웅 et al., 95.
[42] 김요완, "근거이론을 적용한 이혼소송과정 분석," 562.
[43]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77.

이데올로기)과 종교적 삶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특정한 집단적 행위가 발생하는데 근거이론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신앙적, 사회적 의미의 형성과정을 추적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노인의 갈등 구조를 이론화하는데 근거 이론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과정과 엄격성을 지닌다.[44]

나는 녹취 자료를 반복적으로 전사하고 정독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확보한 뒤,[45] 위의 코딩 절차를 적용하여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를 달성하였다.[46]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constant comparison)하며 개념과 범주를 귀납적으로 형성하고, 현상, 개념, 범주 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 수집 단계에서의 이론적 포화를 넘어 분석 단계에서도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가 도출되지 않는 상태까지 연구를 진행하였다.[47] 연구의 엄격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교수와 긴밀히 협력하며 조언과 지도를 받았고, 연구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을 통해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참여자들의 피드백은 연구 부록에 첨부하였다.[48] 또한 동료 검토법(peer examination)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동료들과 연구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며 연구 방법, 의미 해석, 연구 목적과의 연계성, 연구 문제 해결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49]

---

[44]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78. 유기웅은 근거이론 방법이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행위자의 다양한 경험 세계와 그 경험이 전개되는 과정을 포착하는 데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 방법은 이론적 표본 추출과 코딩, 지속적인 비교 분석, 메모 작성, 핵심 범주의 도출, 그리고 패러다임 모형의 구성 과정을 통해 행위자의 경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 차이와 강도, 깊이, 그리고 각 요소들 사이의 상호 영향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근거이론은 개별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경험의 구조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평가된다.

[45] 유기웅 et al., 85.

[46]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I*, 373.

[47]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84–85.

[48] 유기웅 et al., 396.

[49] 유기웅 et al., 397. 논문 마무리 단계에서도, 초기 제안서 작성 시와 마찬가지로 동료 연구자와 후속 연구자들로부터 동료검토(peer review)를 받았으며 부록에 수록되었다. 연구 결과와 논문의 내용을 공유하고

B. 연구 참여자들 (Research Participants)

나는 2025 년 1 월 25 일부터 12 월 6 일까지 서울 광화문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참여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수행하며 집회 참여자들과 신뢰 형성을 만들어갔다. 신뢰 형성을 뜻하는 '라포(rapport)'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 신뢰관계를 말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서로 마음이 통하거나 어떤 일이든지 터놓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말이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상호관계를 말한다.[50] 연구의 투명성과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글 설문지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 참여 조건을 사전에 설명했다. 이후 배포한 심층면접 모집 명함을 통해 심층면접 구글설문지를 읽고 연구 참여자 모집영상 시청 후 참여의사를 밝힌 노인은 27 명이었다. 나는 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찰 현장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노년들은 심층면접자에서 배제했으며 대화를 나누지 않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노년 참여자 10 명을 연구 참여자 대상으로 최종 선별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부 대화를 가진 노인은 자칫 잘못하면 연구자의 방향을 이미 알고 있어서 진솔한 대답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모집 기간 중 일부 노년 참여자들은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 가족 구성원이 직접 참여 의사를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연구 참여자 10 명을 모집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기준과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구분	성별	연령대	직분	신앙 연수	집회 참가 년 수
연구 참여자 A	여	80 대 후반	집사	30 년 이상	10 년 이상
연구 참여자 B	남	80 대 후반	집사	20 년 이상	10 년 이상
연구 참여자 C	남	70 대 중반	권사	30 년 이상	7 년 이상

피드백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동료 연구자들과 후속 기수들은 연구 방법, 자료 분석, 의미 해석, 연구 목적과 결과의 연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을 제공했다.

[50]신연희, 이은남, 조영신 et al., "라포에 대한 개념 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24, no. 3 (2017): 187.

연구 참여자 D	여	70 대 후반	집사	20 년 이상	10 년 이상
연구 참여자 E	남	80 대 초반	장로	40 년 이상	10 년 이상
연구 참여자 F	여	60 대 후반	장로	40 년 이상	8 년 이상
연구 참여자 G	남	70 대 중반	집사	30 년 이상	9 년 이상
연구 참여자 H	여	80 대 초반	권사	30 년 이상	10 년 이상
연구 참여자 I	남	60 대 중반	권사	20 년 이상	5 년 이상
연구 참여자 J	여	60 대 중반	집사	20 년 이상	10 년 이상

나는 원활한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3 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QR 코드 형태로 명함에 담아 집회 현장 참여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은 온라인 설문 도구인 Google Forms 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과 참여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포함한 온라인 모집 설문을 제작하고, 해당 설문에 접근할 수 있는 QR 코드를 생성하여 참여자 모집에 활용하였다.[51] 이 QR 코드는 연구 안내 명함과 온라인 메시지 등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참여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설문에 접속하여 연구 설명을 확인한 후 참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예상 인터뷰 시간,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으며, 참여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 연구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참여자가 연구 참여 여부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였다.

또한 연구 참여 경험에 대한 평가와 연구 과정의 윤리적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온라인 설문 도구를 활용하여 참여자 피드백을 수집하였다. 피드백 설문은 연구 설명의 이해도, 인터뷰 과정의 편안함, 연구자의 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감 등을 포함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서술형 문항을 통해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는

[51]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글설문지와 참여자 모집 영상을 QR 코드로 제작해서 부록에 수록했다.

질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구 참여자의 자발성, 윤리적 안전성, 연구 과정에 대한 성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되었다.[52] 관련 자료는 연구 부록에 수록했다. 이 방법은 예비 연구 참여자가 프로젝트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사전에 연구자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자와 참여자 간 라포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초기 제작된 명함은 글자 크기가 작아 노년층이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글자 크기와 구성 요소를 조정한 명함을 다시 제작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연구 과정의 개방성과 소통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기능했으며 관련 자료는 연구 부록에 수록했다.

C. 연구 진행 과정 (Research Procedures)

나는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2025 년 11 월 26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진행하였다. 초기 면담 질문은 선행 연구 검토와 목회 현장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예비 면담을 통해 질문의 이해 가능성과 정서적 민감성을 점검한 후 최종 질문지로 수정, 확정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총 17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 장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질문에 직접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 각 질문은 국가 상징의 신앙적 의미화 경험, 그 과정에서의 정서, 기억 구조, 그리고 세대 갈등 인식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탐색하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내면화 영역은 본 연구의 핵심 주제로서, 신앙 실천의 영향, 국가 상징과 신앙의 결합, 내면화의 과정(전환점, 감정, 정체성 형성), 그리고 신앙적, 국가적 자기정체성 고양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네 개의 하위 구조로 정교하게 구성하였다. 면담 가이드를 위한 질문을 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2]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409.

〈표 3〉 연구 프로젝트 면담을 위한 내용과 질문[53]

구분	내용	연구에 활용된 질문들
환영	(연구 주제 설명/녹취하지 않음) 환영 인사와 근황 이야기 인터뷰 목적과 절차 설명	1. 요즘 건강과 일상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2. 연구 참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하기로 할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소개질문	(녹음 시작 후) 자연스럽게 이야기 흐름을 여는 도입 질문 자신의 삶 배경과 신앙, 경험을 부드럽게 말하도록 유도	3.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4. 혹시 간단히 자기소개와 신앙생활, 교회 경험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역사적, 사회적 경험 질문	(탐색 질문) 세대 경험과 신앙적 해석의 기반을 확인	5. 해방, 전쟁, 산업화 등 역사적 경험이 오늘날 선생님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로 남아 있다고 느끼시나요? 6. 노년의 삶 속에서 교회와 사회로부터 충분한 존중, 보상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어떤 점에서 소외를 경험하셨나요?
내면화 질문	(직접적 질문) 신앙, 실천이 삶과 태도에 미친 영향 탐색	7. 오랫동안 예배, 기도, 찬송을 드리면서 그 경험이 선생님의 생각이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느끼시나요?
	(직접적 질문) -신앙과 국가 상징의 연결 경험 탐색	8. 태극기나 성조기를 드실 때 그것이 신앙과 연결된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경험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후속, 심화 질문) 내면화의 형성과정, 전환점, 감정, 정체성을 파악하는 핵심 질문들	9. 언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과 신앙을 지키는 일이 연결된다고 느끼셨나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10. 태극기나 성조기를 볼 때, 단순한 국기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 순간이 있었나요? 11. 집회에서 깃발을 들거나 찬송을 부를 때 마음 속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12. 노년기에 경험하신 상실이나 소외가 집회 참여 때 국가 상징 사용과 어떻게 연결되었다고 느끼시나요?

[53] 본 연구의 면담 질문 구성은 이상수(2019)가 김요완(2006)의 ‘〈표 6〉 Kvale(1996/1998)의 인터뷰 질문 유형’을 응용하여 제시한 질문 표를 참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13.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중에 국가를 신앙적으로 바라보게 만든 내용이 있었나요? 14. 집회에 참여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국가 상징 질문	(직접 질문) 국가 상징의 의미, 행동, 정체성 연결	15. 태극기와 성조기를 드는 행동이 선생님 개인에게 또는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16. 깃발을 들며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에이지즘 질문	(직접 질문) 노년기 소외 경험과 국가 상징 실천의 관계 탐색	17. 연령 때문에 사회나 교회에서 배제되거나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 경험이 선생님의 감정,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18. 이런 소외 경험이 국가 상징을 드는 행동이나 신앙적결단에 영향을 준 적이 있나요?
반공주의 질문	(심화 질문) 반공주의의 신앙적 내면화 과정 파악	19. 전쟁, 분단, 반공 교육 등 북한 공산주의와 관련된 경험이 지금의 신앙과 국가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나요? 20. 교회에서 들었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메시지가 선생님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의미를 주었다고 느끼시나요?
침묵	대답 전 깊이 생각할 시간을 제공 감정적으로 어려운 질문 이후 자연스러운 호흡 제공	(침묵)
대안, 정리 질문	(해석적 질문, 상술하는 질문) 참여자의 의미 해석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정리 질문	21.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신앙, 국가, 정체성'이 선생님의 삶에 어떤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마무리 인사	(녹취 종료) 녹음 종료 안내 감사 인사와 정리	22.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편하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23.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인터뷰 가이드 질문지를 안내하였다.[54] 연구 참여자들은 평소 신앙과 국가 상징을 연결하는 경험에 대해 많은 생각과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질문지가 없어도 충분히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55]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보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 면담 가이드를 사전에 미리 받기를 희망하였고, 나는 이러한 요구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터뷰 하루 전에 이메일을 통해 면담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이메일 확인에 불편한 분은 직접 찾아가 유인물을 나눠주었다.

면담 과정에서 나는 경청의 태도를 유지하며 참여자의 진술을 존중하려 노력하였다.[56] 질문은 기본적으로 면담 가이드에 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즉흥 질문을 하면서 참여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와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57] 나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장사진 기록이라는 세 가지 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약 10 개월 동안 총 13 회 집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관찰일지를 작성하였고, 참여자들의 행동, 상호작용, 감정의 변화, 국가 상징 사용 양식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사진 자료를 수집하되 모든 이미지에서 참여자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식별 정보를 블록 처리하였다.

관찰일지는 본 연구의 1 차 질적 자료이기 때문에, 해석 이전의 원문을 자료의 투명성과 연구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부록에 전체 수록하였다. 본문에서는 분석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

[54] 본 연구는 〈표 3〉의 ‘연구에 활용된 질문들’을 토대로 면담 가이드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였다.

[55]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67.

[56] 유기웅 et al., 269.

[57] 유기웅 et al., 271.

선별적으로 인용하였다. 이처럼 면담 자료, 현장 관찰, 현장사진기록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자료 간의 상호보완적 의미가 강화되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들이 서로를 확인, 뒷받침하는 삼각검증(triangulation)의 효과를 제공하였다.[58] 이 복합적 연구 절차는 이후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국가 상징 내면화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끌어내는 토대가 되었다.

면담은 참여자의 긴장을 완화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일상적 대화로 시작하였고,[59] 이후 연구 질문과 관련된 주제로 전환하였다. 나는 모든 면담을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고, 언어적 진술뿐 아니라 표정, 제스처, 침묵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도 중요한 연구 자료로 간주하며 기록하였다.[60] 나는 삼성 갤럭시 S23 과 내장 음성 메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녹취하였고, 동시에 현장에서 떠오르는 인상과 관찰 사항을 A4 무선 노트와 0.5mm 흑색 젤펜으로 메모하였다.

나는 이 기록들을 전사 과정에서 해석의 깊이를 보완하는 데 활용하였다.[61] 수집한 면담 자료의 전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면담 음성 파일은 우선 Naver 의 Clova Not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텍스트화하였다.[62] 이 과정에서 전체 자료의 약 85%가 정확하게

---

58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94.

59 유기웅 et al., 268.

60 신경림 et al., *질적 연구 방법론*, 146.

61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522. 전사(transcription)란 연구자가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예를 들어 손으로 작성한 관찰 기록, 녹음 자료, 기타 문서나 현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옮기고, 분석을 위해 필요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62 클로바노트(Clova Note)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음성 파일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전환해 주는 전사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 과정에서 수집된 음성 자료를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전사하였으며, 이 기능을 활용한 결과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약 85% 정도의 정확도로 텍스트 구성이 가능하였다. 이후

전사되었으며, 나머지 15%는 프로그램이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부족한 부분은 녹취 음성과 대조하면서 직접 타이핑하여 보완하였다.[63] 이후 전체 텍스트는 Microsoft Word 로 옮겨 오탈자를 수정하고, 문맥상 어색한 표현을 바로잡았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가 메모해둔 참여자의 표정, 손동작, 말투의 특징 등을 텍스트 자료에 함께 기록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결과물은 Word 문서(US Letter, A4 용지에 글자크기 10pt, 장평 100%, 줄간격은 160%, 기본 여백)로 총 약 55 여 쪽에 해당하며, 단어 수는 약 8,420 개에 이르며 아래에 나오는 표와 같다.

〈표 4〉 심층 면담의 녹음과 텍스트화(In-depth Interviews and Transcription)

연구 참여자	면담시간 (분)	/ (초)	녹음시간 (분)	/ (초)	메모 (쪽수)	Clova 단어	Clova 문자	Word 쪽	Word 단어
A	55	00	50	30	4	1.234	7,523	5	860
B	60	00	55	10	5	1,350	8,147	6	945
C	50	30	46	20	4	1,156	6,765	5	822
D	58	00	52	45	5	1,250	7,434	6	878
E	57	30	53	15	5	1,378	7,856	6	898
F	52	00	48	50	4	1,150	7,054	5	834
G	59	30	54	40	5	1,320	7,923	6	883
H	51	45	48	00	4	1,184	7,267	5	827

부족한 부분은 직접 청취하며 보완하였다. 클로바노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회원 가입 후 무료 버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https://clovanote.naver.com

[63] 본 연구에서 활용한 Word 프로그램은 Microsoft 사의 Office 365 Education 영문판으로, 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학생 계정을 통해 제공받아 설치 및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은 정식 경로를 통해 내려받았으며, 다음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https://www.microsoft.com/enus/education/products/office

I	53	00	49	30	4	1,195	7,387	5	838
J	56	00	51	30	5	1,285	7,789	6	868
합계	553분 15초		510분 30초		45	12,502	75,145	55	8,420
평균	55분 20초		51분 3초		4.5	1,250	7,514	5.5	842

나는 1 회당 평균 55 분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총 10 명의 참여자와 약 9 시간 13 분 정도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실제 음성 녹취는 8 시간 30 분 분량이었으며, 현장 메모는 총 45 페이지에 달하였다. 나는 모든 녹취 파일을 면담별로 구분해 안전하게 보관하였고,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는 보안 지침에 따라 삭제하고 폐기하였다. 나는 면담을 통해 수집한 녹취 자료를 개인용 노트북(Samsung, Windows 11 Pro, 15-inch, Mid 2025)으로 옮겨 전사하였다.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저장 장치(SanDisk Cruzer Glide 64GB)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저장하였으며, 노트북 자체 또한 외장 하드(SEAGATE My Passport Studio 2TB)를 활용한 시스템 백업(Time Machine)을 통해 3 중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였다.[64]

자료는 연구 진행 단계에 따라 폴더별로 구분 정리하였으며,[65] 연구 참여자에게 약속한 비밀 유지(confidentiality)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모든 파일과 폴더에 암호를 설정하였다.[66] 또한 외장 저장 장치와 백업 장치에도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파일 및 폴더 명에서도 참여자를

[64] 신경림 et al., *질적 연구 방법론*, 146.

[65] 신경림 et al., 146.

[66] Nigel King and Christine Horrocks,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 김윤주, 김려화, 박금주, and 지은주 (서울: 현문사, 2013), 158.

특정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자료의 기밀성을 확보하였다. 전사 과정을 마친 후, 자료에 대한 간단한 메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인 질적 자료 분석 과정을 시작하였다.[67]

[67]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531.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집한 자료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느끼거나 떠오른 생각을 기록하는 반성적 메모는 분석 과정에서 핵심적인 도구가 된다. 이러한 메모는 초기 단계에서는 다소 추상적이고 즉흥적인 형태를 띠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점차 주제별로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의미를 담게 된다.

Chapter III

연구 분석 (Research Analysis)

3 장의 목적은 2 장에서 제시한 근거이론 분석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의 국가 상징 내면화 경험 속에서 드러난 핵심 범주와 의미 형성 구조를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장은 노년 세대의 종교적 실천이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환원될 수 없는 현상이며, 질문과 해석이 제한된 신앙 학습 구조 속에서 형성된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더 나아가 태극기 집회와 같은 공적 공간이 단순한 정치 행동의 장을 넘어 찬송과 기도, 상징 수행이 반복되는 예배화 된 신앙 학습 공간으로 기능하며, 그 안에서 노년 세대가 상실과 주변화의 삶의 맥락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 의미와 신앙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장은 노년 신앙을 교정하거나 판단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신앙이 형성되고 내면화되는 학습 구조 자체를 실천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는 이후 장에서 전개될 신학적 해석과 실천적 제안의 기초를 형성한다.

A. 개방 코딩 (Open Coding)

나는 개방 코딩에서 106 개의 개념, 29 개의 하위 범주, 18 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후 범주 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여 축 코딩 범주를 재배치하였다.

〈표 5〉개방 코딩의 결과

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요소
어린 시절 총성, 폭격 소리 기억 피난 경험을 하나님의 보호로 해석 전쟁 고아, 학살 목격 기억 ‘공산당은 악’이라는 초기 인식 형성	6·25 전쟁 기억의 신앙적 의미화	전쟁, 분단 경험의 영적 해석	인과적 조건
교회가 ‘반공=신앙’으로 가르침 반공 궐기대회 참여 경험 공산주의 위협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 신앙과 국가 충성의 동일시	반공주의 내면화		
미국 없으면 한국도 없다는 믿음 미국은 하나님이 보낸 나라 성조기는 종교적 보호 상징 미국의 힘을 영적 방패로 해석	미국의 구원자 서사		
반공, 권위 중심 신앙 형성 규율, 복종이 몸에 배어 있음 국가와 신앙 질서를 동일시	군사정권, 산업화 경험		
일상에서’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 없다’는 평가 경험 젊은 세대와의 소통 단절 가족, 사회에서 의견이 무시되는 감정 교회 행사, 의사 결정에서 역할 배제 경험	노년층 사회적 주변화 경험	에이지즘 기반 신앙, 정체성 재구성	
더 이상 사회에서 쓰임 받지 못한다는 위기감 공동체 내 영향력 감소로 인한 상실감 ‘나라,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역할 욕구 국가 안보, 반공의 수호자로 자신을 재정의 태극기 집회 참여를 통해 잃어버린 존재감 확인	역할 상실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동		
한국전쟁, 산업화 세대의 고유한 경험이 무시되는 설움 희생했지만 보상받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소외감	세대적 박탈감과 존재 가치 상실		
반공주의 설교, 기도, 찬송의 일상화 교회를 안보 공동체로 인식 국가 위기 프레임 설교	반공, 애국 설교의 영성화	한국교회의 보수적 신앙 환경	

'나라를 지키는 것이 믿음' 강조 국가, 정치, 담론이 예배 언어로 전환			맥락적 조건
국기에 대한 경례=신앙고백으로 경험 성조기, 태극기를 예배 도구처럼 사용 충정가, 국민의례를 찬송처럼 부름 집회 의례가 예배 의례로 전환	국가의례의 예배화 문화		
젊은 세대와 정치 성향 갈등 자신들의 희생이 무시된다는 상실감 세대 간 가치관 충돌 교회 내 세대 갈등 증가 세대 갈등이 국가 상징 실천으로 보상됨	세대 단절 경험	한국교회의 이념, 세대 갈등 심화	
세대적 기억 공유 역사적 상처로 연결 서로를 '투사'로 인정 집회가 신앙적 가족이 됨	노년 세대의 동질감		
위기 담론 반복 소리 정치, 신앙 혼합 정보 수용 뉴스를 영적 진리로 이해 왜곡 정보도 신앙처럼	위기 담론의 반복 노출	미디어 정보 환경	
미디어 정보가 신앙 판단의 기준이 됨 집회 참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구조 형성 예배보다 유튜브를 더 자주 접함	대안 정보체계의 종교화		
태극기와 성조기가 예배적 몸짓처럼 체험 경례, 충정가가 찬송 감정을 촉발 집회를 예배보다 더 은혜롭다고 느낌 반복되는 신체행위가 감정, 기억을 강화 국가 의례가 종교 의례로 변환됨	국가 상징의 신체화된 실천	상징과 의례의 일상화 구조	
국가 상징 실천이 신앙정체성과 연결 의례 반복이 내면화 과정 촉진 공동체 분위기가 종교적 감정 집중 상징, 의례를 통해 정치와 신앙이 융합	상징, 의례의 정체성 강화 효과		
건강 문제, 우울감 증가 노년기 외로움 심화 경제적 취약성으로 불안 증가 신앙, 국가에 심리적 의지 증가	정서적 고립과 위약감	개인적 상실, 심리적 취약성	
국기 흔들기에서 안정감 경험 함께 모여 찬송할 때 위로감 경험 국가 상징이 자기 존재 확인의 도구로서 역할 집회 참여가 일종의 '정서적 봉헌'으로 작용	국가 상징(예배)의 치유기능		

태극기를 들면 신앙감정 상승 국기 흔들기는 예배적 몸짓 국기 경례를 신앙고백처럼 체험 국기 의례를 예배 의례로 전환	국가 상징의 성례화(聖禮化)	애국심과 신앙적 내면화	중심현상
미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성조기는 자유, 반공 상징 미국이 무너지면 한국도 무너진다 성조기를 흔드는 것이 영적 방패	미국 숭미(崇美), 반공 신앙	반공주의와 신앙적 내면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신앙 고백처럼 암송 충정가를 찬송처럼 부름 행진을 '영적 행진(exodus)'로 해석 집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경험	집회 의례의 예배화		
나이 들어 사회에서 필요 없다는 감정 집회 참여가 역할, 사명 회복으로 연결 교회에서 능동적 역할을 잃은 후 집회에서 다시 '일꾼'이 된 경험 국가 의례가 '존엄 회복'의 감정적 자원으로 작용	에이지즘이 촉발한 영적, 정치적 자기 강화		
세대차이로 인한 고립감 무시당한다는 감정 역할 상실의 박탈감 사회로부터 보상 단절	노년 소외와 상처	에이지즘 기반 심리적 반응	중재적 조건
집회는 필요한 존재의 확인 신앙적 사명감 회복 노년 세대만 나라 지킨다는 자의식 국가를 지키는 영적 전사 정체성	신앙과 국가 활동에서 보상감		
공산주의를 악령, 사탄으로 봄 반공은 영적 싸움이라고 인식 좌파는 하나님의 대적자 북한은 사탄의 나라로 해석	공산주의는 영적인 악(惡)	반공주의의 영적 재해석	
국가 위기를 종말 징조로 인식 특정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자로 해석 국가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다는 공포 국기(태극기, 성조기)를 종교적 성물처럼 받아들이는 태도 강화	위기담론의 종말론적 해석		
태극기 흔들기는 예배적 제의(祭衣) 성조기 들기는 신앙적 보호막 국기 앞에서 기도 국가 상징 앞에서 회개, 통성기도	상징행위의 예배적 수행	국가 상징 실천의 종교화	
집회 찬송을 예배처럼 부름 정치 연설에 '아멘'	예배와 집회의 혼합 수행		

설교와 정치에 대한 일원화 국기 의례를 예배 순서처럼 이해			작용/상호작용
애국 어르신들끼리 영적 동지 의식 함께 찬송하며 울음, 감격 경험 예배보다 집회가 더 은혜가 됨 외로움이 해소됨	공동체 결속	집회 공동체를 통한 정체성 강화	
주변 노인에게 집회 권유 교회, 지인 단체 참여 조직 집회 참여는 신앙 의무로 선포 집회를 통해 교회 영향력 유지	집회 전도		
자녀와 정치로 갈등 의견 충돌로 감정 상함 자신이 오해받는다고 느낌 가족 내 고립감 심화	가족 갈등	관계 갈등의 심화	
노년 세대의 교회 내 위치 변화 젊은 교인들은 노인 세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인식 노년 교인들이'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라를 모른다'고 판단 세대 간 대화 단절로 교회 내 갈등 확대	교회 내 세대 갈등		
나라 사랑=신앙 실천 정치 선택=영적 선택 국가 상징은 신앙적 확신의 증거 국가 상징=하나님의 질서	국가 위기는 영적위기	국가와 신앙 융합 정체성 고착	결과
좌파는 악이라는 확신 복합적 이슈도 반공 프레임으로 해석 타자 배제 심화 대화와 타협 불가 신념	반공 신념의 절대화 학습구조	반공주의 신앙 고착	
노년의 의견은 무시됨 교회에서 중요한 일에서 빠지라함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음	노년기 상실, 소외 경험	노년기 존재감 강화(에이지즘 반작용)	
예배 언어에 국가, 사회 담론이 결합 설교, 기도 중 정치, 국가 관련 메시지가 신앙적 의미와 연계되어 수용 찬송, 기도, 선포에서 국가 상징과 신앙 의미가 중첩되어 사용됨 신앙 실천이 국가, 안보, 역사적 경험과 연결되어 이해됨	예배의 이념적 변질	신앙의 정치와 예배의 이념화	

개방 코딩을 통해 도출된 상위 범주 18 개는 서로 구분되는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범주는 다음의 세 요소—범주 정의, 대표 인용, 요약—에 따라 서술적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의 서술은 아직 해석이나 평가를 포함하지 않고,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 수준을 분석한 것이다.

〈표 6〉 개방 코딩 범주

1. [전쟁과 분단 경험의 영적 해석] 이 범주는 전쟁, 폭격, 피난의 기억이 신앙적 보호감과 결합하여 생애 초기 신앙 형성의 핵심 의미로 자리 잡는 경험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전쟁의 위협을 자연스럽게 신앙적 언어로 연결하여 말하였다.	
대표 인용	(참여자 C) 어렸을 때는 총소리가 생활이었어요. 밤에 잘 때 '탕' 소리가 나면 다들 벌떡 일어나 도망갈 준비를 했죠.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아무도 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는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참여자 F) 피난 다니면서 겪었던 공포는 말로 다 못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하면, 그 말이 참 크게 들렸어요. 어디론 가 도망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게 자연스러운 위로였어요.
요 약	전쟁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위기 속에서 신앙적 의존을 강화하는 정서적 구조로 반복되었다.
2. [반공주의의 내면화] 이 범주는 반공주의가 반복적 교육과 신앙적 언어 속에서 확신처럼 체득되는 경험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반공 담론을 정치적 선택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말하였다.	
대표 인용	(참여자 I) 학교에서는 매일 반공교육을 했어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들었고요. 공산당은 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반공은 정치가 아니라 믿음처럼 느껴졌죠. (참여자 F) 어릴 때 반공대회에 끌려가듯이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나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게 그냥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커서도 그 생각이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요 약	반공주의는 오랜 기간 반복 노출되며 일상적 확신의 언어로 표현되었다.
3. [미국의 구원자 서사] 이 범주는 미국을 '하나님의 도구' 혹은 '보호자'로 연결해 이해하는 경험을 보여준다.	
대표 인용	(참여자 F) 6·25 때 미국이 도와줬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강조했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살려준 나라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어요.

	(참여자 C) 성조기를 보면 든든해요. 이상하죠?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어릴 때부터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다고 계속 들었으니까, 그게 신앙 이야기처럼 굳어졌어요.
요 약	미국은 신앙적 안전감과 국가적 보호의 상징으로 말해졌다.
4. [근현대사 상처와 집단 기억] 이 범주는 가난과 전쟁, 이산과 노동의 경험이 세대 정체성의 기억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대표 인용	(참여자 H)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을 함께 버텼어요. 배고픈 게 너무 당연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서로 돕고 버티면서 살아온 기억이 지금도 깊이 남아 있어요. (참여자 B) 전쟁 때 가족을 잃은 사람도 많았고, 먹고 사는 게 전쟁이었죠. 이 세대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국을 세웠다는 자부심 같은 겁니다.
요 약	근현대사의 고난 기억은 우리 세대의 경험으로 공유되며 자주 언급되었다.
5. [군사정권과 산업화 경험] 이 범주는 권위와 질서, 순종을 강조하는 사회 경험이 신앙 실천의 언어와 함께 말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대표 인용	(참여자 G) 그때는 윗사람 말이면 무조건 따라야 했어요. 군대처럼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게 당연했죠. (참여자 K)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라면 조금 힘든 것도 당연하다고 배웠죠.
요 약	권위와 질서의 경험은 삶의 규범과 신앙 태도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었다.
6. [노년기의 취약성 증가] 이 범주는 노년기 경제, 사회, 신체적 약화가 정체성과 신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보여준다.	
대표 인용	(참여자 A)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일할 일도 없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참여자 L) 젊었을 때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식들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 괜히 외롭고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요 약	취약성 경험은 의미와 역할을 찾으려는 정서적 욕구를 강화했다.
7. [한국교회의 보수적 신앙환경] 이 범주는 특정 신앙적, 정치적 담론이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환경을 보여준다.	
대표 인용	(참여자 J) 교회에서는 나라 지키는 신앙을 많이 강조했어요. 설교에서도 정치 이야기가 섞여 있었고요. (참여자 I) 어릴 때부터 교회가 항상 '믿음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요 약	교회에서의 반복된 메시지는 신앙과 국가 이야기가 함께 제시되는 방식으로 기억되었다.
8. [기도원과 부흥회 문화] 이 범주는 감정 중심의 신앙 체험이 반복되며 정서적 동일화 구조를 만드는 경험을 보여준다.	

<table>
<tr><td>대표 인용</td><td>(참여자 I)
기도원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울었던 기억이 많아요. 그때 느꼈던 뜨거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참여자 B)
부흥회 때 손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그 감정이 믿음이라고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아요.</td></tr>
<tr><td>요 약</td><td>감정적 체험은 신앙의 핵심 경험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td></tr>
<tr><td colspan="2">9. [노년층 중심의 집회 문화]
이 범주는 집회가 동년배 공간, 연대감의 공간으로 경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td></tr>
<tr><td>대표 인용</td><td>(참여자 F)
집회 가면 또래들이 많아서 마음이 편해요. 젊은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롭죠.
(참여자 D)
태극기 들고 같이 걸으면 하나 된 느낌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이 생겨요.</td></tr>
<tr><td>요 약</td><td>집회 참여는 소속감, 연대감의 감정과 함께 말해졌다.</td></tr>
<tr><td colspan="2">10. [노인 세대의 동질감]
이 범주는 같은 시대적 경험을 공유한 노년 세대가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동질감과 상호 이해의 정서를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동년배끼리만 통하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각을 강하게 표현했다.</td></tr>
<tr><td>대표 인용</td><td>(참여자 A)
우리 또래끼리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전쟁 겪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을 똑같이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같은 얘기를 해도 젊은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는 느낌이 달라요. 서로 눈빛만 봐도 ‘아, 저 사람도 내 삶을 알겠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참여자 B)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절 얘기만 꺼내도 ‘맞다, 맞다’ 하고 금방 이어지죠. 그게 큰 위로가 돼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이랄까.</td></tr>
<tr><td>요 약</td><td>노년 세대의 공통된 시대 경험은 강한 동질감과 상호 이해를 형성하며 정서적 결속의 언어로 반복되었다.</td></tr>
<tr><td colspan="2">11. [유튜브 중심 정보 환경]
이 범주는 노년층이 특정 성향의 미디어 환경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며, 정보와 해석의 폭이 좁아지는 경험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실시간으로 영상 콘텐츠를 접하면서 그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느끼고 있었다.</td></tr>
<tr><td>대표 인용</td><td>(참여자 E)
요즘 뉴스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더 많이 봐요. 거기 보면 나라 돌아가는 걸 자세하게 알려줘요.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안 믿던데, 우리는 거기서 진짜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D)
하루에 몇 시간씩 유튜브를 봐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나라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믿음도 생기고,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진짜 상황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td></tr>
<tr><td>요 약</td><td>특정 미디어 이용 경험은 신뢰와 확신의 언어로 자주 표현되었다.</td></tr>
<tr><td colspan="2">12. [신앙과 국가 활동의 혼합]
이 범주는 국가적 실천과 신앙적 실천이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의미 구조로 연결되는 경험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집회 참여나 국가적 행위를 ‘믿음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었다.</td></tr>
</table>

<table>
<tr><td>대표 인용</td><td>(참여자 I)
나라를 위해 나가는 일은 곧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집회 나가는 것도 그냥 정치가 아니라 믿음 지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빠지면 양심이 찔릴 때도 있어요.
(참여자 J)
기도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어요. 나라가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린다고 믿으니까, 나라를 위해 행동하는 게 당연히 신앙의 일부라고 느껴졌어요.</td></tr>
<tr><td>요 약</td><td>국가적 행동과 신앙 실천이 연결된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났다.</td></tr>
<tr><td colspan="2">13. [에이지즘 기반 심리적 반응]
이 범주는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서의 주변화 경험 이후, 국가적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으려는 심리적 움직임을 보여준다. 노년층은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국가적 사명과 결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td></tr>
<tr><td>대표 인용</td><td>(참여자 D)
나이 들면서 ‘쓸모없다’는 말을 은근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나라 일은 아직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죠.
(참여자 F)
집에서는 조용히 있으라고 하지만, 나라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지막 사명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td></tr>
<tr><td>요 약</td><td>에이지즘 경험 이후 해야 할 일과 사명의 언어가 함께 나타났다.</td></tr>
<tr><td colspan="2">14. [반공주의의 영적 재해석]
이 범주는 반공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영적 전쟁, 신앙적 절대명제로 재해석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공산주의를 ‘믿음의 적’으로 이해했다.</td></tr>
<tr><td>대표 인용</td><td>(참여자 I)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라고 늘 배웠어요. 그래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믿게 된 거죠. 나라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B)
좌파? 그건 그냥 사상이 아니라 악한 영 같은 느낌이에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요.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td></tr>
<tr><td>요 약</td><td>반공주의는 신앙 언어를 통해 재해석되며 강한 정서적 확신 구조로 나타났다.</td></tr>
<tr><td colspan="2">15. [위기 담론의 증폭된 진동]
이 범주는 ‘나라가 무너진다’는 위기 담론이 정서적 불안, 긴장, 사명감을 강화하는 경험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위기 메시지를 들을 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나타냈다.</td></tr>
<tr><td>대표 인용</td><td>(참여자 A)
TV 나 유튜브에서 나라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참여자 H)
자꾸 위기라고 하니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져요. 일이 커지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td></tr>
<tr><td>요 약</td><td>위기 중심의 담론은 불안과 긴장, 행동 필요감의 표현으로 자주 이어졌다.</td></tr>
<tr><td colspan="2">16. [예배와 집회의 혼합 수행]
이 범주는 집회에서 찬송과 기도 그리고 구호와 상징 흔들기 등이 반복되며 예배 행위와 집회 참여가 구분되지 않는 수행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집회가 신앙적 체험과 매우 유사하다고 느꼈다.</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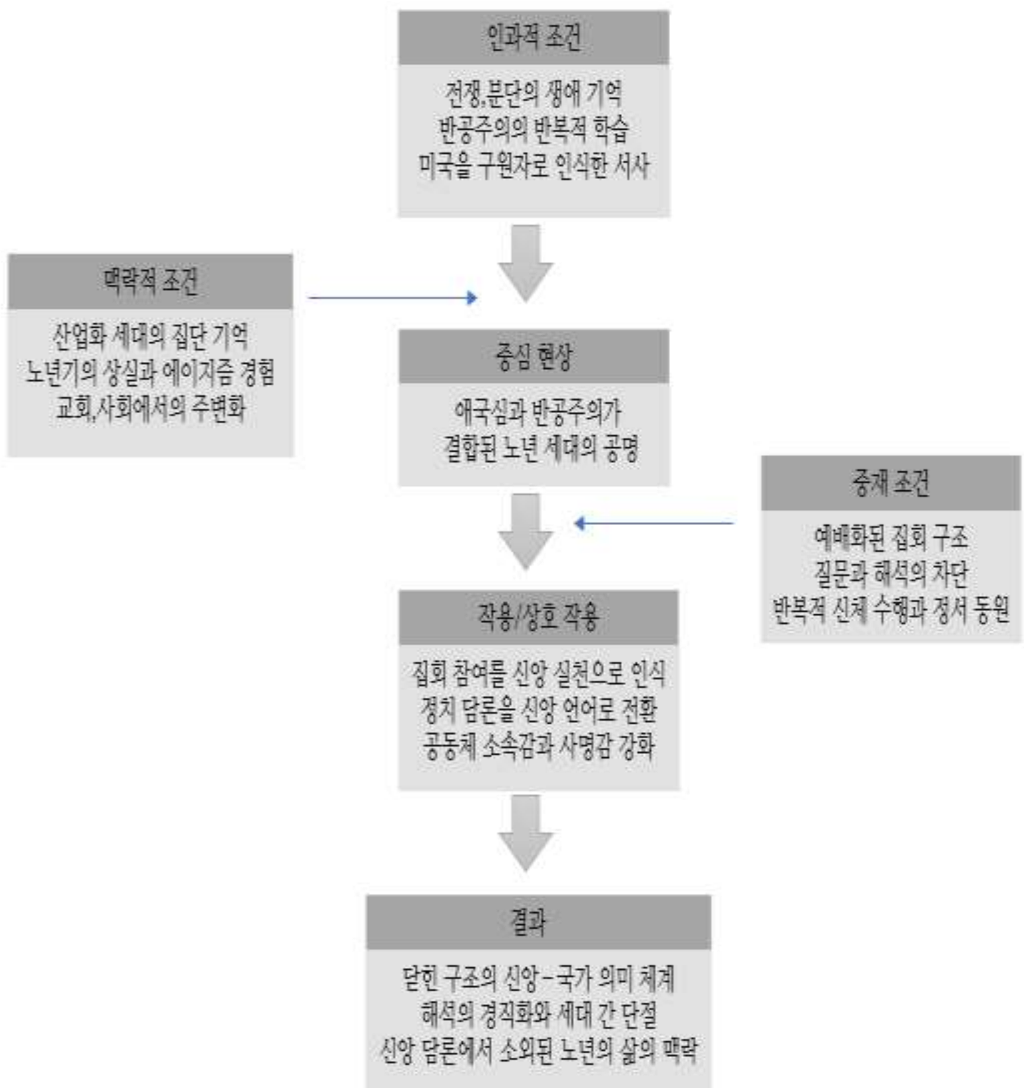
대표 인용	(참여자 J) 집회 가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거의 예배 같아요. 손 들고 태극기 흔들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예배 때 랑 비슷해요. (참여자 J) 집회 현장에서 하나가 되는 느낌이 강해요. 성가대 찬양하듯이 다 같이 부르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예배 분위기예요.
요 약	집회의 찬송, 기도, 구호는 예배 경험과 유사한 표현으로 자주 이야기되었다.
17. [관계 갈등의 심화] 이 범주는 정치와 신앙 해석의 차이가 가족과 친구 관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험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대화를 시도해도 상호 이해가 어렵다고 느꼈다.	
대표 인용	(참여자 D) 가족들하고 정치 이야기하면 서로 말이 안 통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결국 싸움이 나니까 말을 아예 안 하려고 해요. (참여자 E) 친구들 하고도 의견이 다르면 분위기가 금방 험악해져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냐'고 하니까 더 서운하고… 서로 마음만 상하게 되죠.
요 약	해석의 차이는 가족, 친구, 관계의 긴장 경험으로 반복 서술되었다.
18. [국가–신앙 통합 정체성 고착] 이 범주는 국가와 정치 그리고 신앙이 하나의 통합된 의미 체계로 작동하여 다른 해석이 들어가기 어려운 정체성 구조를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국가를 지키는 일을 신앙적 책무로 경험하고 있었다.	
대표 인용	(참여자 F) 나라 지키는 게 곧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가 흔들리면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참여자 H)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분명한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요 약	국가와 신앙 그리고 정치가 연결된 방식으로 자기 이해를 말하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이상 18 개의 상위 범주는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이 신앙, 국가, 역사적 기억을 어떠한 경험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초적인 개념적 틀이다. 나는 개방 코딩에서 도출된 18 개 범주를 축 코딩 패러다임으로 재배치한 뒤, 선택코딩에서 중심현상을 축으로 세 가지 서사적 흐름으로 통합했다.

B. 축 코딩 (Axial Coding)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제시한 패러다임 도식에 따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 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여섯 요소로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68] 다음의 그림은 축 코딩의 결과 분석이다.

〈그림 1〉 축 코딩의 결과



[68]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I*, 379.

〈표 7〉 인과적 조건

[전쟁과 분단의 생애 기억] 전쟁, 피난, 폭격 경험이 어린 시절 신앙 감정과 결합되어 ‘하나님의 보호’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애 초기 기억 구조를 가리킨다.	
대표 인용	(연구 참여자 D) 어릴 때부터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피난 가던 이야기,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계속 들었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요 약	반공주의는 오랜 기간 반복 노출되며 일상적 확신의 언어로 표현되었다.
[반공주의의 반복적 학습 경험] 학교나 교회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제공된 반공 교육이 단순한 정치적 정보가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으로 반복 학습되며 정서적 확신 구조를 형성한 경험을 가리킨다.	
대표 인용	(연구 참여자 F) 학교 다닐 때부터 반공 교육은 늘 있었어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조회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게 잘못된 건지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당연한 줄 알았지요.
요 약	참여자들은 반공 관련 메시지를 다양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배웠으며, 이를 자연스럽고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패턴이 나타났다.
[미국을 구원자로 인식한 국가 서사] 6·25 전쟁 지원 경험과 교육적, 종교적 서사를 통해 미국을 ‘우리나라를 지켜준 나라’ 또는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로 인식하게 된 반복적 내러티브 구조를 말한다.	
대표 인용	(연구 참여자 F) 6·25 때 미국이 도와줬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강조했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살려준 나라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어요. (연구 참여자 C) 성조기를 보면 든든해요. 이상하죠?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어릴 때부터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다고 계속 들었으니까, 그게 신앙 이야기처럼 굳어졌어요.
요 약	참여자들은 미국에 대한 긍정적 서사를 지속적으로 접하며, 미국을 보호와 구원의 이미지로 기억했다. 미국 관련 상징은 신앙적 안정감과 결합하여 반복적으로 떠올려졌다.

〈표 8〉 중심 현상

[애국심과 반공주의가 결합된 노년 세대의 공명] 국가 상징(태극기, 성조기), 찬송, 기도, 집회 참여가 신앙 실천의 언어와 동일한 구조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험을 가리킨다.	
대표 인용	(연구 참여자 D) 어릴 때부터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피난 가던 이야기,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계속 들었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요 약	반공주의는 오랜 기간 반복 노출되며 일상적 확신의 언어로 표현되었다.

〈표 9〉 맥락적 조건

[질문과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신앙 학습 경험] 신앙 형성 과정에서 질문보다 순종과 암송이 강조되며, 새로운 해석이나 비판적 이해가 자연스럽게 제한되는 학습 환경을 의미한다.	
대표 인용	(연구 참여자 D)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는 대로 믿는 게 신앙이라고 배웠어요. 질문을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냥 듣고 외우는 게 익숙해졌지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요 약	참여자들은 신앙을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하며, 다른 해석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는 학습 방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상실 경험과 사회적 주변화] 은퇴, 역할 축소, 사회적 배제감 등 노년기에 경험하는 상실이 정체성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표 인용	(연구 참여자 E) 나이가 들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예전만큼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요. 집회에 나가면 그래도 내가 아직 역할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연구 참여자 A) 은퇴하고 나니까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이 컸어요. 집회나 기도회에 가면 나 같은 사람들도 아직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요 약	참여자들은 노년기에 역할 축소와 상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이를 채울 수 있는 의미와 역할을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적 교회 공간에서 반복되는 단일한 해석 구조] 교회와 집회에서 동일한 해석과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다른 관점이나 해석의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표 인용	(연구 참여자 C) 교회에서나 집회에서나 비슷한 말을 계속 들어요. 나라가 위태롭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요. 그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신앙의 핵심처럼 느껴졌어요. (연구 참여자 F) 태극기나 성조기를 드는 의미를 다르게 설명해 주는 자리는 거의 없었어요. 늘 같은 해석이 반복됐고, 다른 생각을 나눌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 약	참여자들은 신앙을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하며, 다른 해석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는 학습 방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표 10〉 중재적 조건

[예배화된 집회 구조] 집회가 설교나 기도, 구호 등 예배와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정치적 공간이 신앙 실천의 확장처럼 수용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대표 인용	(연구 참여자 B) 집회에 나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걸 정치 집회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던 방식이랑 똑같으니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 신앙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예배라고 느껴졌어요.

	(연구 참여자 D)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회에서도 누가 앞에 서서 말하고, 우리는 듣고 "아멘"하고 따라 하잖아요. 형식이 익숙하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교회 예배랑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요 약	집회의 예배적 형식은 참여자들에게 친숙하게 받아들여졌고, 정치적 공간과 신앙적 공간의 구분이 자연스럽게 축소되었다.
[질문과 해석이 차단된 학습 환경] 비판적 사고나 대안적 해석이 제약되고, 기존 해석을 반복적으로 수용하는 학습 환경이다.	
대표 인용	(연구 참여자 A) 신앙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믿음이 약하면 질문이 많아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회에서도 그냥 듣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연구 참여자 C) 공산주의는 나쁘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굳이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다들 그렇게 말했고,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요 약	참여자들은 해석을 의심하기보다 기존 설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을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반복적 신체 수행과 정서 동원] 국가 상징 흔들기, 찬송, 반복적 구호 등 몸의 움직임을 통해 정서가 활성화되고 신앙적 감정과 연결되는 수행 구조를 말한다.	
대표 인용	(연구 참여자 E) 태극기를 들고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유를 따지기 전에 그냥 마음이 움직여요. 몸으로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 참여자 B) 계속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집회에 몇 번 나가다 보면 더 확신이 생기고, 이게 맞다는 마음이 커져요.
요 약	반복적 몸짓과 감정 동원의 경험은 참여자들의 확신과 일체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표 11〉 작용/상호 작용

[집회 참여를 신앙 실천으로 인식] 참여자들이 집회 참여를 정치가 아닌 신앙적 의무, 기도 행위로 인식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대표 인용	(연구 참여자 A) 저는 집회에 나가는 걸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찬송을 부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라고 느꼈지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연구 참여자 D) 나라가 위기라고 느껴질 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믿음 없는 행동 같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요 약	참여자들은 집회 참여를 신앙적 책임으로 이해하며 행동을 설명했다.
[정치 담론을 신앙 언어로 전환] 정치 메시지나 사회 이슈가 신앙 언어(영적 전쟁, 선악 구도 등)로 재해석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대표 인용	(연구 참여자 B) 집회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치 이야기이긴 한데, 설교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거나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로 들으면 정치라기보다는 신앙적인 호소처럼 느껴져요. (연구 참여자 C) 어떤 정책이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설명되니까 믿음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도 기도하면서 하게 되지요.

<table>
<tr><td>요 약</td><td>정치 담론은 신앙적 기준과 언어로 자연스럽게 수용되며, 두 영역의 구분이 약화되었다.</td></tr>
<tr><td colspan="2">[공동체 소속감 강화]
집회에서 또래와 함께 찬송과 기도 그리고 행진을 하며 연대감과 사명감을 느끼는 경험을 의미한다.</td></tr>
<tr><td>대표 인용</td><td>(연구 참여자 F) 집회에 가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같은 사명을 가진 공동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 참여자 E)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마음껏 못 할 때도 있는데, 집회에서는 다들 같은 마음이니까 위로가 돼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자부심도 생기고요.</td></tr>
<tr><td>요 약</td><td>집회는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경험되었다.</td></tr>
</table>

〈표 12〉 결과

<table>
<tr><td colspan="2">[해석이 닫힌 신앙 학습 구조의 지속]
기존 신앙과 국가 해석 구조가 변화 없이 반복되며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 제한되는 결과를 의미한다.</td></tr>
<tr><td>대표 인용</td><td>(연구 참여자 C) 어릴 때부터 배워 온 신앙이 있어요.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워 왔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요.
(연구 참여자 E) 신앙은 한 번 제대로 배우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질문이 많아지면 오히려 믿음이 약해진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해석보다는 익숙한 설명이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td></tr>
<tr><td>요 약</td><td>참여자들은 기존 신앙과 국가 해석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해석 구조의 변화는 드물었다.</td></tr>
<tr><td colspan="2">[국가 상징과 신앙이 결합된 단일한 정체성의 고착]
국가 상징과 신앙이 하나의 의미 구조로 통합되어, 다른 해석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td></tr>
<tr><td>대표 인용</td><td>(연구 참여자 A)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 때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신앙적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곧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 참여자 D) 나라를 지키는 게 신앙인의 책임이라고 배워 왔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표현처럼 느껴졌고, 다른 해석을 들으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td></tr>
<tr><td>요 약</td><td>참여자들은 국가와 신앙을 동일한 정서 구조로 경험하며, 두 영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정체성을 형성했다.</td></tr>
<tr><td colspan="2">[세대 간 해석의 단절과 갈등의 심화]
젊은 세대와의 신앙과 사회 해석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관계적 긴장이 증가하는 결과를 의미한다.</td></tr>
<tr><td>대표 인용</td><td>(연구 참여자 F) 젊은 세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배워 왔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서로 설명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td></tr>
<tr><td>요 약</td><td>세대 간 가치관과 해석의 차이가 대화 단절과 갈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냈다.</td></tr>
</table>

C. 선택 코딩 (Selective Coding)

나는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을 거친 뒤, 근거이론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수행하였다. 이 단계는 여러 범주를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묶어 주는 통합 과정으로, 전체 분석을 관통하는 핵심 범주(core category)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69] 연구 초기에 나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한 가지 난제에 부딪혔다. 범주를 계속 비교하고 정리해 보아도, 개별 개념은 풍부하게 드러났으나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중심 구조로 통합되는지 설명할 언어가 부족했다. 마치 여러 감정과 기억이 선명하게 존재하지만, 그것이 어떤 지점에서 신앙적 의미를 '폭발적으로 생성'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난제 앞에서 나는 단순 현상 묘사만으로는 연구 목적에 도달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자료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면의 '의미'와 '해석'을 도출해야 한다는 학문적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나는 왜 특정 순간에 신앙적 의미가 급격히 강화되고 압축적으로 형성되는지 설명할 '구조적 해석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필요 속에서 나는 물리학의 공명(resonance)현상에 주목하였다. 공명이란 하나의 파장이 자신과 맞닿는 다른 파장을 만날 때 진동이 극대화되는 현상이다.[70] 나는 공명 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헬름홀츠[71] 공명 원리를 기반으로 한 야누스 – 헬름홀츠(JH) 센서의 공학적 설계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 연구는 내부 구조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특정 주파수에서 압력 진폭이 급격히 증가하는 공명 효과를

---

[69]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I*, 384.

[7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명," https://stdict.korean.go.kr.

[71] Hermann von Helmholtz(1821 – 1894)는 '헬름홀츠 공명기'를 통해 공기의 공명 원리를 규명한 과학자로, 현대 음향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Hermann_von_Helmholtz.

확인하였으며, 이는 센서의 민감도와 반응성을 결정하는 핵심 원리로 제시되었다.[72]

〈그림 2〉 야누스 – 헬름홀츠(JH) 공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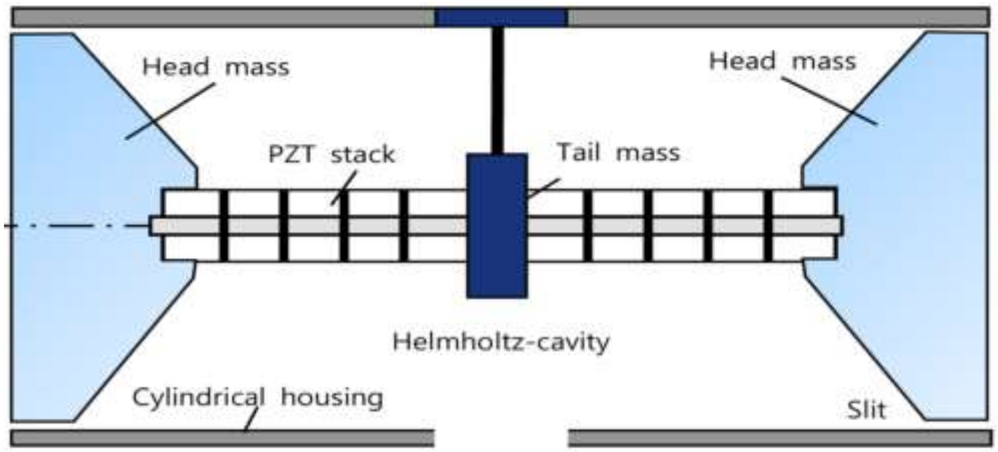


그림 1 은 JH 센서가 공명 원리를 이용해 외부 압력을 증폭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Head mass 가 외부 자극을 받아 Helmholtz-cavity 로 전달하면, PZT stack 과 Tail mass 는 이를 진동 신호로 변환한다. 좁은 Slit 과 결합된 Helmholtz-cavity 에서는 특정 주파수에서 공명이 일어나 압력 진폭이 크게 강화되며, 이는 센서의 높은 민감도를 구현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73]

D. 핵심 범주와 공명 구조의 이론적 모형 (Core Category and the Theoretical Model of Resonance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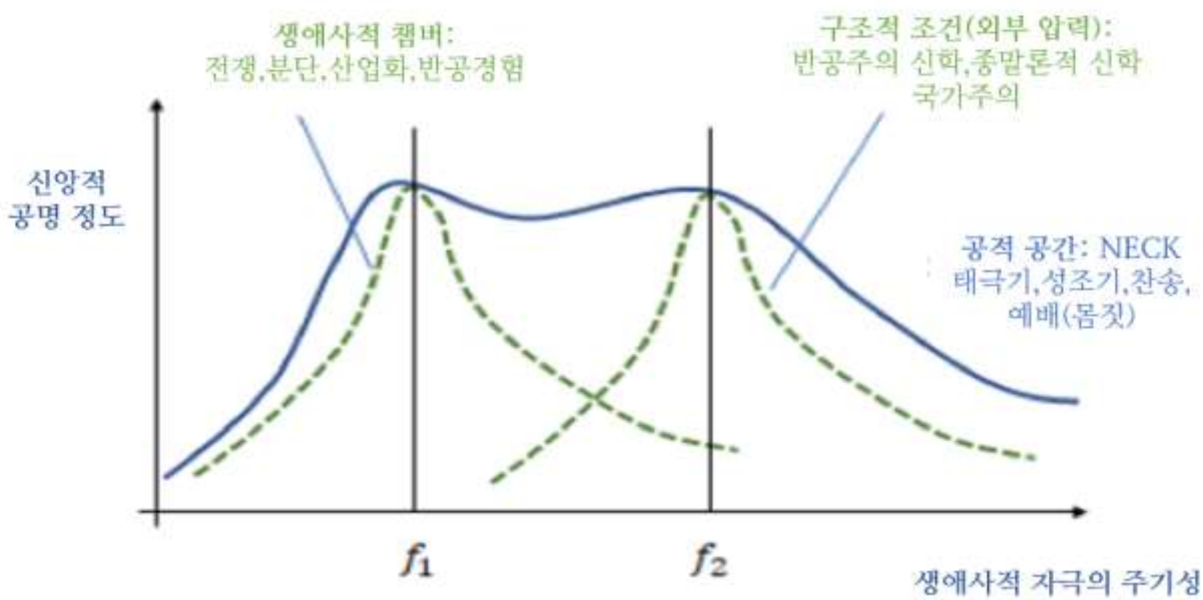
나는 이러한 공명적 구조(resonance structure)를 선택 코딩 단계에 적용함으로써, 개방 코딩과 축 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서로 결합하며 특정한 의미를

[72] 안진효 and 이종길, “Engineering Design of a Janus-Helmholtz Sensor Using Compliant Tubes 컴플라이언트 튜브를 적용한 야누스 헬름홀츠 센서의 공학적 설계,”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7, no. 2 (2025): 181-82. 안진효와 이종길은 헬름홀츠 공명 원리를 기반으로 한 야누스-헬름홀츠(JH) 센서의 구조를 분석했다.

[73] 안진효 and 이종길, 182-83.

생성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들은 노년 세대의 신앙적 의미 생성 공명 구조를 설명한다. 노년 세대의 신앙은 이미 고정된 신념이라기보다, 예배와 의례라는 공적 공간의 구조 안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변화의 가능성이 개인이 아닌 구조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본 연구 서두에서 제시한 야누스–헬름홀츠 공명이론과 다시 맞닿는다. 다음 그림은 야누스–헬름홀츠 공명이론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도식이다.

〈그림 3〉 공명 구조의 재구성[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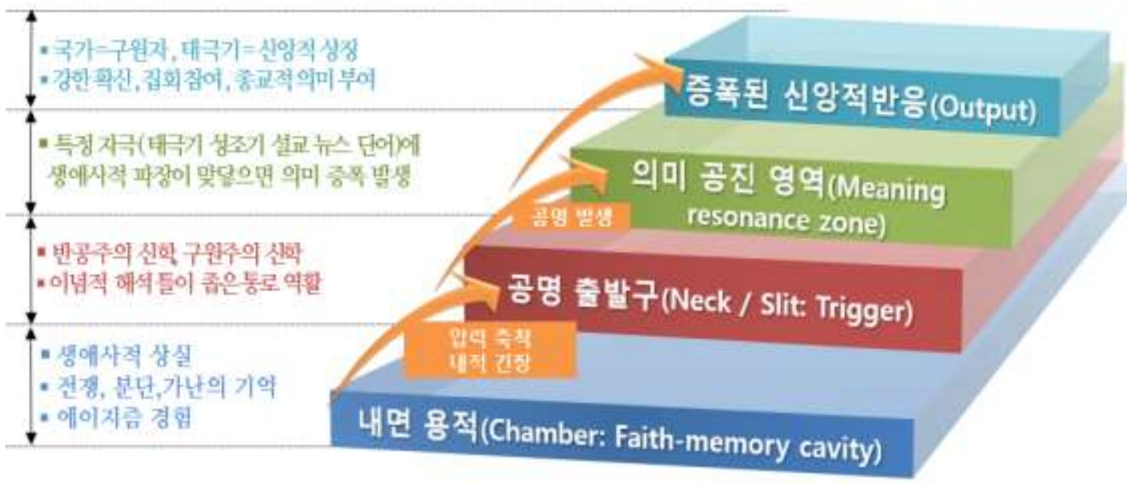
중요한 점은, 이 두 공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때보다, 특정 지점에서 중첩될 때(공적 공간, NECK,[75]) 훨씬 더 큰 진동 응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관찰한 태극기와 성조기 흔들기, 공적 공간에서의 찬송, 예배적 몸짓은 바로 이 중첩 공명 구간, 즉 공명이 급격히 증폭되는 NECK

74 안진효 and 이종길, "Engineering Design of a Janus–Helmholtz Sensor Using Compliant Tubes 컴플라이언트 튜브를 적용한 야누스 헬름홀츠 센서의 공학적 설계," 181–82.

75 안진효와 이종길은 이 중첩 구간을 superimposed response 로 설명한다. 본 연구는 이 지점을 개인의 신앙 서사와 집단적 신앙 실천이 중첩되어 공명이 증폭되는 공적 공간(public space)으로 재해석했다.

지점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한다.

〈그림 4〉 노년 세대의 신앙적 의미 생성 공명 구조[76]



다음과 같이 개방 코딩과 축 코딩에서 생성된 모든 범주를 통합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분석되었다. 노년 세대의 신앙 경험이 단순히 개별 사건이나 감정적 반응의 집합이 아니라, 특정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의미 형성의 흐름을 보여준다. 전쟁과 분단의 기억과 반공주의 학습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내적 압력을 형성하고, 교회와 집회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동일한 메시지와 예배화된 실천은 이러한 압력을 특정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통로로 작동하였다. 여기에 상실 경험과 세대적 주변화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기보다 기존의 익숙한 설명을 더욱 선호하도록 만드는 정서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이 서로 결합하면서, 참여자들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단일한 방향으로 수렴하게 되었고, 외부의 대안적 관점이 진입하기

[76] 안진효 and 이종길, "Engineering Design of a Janus-Helmholtz Sensor Using Compliant Tubes 컴플라이언트 튜브를 적용한 야누스 헬름홀츠 센서의 공학적 설계," 181-82. 나는 야누스-헬름홀츠 공명 구조에 대한 공학적 설계 개념을 참조하여, 노년 세대 크리스천의 신앙 경험과 국가 상징 내면화 과정을 해석하기 위해 본 도표를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했다.

어려운 의미 구조가 형성되었다. 요약하자면, 축 코딩 단계에서 드러난 인과적 조건(전쟁과 분단의 기억), 맥락적 조건(교회 내 주변화 경험), 작용 전략(국가 상징을 통한 신앙 정체성 재확인), 그리고 결과(세대 갈등의 신앙적 재구성)는 중심 범주인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로 통합되었다. 아래 그림은 중심 범주인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의 생성 과정 구조화 패러다임이다.

〈그림 5〉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 구조화 패러다임



본 장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는 단순히 노년 세대의 정치적 성향이나 문화적 보수성을 설명하는 기술적 모델이 아니라, 신앙과 기억 그리고 국가 상징이 특정 조건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증폭시키는가를 설명하는 새로운 신학적, 사회심리적 모델로 제시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명(resonance) 이론과 NECK(좁은 통로) 구조는 기존 연구들이 다루지 못했던 '신앙적 의미가 특정 상징과 결합될 때 왜 갑작스럽게 증폭되는가'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독창적 분석 틀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반공주의, 시민종교, 세대 경험, 예배 문화 등 여러 개별 요인을

제시해 왔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구조적 조건 아래에서 하나의 '닫힌 의미 체계'로 조직되고 유지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가 제시한 공명 기반 의미 형성 모델은 이 세 요소가 NECK 지점에서 중첩될 때 급격한 의미 증폭과 정체성 강화가 발생한다는 구조적 메커니즘이다. 아래 그림은 공명 작동 방식을 설명한다.

〈그림 6〉 공명 작동 방식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의 국가 상징 내면화가 개인의 정치 성향이나 보수적 성향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 공명(resonance)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세 요소는 NECK(좁은 통로)에서 중첩되며, 신앙과 기억 그리고 국가 의미가 하나의 구조로 통합되는 강한 공명을 발생시킨다. 이 공명 구조는 노년 세대의 국가 상징 수행을 신앙적 실천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해석 틀이다. 이 모델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노년 세대의 공적 실천이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신앙 형성 과정의 산물이며, 구조적 공명에 의해 강화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담론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노년 기독교인의 신앙 형성과 국가 상징

내면화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지도(map)와 분석 도구(toolkit)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학문적 기여를 갖는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도출된 중심 범주와 의미 구조를 토대로, 시민종교, 반공주의, 에이지즘, 그리고 예배와 신앙 학습 구조에 관한 기존 신학적, 이론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노년 세대의 실제 신앙 경험을 보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실천신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Chapter IV

신학적 해석과 실천적 제안 (Theological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Proposals)

3 장은 근거이론 분석을 통해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의 국가 상징 내면화 경험 속에서 드러난 핵심 범주와 의미 형성 구조를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노년 세대의 종교적 실천이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환원될 수 없는 현상이며, 질문과 해석이 제한된 신앙 학습 구조 속에서 형성된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세대 갈등을 신앙 형성의 구조적 문제로 재이해할 수 있는 해석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3 장이 자료 분석을 통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남는 과제는 이러한 경험적 발견이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찰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4 장의 목적은 3 장에서 도출된 중심 범주와 의미 구조를 신학적, 이론적 지평 속에서 해석하고, 이를 시민종교, 반공주의, 에이지즘, 그리고 예배와 신앙 학습 구조에 관한 기존 논의들과 비판적으로 대화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이론들이 노년 세대의 실제 삶의 맥락과 신앙 내면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온 한계를 드러내고, 노년 신앙을 교정하거나 규범적으로 판단하려는 접근을 넘어 신앙이 형성되고 해석되는 학습 구조 자체의 재구성이 요청된다는 실천신학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신학적 성찰은 다음 장에서 전개될 목회적 실천과 공동체적 전환 논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A. 신학적 해석 (Theological Interpretation)

1. 닫힌 구조의 신앙–국가 의미 체계 (A Closed Faith–Nation Meaning System)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신념의 선택 결과로 규정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형성되어 온 닫힌 구조의 신앙–국가 의미 체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내면화된 결과라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고전적 의미의 이론 생성을 목표로 하는 근거이론이 아니라, 특정 맥락 안에서 형성되는 의미 생성 과정과 그 구조를 드러내기 위한 실천신학적 근거이론(substantive grounded theory)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노년 세대의 신앙은 고정된 교리 체계로 규정하기보다는 반복되는 실천과 해석의 패턴 속에서 형성된 과정적 산물로 해석한다. 현장관찰과 참여를 통해 확인된 태극기와 성조기 흔들기, 공적 공간에서의 찬송과 예배적 몸짓은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나 개인적 열정의 발현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신앙과 국가 상징이 분리되지 않은 채 결합되어 작동하는 의미 체계가 공적 공간 안에서 예배적 방식으로 재현되는 장면이었다.

이러한 의미 체계는 질문과 해석의 다양성이 허용되기보다, 이미 주어진 해석에 응답하도록 구조화된 학습의 장 속에서 반복적으로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신앙과 국가 기억은 상호 비판 없이 서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공명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야누스–헬름홀츠 공명이론의 신학적 재구성에 따르면, 노년 세대의 생애사적 경험이 형성한 기억의 챔버 위에 특정한 신학적 해석 구조가 결합될 때, 공적 공간이라는 중첩 지점(NECK)에서 공명은 급격히 증폭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급격한 공명이 모든 노년 세대에게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노년이라는 생애 단계 자체가 공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국가 의미가 어떤 해석 구조 속에서 결합되어 왔는지가 공명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한다. 이 맥락에서 볼 때, 노년 세대의 신앙과 국가 상징의 결합은 교정이나 설득의 대상으로 접근될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과 신학적 해석 구조가 만나 형성된 의미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는 여기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는 매우 강력한 이론적 성취이지만, 개념의 구성 요소와 작동 방식이 더

명확히 정교화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무엇을 차단하며,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이 보완된다면, 본 논문의 이론적 기여는 한층 더 선명해질 것이라 확신했다.[77]

1.1. 형성 과정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이 결합되면서 서서히 구조화된다. 축 코딩 단계에서 드러난 인과적 조건(전쟁과 분단의 기억), 맥락적 조건(교회 내 주변화 경험), 작용 전략(국가 상징을 통한 신앙 정체성 재확인), 그리고 결과(세대 갈등의 신앙적 재구성)는 중심 범주인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로 통합되었다.

1.2. 차단 구조

닫힌 의미 체계는 형성되는 동시에 다음의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다음은 차단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3〉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 차단 요소

차단 요소	내용	결과
대안 해석의 진입 차단	‘왜?’라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신앙 설교와 집회에서 반복되는 동일 메시지 다른 정치나 신학적 관점과의 접촉 부재	이는 외부의 해석이 cavity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차단막이 된다.
비판적 성찰의 차단	순종 중심 문화 권위 불가침 구조 해석의 재구성이 ‘믿음 약함’으로 낙인	이는 이미 배운 의미들이 다시 해석되는 것을 봉쇄한다.

[77] 본 단락에서 제기된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의 구성 요소와 작동 방식의 정교화 필요성은 김용환 주심교수의 자문 과정에서 제기된 중요한 학문적 지적에 기반한다. 조언에 따라 본 연구는 해당 개념의 구조적 형성과 유지 방식, 그리고 차단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 틀을 추가로 보완하였다.

세대 간 대화의 차단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관점 충돌', '설명 불가능성'이 나타남 동일한 신앙언어를 사용해도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됨 노년 세대는 자신의 경험세계(전쟁, 반공, 구원서사)가 공유되지 않는다고 느낌	닫힌 구조 안에서 형성된 의미는 젊은 세대의 관점과 공유할 수도 없고, 조정이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든다.

따라서 '닫힌 구조'는 단순히 해석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대안 해석의 진입과 내부 성찰 자체가 구조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다.

1.3. 유지 메커니즘

닫힌 의미 체계는 한 번 형성되면 계속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순환(Loop) 구조를 갖는다. 다음의 그림은 그 근거를 설명한다.

〈그림 7〉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의 순환(Loop)구조



요약하자면, '닫힌 신앙 – 국가 의미 체계'는 (1) 생애사적 경험과 단일한 신앙 교육이 구조를 형성하고, (2) 대안 해석과 비판적 성찰을 차단하며, (3) 반복적 자극과 감정적 공명을 통해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순환적 구조이다. 이 구조가 바로 노년 세대가 국가 상징을 신앙의 핵심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신학적, 정체성적 배후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며, 선택 코딩의 핵심 이론적 기여이다. 이상의 근거이론 분석을 통해,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의 국가 상징 내면화 경험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나 이념적 태도로 환원될 수 없는 신앙 형성의 구조적 과정임이 드러났다.

특히 노년 세대의 종교적 실천은 질문과 해석이 제한된 신앙 학습 구조 속에서 형성된 '닫힌 신앙 – 국가 의미 체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태극기 집회와 같은 공적 공간은 정치 행동의 장을 넘어 찬송과 기도, 상징 수행이 반복되는 예배화된 신앙 학습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 안에서 노년 세대는 상실과 주변화의 삶의 맥락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 의미와 신앙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국가 상징은 신앙 확신과 정체성 통합을 매개하는 중요한 종교적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해석 결과는 노년 세대의 신앙을 교정하거나 규범적으로 판단하려는 접근이 충분한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본 연구는 신앙이 형성되고 내면화되는 학습 구조 자체에 대한 실천신학적 성찰과 재구성이 요청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동안 전쟁과 분단을 경험한 노년 세대의 국가 인식은 다양한 연구에서 조명되어 왔다. 전순영과 김완기는 *트라우마와 집합기억: 태극기집회 참여자의 경험 분석*에서 전쟁 기억과 상실의 정서가 반복적으로 호출되며 태극기 집회 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참여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라기보다 생애사적 경험과 기억 수행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78]

[78] 전순영 and 김완기, *트라우마와 집합기억: 태극기집회 참여자의 경험 분석* (서울: 한국사회연구원, 2020), 67.

김현진은 *One Identity, Two Flags* 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반공주의,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신앙 정체성과 정치 정체성이 중첩되는 현상을 드러낸다고 했다.[79] 또한 박선교는 *Dietrich Bonhoeffer's Discourse and Far-Right Political Rallies in South Korea* 에서 반공주의가 신학적 언어로 정당화되어 종말론적 선악 대립 구도로 강화되어 왔음을 지적한다.[80] 이러한 연구들은 노년 세대의 공적 실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실제로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반공주의와 애국심이 결합된 노년 참여자들의 강한 공명을 나는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관련 장면은 부록에 사진 자료로 제시하였다.[81] 그러나 이러한 해석만으로는 노년 세대의 공적 신앙 실천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반공주의나 애국심은 분명 중요한 해석의 단서이지만, 그것이 노년 참여자들의 행동을 움직이는 궁극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들은 국가주의, 반공주의, 시민종교의 담론적 요소를 밝혀내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담론이 노년 세대의 삶의 조건(상실, 주변화)과 교회에서 학습된 신앙 실천(예배, 권위, 응답 구조)과 결합하면서 현장에서 하나의 '닫힌 의미 구조'로 고착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노년 세대의 공적 신앙 실천은 단순히 특정 이데올로기나 담론의 반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개인의 생애 경험과 신앙 형성 과정 속에서 내면화된 의미 구조가 외적으로 표출된 결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담론적

---

[79] Amílcar A, Barreto and HyungJin Kim. "One Identity, Two Flags: Christian Nationalists, the Israeli Flag and National Authenticity," *Ethnicities* 23, no. 1 (2021): 110–27.

[80] Seon Kyo Park, "Dietrich Bonhoeffer's Discourse and Far-Right Political Rallie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Christianity* 8 (March 2025):70-75.

[81] 반공주의와 애국심에 관련된 현장 사진은 관찰 일지와 부록에 게재했다. 특히 관찰 일지 #3, #8, #12, #13 를 참고하길 바란다.

접근을 넘어, 시민종교, 정치신학, 공공신학의 논의와의 접점을 통해 보다 통합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노년 세대의 국가 상징 내면화 현상은 시민종교(civil religion), 정치신학(political theology),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의 논의와 중요한 접점을 형성한다. 먼저, 시민종교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현상은 국가와 종교적 상징이 결합하여 공적 정체성과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는 시민종교를 통해 국가가 종교적 언어와 상징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도덕적 질서와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8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년 세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신앙의 언어로 수용하는 현상은 단순한 개인적 신앙 표현을 넘어 사회적 의미 체계 속에서 형성된 신앙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시민종교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생애 경험과 신앙 형성 과정 속에서 의미가 어떻게 내면화되고 강화되는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를 확장한다.

다음으로, 정치신학의 관점에서 이 현상은 신앙과 권력, 그리고 역사적 기억의 관계를 성찰하게 한다. 요한 밥티스트 메츠(Johann Baptist Metz)는 정치신학을 통해 신앙이 역사적 고통과 사회적 기억 속에서 형성되며, 공적 책임과 긴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83]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 세대가 경험한 전쟁, 분단, 산업화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신앙적 의미 형성의 중요한 토대로 작용한다. 국가 상징은 이러한 기억과 결합하면서 신앙의 언어로 재구성되며, 이는 신앙이 역사적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공적 의미로 전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

[82] 전명수, "좋은 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종교 기반 시민단체의 의의: 로버트 벨라의 재성찰, 종교연구," *한국종교학회* 75, no. 4 (2015): 145-50.

[83] 이성림, "코즈모폴리탄 윤리를 위한 회상적 합리성, 연대, 그리고 공동체: 메츠의 정치-신학적 담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0, no.7 (2005): 247-50.

마지막으로,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교회가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질문을 제기한다. 맥스 L. 스택하우스(Max L.Stackhous)는 공공신학을 교회가 사회적 현실 속에서 책임 있게 참여하며 공적 담론을 형성하는 신학적 작업으로 이해하였다.[84]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교회가 세대 간 갈등과 신앙의 공적 표현을 단순히 교정하거나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해석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해석의 공간은 신앙을 하나의 정답으로 수렴시키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실천신학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국 본 연구는 시민종교, 정치신학, 공공신학이라는 세 가지 신학적 틀과의 대화를 통해,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을 단순한 이념적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 사회적 구조, 그리고 신앙 형성 과정이 교차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적 지평을 확장한다. 다시 말해, 기존 논의는 '무엇이 결합되었는가'는 보여주지만, '어떻게 결합이 반복 학습되어 유지되는가'라는 학습 구조의 과정을 해명하는 데에는 공백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신앙을 고정된 교리나 이념이 아니라, 삶의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학습되는 실천적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실천신학적 해석학의 관점과 맞닿아 있다.[85]

2. 예배화된 공적 공간과 신앙 학습 구조 (Worship-Like Public Space and the Structure of Faith Formation)

2.1. 예배화된 집회 구조

본 연구를 통해 관찰된 한국 노년 크리스천들의 집회 참여 방식은, 단순한 정치 집회라기보다

[84] 김승환, "맥스 L.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89, no. 5 (2024): 980–95.

[85] Richard R.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trans. 김현애 and 김정형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2), 170–78.

특정한 신앙 학습 공간이자 실천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설교, 찬양, 기도, 구호 제창은 전통적인 교회 강단 중심의 신앙 전달 방식과 유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이를 비교적 익숙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집회현장의 진행은 대체로 단상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설교자 혹은 사회자의 발언이 중심이 되어 참가자들은 이에 '아멘', 구호, 찬송으로 응답하는 형태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노년 세대가 오랜 시간 교회 예배와 집회 문화 속에서 학습해 온 일방향적 신앙 전달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관찰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이나 상호 질문, 비판적 논의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장면은 드물었다. 대신, 설교자의 메시지를 받아 적거나, 찬송가 가사를 따라 부르고, 국기를 흔들며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86] 이는 신앙을 개념적으로 해석하거나 토론하기보다 몸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체득하는 방식의 신앙 학습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집회 구조는 노년 세대가 이미 익숙한 교회 예배 형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이 축소된 노년층에게 이 집회 공간은 '다시 배움과 실천이 가능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듯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집회를 가리켜 "이곳이 내 교회" 혹은 "여기가 예배 자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87] 그러나

[86] 이러한 일방향적 신앙 전달 구조는 부록에 수록된 관찰 일지 #12 – 14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13 회 관찰에서 노년 세대가 학습해 온 예배 방식과 집회 참여 방식의 연속성이 분명히 드러났다.

[87] 본 연구의 현장 관찰일지는 부록 A 에 제시되어 있다. 관찰일지 #1, #2, #4 에 따르면 집회는 단상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설교자 또는 사회자의 발언에 참가자들이 구호, 찬송, '아멘'으로 응답하는 일방향적 구조를 반복적으로 보였다. 이러한 진행 방식은 노년 세대가 교회 예배를 통해 이미 학습해 온 신앙 전달 형식과 유사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관찰일지 #4, #6, #7 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 공간을 '내 교회', '예배 자리'로 명명하는 발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심층면접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집회가 예배의 형식을 차용할 때, 그 공간에서 전달되는 정치적 메시지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으로 인식되기보다 신앙적 권위를 지닌 언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배의 형식은 메시지에 권위를 부여하는 강력한 학습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공간에서는 신앙 언어와 정치 언어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며, 특정 메시지가 비판적 해석의 과정을 거치기보다 공동체적 확신의 형태로 반복 학습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메시지를 검토하거나 질문하기보다는 신앙적 충성의 표현으로 수용하게 되며, 그 결과 신앙 학습 구조는 점차 닫힌 형태로 굳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예배화는 단순한 종교적 표현의 확대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가 신앙적 권위와 결합하여 절대적 확신의 형태로 내면화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비판하거나 배제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왜 이러한 예배적 형식이 노년 세대에게 강력한 의미를 형성하는지 이해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질문과 해석이 가능해지는 학습 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태극기 집회와 같은 공적 실천은 주로 정치 참여나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황선영은 *정치 시위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에서, 정체성의 위기가 태극기 집회 참여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정체성 비상사태'와 '위협적 비상사태'라는 틀을 사용하여 시위 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였다.[88] 이러한 접근은 집회 참여 동기와 정체성의 위기를 설명하는 데 일정한 유용성을 갖지만, 집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찬송, 기도, 국기 흔들기, 구호 제창과 같은 행위가 왜 참여자들에게 '정치 행위'라기보다 '신앙 실천'으로 경험되는지, 그리고

[88] 황선영, "정치 시위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M.A. thesis,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41–52.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학습되며 재생산되는지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

2.2. 신앙 학습 방식

이 지점에서 아스머의 실천신학적 해석학은 중요한 준거를 제공한다. 아스머가 말하는 해석적 과제(interpretive task)는 특정 신앙 실천을 즉각적으로 평가하거나 교정하기에 앞서, 그것이 형성된 삶의 조건과 사회적, 상징적 구조를 이해하려는 작업이다.[89] 이러한 아스머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의 위기는 인간의 물음이 과도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음이 너무 빨리 정리되고 봉합될 때 발생한다.[90]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신앙은 응답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고착되며, 삶의 긴장과 모순을 해석하기보다 기존 질서를 신성화하는 언어로 전락할 위험을 지닌다. 따라서 아스머에게 신학의 과제는 삶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물음과 하나님의 의미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석의 장을 여는 데 있다.[91]

이러한 논의는 신앙을 교회 내부의 제도적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공적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태극기 집회 공간은 정치적 시위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찬송과 기도, 상징 수행이 반복되는 확장된 예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노년 세대는 이 공간에서 이미 학습된 신앙 언어와 몸의 습관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신앙과 국가 의미를 동시에 체화하고 있었다.[92] 이는 공적 신앙 실천이 정치적 행위의 부산물이 아니라, 교회가 형성해 온

[89] Richard R.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trans. 김현애 and 김정형, 165–70. 아스머에게 신학의 과제는 삶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물음과 하나님의 의미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석의 장을 여는 데 있다.

[90] Osmer, 161–78.

[91] Osmer, 189. 아스머가 말하는 대화적(dialogical) 논증이란, 변론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추론함으로써 진리에 더 근접하는 것이다. 나는 이 과정이 열린 해석의 과정으로 본다.

[92] 본 해석은 부록 A 에 수록된 관찰 일지 #1(2025 년 1 월 25 일), #2(2025 년 3 월 1 일), #3(2025 년 3 월 18 일)에서 확인된 반복적 관찰을 근거로 한다.

예배적 학습 구조가 공적 공간으로 이전되어 재생산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93]

2.3. 권위와 응답 구조

강남순의 비판은 이러한 학습 구조의 '닫힘'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 강남순은 질문과 해석이 차단된 학습 환경에서는 이미 규정된 의미가 반복 주입되며, 학습자가 의미를 재구성할 여지가 줄어든다고 지적한다.[94]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문제제기식(problem-posing) 접근은, 닫힌 구조 안에서 억압되거나 위험해 보였던 질문과 해석의 가능성을 다시 안전하게 열어내는 학습의 재구성에 초점을 둔다.[95] 강남순이 말하는 '이중적 보기 방식(double model of seeing)'은 지배적인 해석을 절대화하기보다, 주변의 경험과 목소리를 함께 보게 하는 인식의 전환을 요청한다.[96] 이는 지배적인 담론이나 이미 주어진 해석의 틀을 절대화하기보다는 그 주변에 놓인 경험과 목소리를 함께 바라보도록 요청하는 인식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97] 이러한 관점을 강남순은 *데리다와의 데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사실이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해석을 통해 구성된다. 니체가 말했듯이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을 뿐'이며, 데리다가 지적한 것처럼 모든 읽기는 필연적으로 자서전적이다. 우리는 텍스트를 읽을 때 언제나 자신의 위치, 경험, 세계관을 함께 읽어 넣는다. 그러므로 읽기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해석의 순간과 마주하는 사건이다.[98]

---

[93] 권미리, "연령차별주의가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자기 이미지를 매개효과로" (M.A.,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64.

[94] 강남순, *데리다와의 데이트*, 171–76.

[95] 강남순, "Introduction: Cosmopolitan leadership" (lecture, Gender-Related Conflicts,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Daejeon, Korea, January 5–8, 2026).

[96] 강남순, *데리다와의 데이트*, 153–58.

[97] 강남순, 213–20.

[98] 강남순, 171–76.

나는 예배화된 공적 공간과 신앙 학습이라는 현상에 주목했다. 현장에서 집회는 정치적 시위라기보다 찬송, 기도, 국기 흔들기, 구호 제창이 반복되는 예배적 리듬을 띠고 있었다. 깃발을 흔드는 몸짓과 노래, 맹세의 행위는 신앙의 인지적 고백을 넘어 신체적, 의례적 학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99] 이러한 학습 구조 안에서는 신앙의 의미가 이미 규정된 해석을 중심으로 전달되며, 강남순이 비판했던 것처럼, 참여자는 그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질문할 여지를 거의 갖지 못한다.[100]

같은 맥락으로, 아스머의 실천신학적 해석학은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아스머는 신앙 실천이 단순히 교회 내부의 제도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공간에서도 의미 형성과 신앙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10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핵심 문제는 집회 참여 자체를 곧바로 교정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신앙과 국가 의미가 결합된 실천이 형성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질문과 해석의 다양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왔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적 신앙 실천의 장을 다시 질문과 해석이 가능한 학습의 장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3. 에이지즘과 노년의 상실 경험 (Ageism and the Experience of Loss in Old Age)

본 연구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 지점은 노년 세대가 경험하는 에이지즘이 공적 신앙 실천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대 사회와 교회 안에서 노년 세대는 종종 더 이상

---

[99] 본 해석은 관찰 일지 #4(2025 년 2 월 8 일), #5(2025 년 2 월 22 일), #6(2025 년 4 월 6 일)에서 확인된 반복적 관찰을 근거로 한다.

[100] 강남순, *데리다와의 데이트*, 213.

[101] 김선일, “실천신학적 과제로서 일의 신학에 대한 접근 — Richard R. Osmer 의 네 가지 과제를 토대로,” *복음과 실천신학* 55, no 3 (2020): 85 – 115.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세대로 인식되며, 그 결과 자신이 공동체에서 점차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사회적 소외를 넘어 신앙적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랜 시간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믿는 노년 세대에게 '이제는 물러나야 할 세대'라는 메시지는 자신의 삶과 헌신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태극기의 상징성은 노년 세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태극기는 단순한 국가 상징을 넘어, 자신이 살아온 역사와 희생, 그리고 신앙적 헌신의 기억을 담고 있는 상징으로 작동한다. 특히 전쟁과 분단, 산업화의 시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 국가의 상징은 개인의 삶과 분리된 정치적 기호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 온 역사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경험된다. 많은 참여자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외에는 없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다'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는 단순한 애국심의 표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 상실과 의미 공백을 신앙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102] 그러나 이러한 재구성이 당연히 치유로 이어지는지, 혹은 또 다른 긴장을 낳는지는 추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노년 세대의 이러한 경험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신앙 언어와 국가 담론이 이들의 복합적인 감정을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노년기의 삶의 현실이 교회 신학 담론 안에서 충분히

[102] 이와 같은 해석은 관찰 일지 #6, #7, #13, #14 에 근거한다. 해당 관찰에서 노년 참가자들은 은퇴 이후의 역할 상실, 건강 문제, 가족 관계의 변화에 대해 사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집회가 시작되면 이러한 개인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언어화하기보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라는 국가–신앙 결합 언어로 전환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다. 이는 노년기의 삶의 현실이 교회 신학 담론 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채, 집회라는 예전적 공간 안에서 우회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루어지지 못한 채, 집회라는 예전적 공간 안에서 우회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교회가 노년 세대의 신앙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동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신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노년 세대의 공적 실천은, 단지 이념적 동원이나 신념 선택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의 상실, 가족 관계의 변화, 건강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주변화 등 노년기 특유의 조건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집회 참여를 통해 '나는 여전히 쓰임 받는 존재'라는 감각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재정의하는 언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103] 연령차별과 자기연령주의(self-ageism)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주경희, 김주현, 오경희는 *노인차별 경험과 자기연령주의(self-ageism)*에서 반복되는 차별 경험은 단지 외부적 불편을 넘어 자기 인식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년기의 삶을 해석하는 내면의 조건을 바꾼다고 했다.[104]

이러한 자기연령주의는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될 뿐 아니라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내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에이지즘이 노년 세대를 해석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외부 구조라면, 자기연령주의는 그 구조가 노년 개인의 자기 인식 속에 내면화된 결과이다.[105] 본 연구는 노년 세대의 공적 신앙 실천을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에이지즘과 자기연령주의가 결합된

---

103 본 해석은 관찰 일지 #7(2025 년 2 월 15 일), #8(2025 년 3 월 9 일), #9(2025 년 4 월 12 일)에서 확인된 반복적 관찰을 근거로 한다.

104 주경희, 김주현, and 오경희, "노인차별 경험과 자기연령주의(self-ageism)," *한국 노년학* 40, no. 4 (2020): 659-60. 자기연령주의는 사회나 교회가 반복적으로 노년을 보호 대상, 관리 대상, 설명의 대상으로 위치시킬수록 노년 스스로도 말할 자리를 내려놓고 질문을 포기하고 해석을 타인에게 위임하게 된다고 보았다.

105 주경희 et. al., 660. 노인은 결국, 반복된 차별과 배제를 스스로 받아들이므로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라는 자기 해석으로 국한되며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배워' '노인은 조용히 있어야지' '우리가 나설 자리는 아니야'스스로 발화를 자제하고 질문을 포기하게 되며 닫힌 학습구조(예배)에 쉽게 빠져든다. 자기연령주의는 결국, 노년이 스스로를 '해석의 객체'로 받아들이는 내면화된 결과가 되어버린다.

학습 구조의 산물로 이해한다.[106]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년기의 상실과 주변화는 공적 실천이 '왜 지금' 강하게 의미화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맥락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 방향으로만 증폭되고 고착되는 것은 결국 학습 구조(예배적 반복, 권위–응답 구조, 질문 차단)의 작동과 맞물려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조(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 예배화된 공적 공간에서의 신앙 학습, 신앙 담론에서 소외된 노년의 삶)는 서로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 노년기의 조건과 공적 예배 실천, 그리고 해석의 차단이 결합되어 작동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문헌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지점은 바로 이 결합의 과정 — 즉, 요소들의 나열이 아니라 요소들이 결속되어 유지되는 '학습 구조의 메커니즘'에 있다.

B. 실천적 제안 (Practical Theological Proposal)

1. 신앙 형성 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Structure of Faith Formation)

본 연구에서 말하는 '수업'은 제도적 교육을 의미하지 않으며, 예배와 설교, 공적 집회와 의례 등 신앙이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실천들을 포괄하는 학습의 장을 가리킨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을 이해하기보다는 이를 통제하거나 배제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107] 김용환은 노년

[106] 주경희, 김주현 and 오경희, "노인차별 경험과 자기연령주의(self-ageism)," 660-62.

[107] 김용환은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를 강조했는데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만남은 에이지즘(ageism)의 관점에서 보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만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각 세대는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를 형성해 나가며 이를 단순히 문화상대주의(multiculturalism) 혹은 다문화주의로만 이해해서는 세대 간 갈등을 온전히 해소할 수 없다. 오히려 김용환이 주장한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시선의 접근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과 이해를 기반으로 노인 세대를 바라볼 때 진정한 화해와 조화가 가능해진다. 김용환은 결국 다른 세대를 만난다는 것은 각 세대가 형성된 영성의 공간과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 모두 다름을 인지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세대를 신앙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 '돌봄의 대상' 혹은 '조정의 대상'으로 간주해 온 한국 교회의 구조적 시선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노년 세대의 신앙을 능동적 실천의 영역이 아닌 관리의 영역으로 축소시켜 왔음을 강조한다.[108] 그러나 단순한 프로그램의 수정이나 세대 간 소통의 강조, 혹은 새로운 교육 콘텐츠의 추가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응답할 수 없다. 과거의 성공적인 목회 모델이나 특정 이념적 신학 틀이 현재의 대안이 될 수 없듯이, 이미 형성된 공명의 구조를 유지한 채 새로운 해석만을 덧붙이는 시도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을 둘러싼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제공해 온 해석과 학습의 구조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는 노년 세대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발견하고 체화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동시에, 교회 역시 스스로의 해석 권력을 내려놓고 힘을 빼는 과정이 요청됨을 의미한다.

김혜란은 *상호의존성*에서 실천신학의 비판적 성찰이 식민주의를 외부적 요인으로 분리해 다루기보다, 그것이 인종, 민족성, 젠더, 계급, 장애, 성적 지향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과 교차하면서 형성해 온 권력의 작동 양상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09]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서로 다른 세대와 신앙의 지평들이 충돌이 아닌 대화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학습의 장이 열릴 수 있다. 기존의 교회 교육과 목회 구조는 노년 세대를 신앙의 주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돌봄이나 조정의 대상으로 전제해 왔으며, 그 결과 노년의 삶의 경험과 질문들은 신학적 성찰의 중심으로

했다.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세대 간 소통이 단순한 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 우리는 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108] Kim,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109] 김혜란, *상호의존성: 포스트식민주의 여성주의 실천신학* (서울: 동연, 2020), 24.

들어오지 못했다.[110] 예배와 교육은 강단 중심, 일방향 전달, 응답 중심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현대 예배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도 지적되어 왔다.[111]

박해정은 *21 세기 감리교 예배와 설교를 위한 방향성 제고*에서 현대 예배가 설교자 중심의 강단 구조 속에서 전달과 응답의 일방향적 형식으로 고착될 위험을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예배 구조가 회중을 능동적인 해석의 주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메시지를 수용하고 반응하는 위치에 머물게 함으로써 예배의 상호성과 참여성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한다.[112] 같은 선상에서 조기연은 "한국 교회가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가 사건적으로 발생하는 장으로 이해하기보다, 설교자의 전달과 회중의 응답으로 구성된 기능적 구조로 축소해 왔다"[113]고 비판한다. 이러한 예배 이해는 특히 노년 세대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고등학교 동창회 출신 노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학습해 왔다'는 짧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말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이해하기보다 학습된 구조의 힘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언처럼 들렸다.

이 구조 속에서 회중은 능동적인 해석의 주체가 아니라, 이미 규정된 의미에 반응하는 위치에 머물게 되며, 예배는 삶의 맥락 속에서 질문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학습의 장으로 확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는 질문과 해석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특정한 신앙–국가 담론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작동해 왔다. 이처럼 학습의 장이 이미 닫혀 있는 구조 속에서는, 다른 신학적 공명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본 연구는 대안을 새로운 신학 이론이나 올바른 해석의

[110] Stanley Hauerwas, Carole Bailey Stoneking, Keith G. Meador, and David Cloutier, *Growing Ol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듦에 관하여*, trans. 이라이프아카데미 (서울: 두란노서원, 2021), 112–14.
[111] 박해정, "21 세기 감리교 예배와 설교를 위한 방향성 제고," *신학과세계* 6, no. 2 (2008): 141.
[112] 박해정, 141–43.
[113] 조기연,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몇 가지 오해들," *신학과 실천* 27, no. 1 (2010): 171–76.

제시에서 찾기보다, 신앙이 실제로 형성되는 구체적인 '학습의 장(場)'에 주목한다. 이상적인 신앙을 설명하는 담론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의 맥락을 언어화하고, 질문하며, 서로 다른 해석의 지평을 마주할 수 있는 학습 구조 그 자체가 대안이 되어야 한다.

2. 신앙 학습 구조의 재구성 (Reconstructing the Structure of Faith Learning)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대안은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대안으로서의 학습 구조의 재구성이다. 학습 구조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이런 변화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실로 작지 않다. 실례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예배학 수업에서 김남중은 예배를 하나의 고정된 형식으로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실험과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전개하였다.[114] 수업 과정에서는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 여러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사례들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예배가 적용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단일한 관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각도에서 탐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수업은 학생들이 예배를 창의적으로 구상하고, 그 과정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실제로 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내가 속한 조에서는 '난임[115]부부를 위한 마음 챙김 예배'[116]로 준비하였는데, 나는 성찬

---

[114] 김남중, "Class Presentations: Healing Service Design" (lecture, Healing and Transformation through Preaching and Worship,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May 27-31, 2024).

[115] '난임(難姙)'은 아이를 갖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특히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1 년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를 '불임(不妊)'이라고 하며, 정상적인 부부보다 임신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난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6850&cid=51007&categoryId=51007#TABLE_OF_CONTENT1.

[116] 김남중, "Class Presentations: Healing Service Design."김남중은 "현대예배는 참여적(Participatory), 비언어적(Image-rich), 연결적(Connective)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속했던 2 조에서는 '난임부부의 마음챙김' 난임 치유 예배를 주제로 예배를 준비하였다. 예배는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찬송 Hymn, 축복기도 Prayer of Blessing, 성찬 The Lord's Supper, 치유의 시 A Healing Poem, 찬송 Hymns,

가운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에 참관하던 딸의 흰 드레스 옷을 입고 성찬을 집례하게 되었다. 이 장면은 정형화된 남성 성직자 이미지와 달리, 성직과 예배가 특정한 제의적 복식이나 성별 규범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딸의 옷을 입은 아버지라는 관계적 맥락은 예배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새롭게 구성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사례는 예배의 구조가 달라질 때, 성직과 신앙, 그리고 참여의 방식 또한 새롭게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예배를 둘러싼 학습의 장이 열릴 때, 신앙은 정해진 형식을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삶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획득하는 사건으로 경험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논의한 대안으로서의 수업과 학습 구조 전환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든 래트롭은 회중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 구성원들이 예배에 직접 참여를 통해 그들이 지닌 삶의 절망과 소망을 표현해 내는 것을 강조한다.[117]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노년 세대를 향한 또 하나의 해석을 제시하기보다는 신앙이 형성되는 학습 구조 자체를 재구성함으로써 노년 세대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리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노년 세대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교회의 구조와 교육의 틀을 다시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아스머가 제시한 실천신학의 네 가지 과제 가운데, '왜 이러한 신앙 실천이 형성되었는가'를 탐구하는 해석적 과제(interpretive task)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아스머가 말하는 해석적 과제는 신앙 실천이나 문제 행동을 즉각적으로 평가하거나 교정하기 이전에, 그것이 형성된 삶의 조건과 사회적, 상징적 구조를

시작 In the beginning, 사랑의 서약 Love Feast, 축복의 기도 Prayer of Blessing, 세상으로 나아감 Sending for Through'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예배의 진행 과정은 녹화하고 또 학기 후 페이퍼로 다시 정리되어 제출하였다.

[117] 나형석, "고든 래트롭의 예배비평론과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위한 함의 연구," *신학과 실천,* no.16 (2008): 125.

이해하려는 작업이다.[118]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급격한 공명(NECK)은 특정한 메시지 때문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질문과 해석이 차단된 학습 구조 속에서 신앙과 국가 상징이 반복적으로 결합되며 증폭된 결과였다. 따라서 공명을 완화하거나 전환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보다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학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전환이 요청된다.[119] 나는 2025 년 9 월 3 일, 한신대학교에서 열린 명사 초청 강연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데이빗 킴-크랙(David Kim-Cragg)은 "역선교: 한국 민주화 운동이 캐나다 연합교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의 선교 대상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서구 교회의 신학과 정체성, 선교 이해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기능해 왔음을 강조하였다.[120]

그는 3·1 운동과 한국 민주화 운동,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의 경험이 캐나다 연합교회로 하여금 국가 권력과 신앙의 관계를 재고하게 만들었으며, 선교를 '가르치고 이끄는 행위'가 아니라 '듣고 함께 변화되는 과정'으로 재구성하게 했다고 설명했다.[121] 킴-크랙의 강연은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신앙이 형성되고 해석되는 학습의 장과 구조에

---

[118]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trans. 김현애 and 김정형, 161-78.

[119] Richard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8), 15–35. 아스머는 실천신학을 신앙의 내용을 교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신앙이 형성되는 실천과 해석의 구조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학문으로 규정한다. Paul Tillich, *Dynamics of Faith* (New York: Harper & Row, 1957), 1–4, 12–18, 41–54. 틸리히는 궁극적 관심이 상징을 통해 표현되며, 유한한 역사적, 정치적 상징이 절대화될 때 종교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Teresa Berger, *Worship: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s* (New York: Routledge, 2018), 6–11, 107–109. 베그너는 예배와 신앙을 구조화된 실천으로 이해하며, 반복되는 발화, 몸의 반응, 상징 사용이 신앙 주체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변재봉, "찰스 거킨의 이야기해석에 대한 목회상담," *목회와 상담,* 제 25 호(2015): 112 -49. 거킨은 의미가 질문과 해석이 허용되는 구조 안에서 형성됨을 강조하며, 해석이 차단된 구조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120] David Kim-Cragg, "역선교: 한국 민주화 운동이 캐나다 연합교회에 미친 영향" (lecture at Hanshin University, September 3, 2025).

[121] David Kim-Cragg.

있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준다. 아스머는 실천신학의 과제가 신앙의 내용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의미가 형성되고 해석되는 실천과 구조를 해석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122] 이러한 관점에서 신학적 전환은 교리적 진술의 변화보다는 신앙이 형성되는 해석 공동체와 학습 구조의 재구성 속에서 발생한다고 했다.[123] 본 연구에서 관찰한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 역시 이러한 해석학적 조건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집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던 성서 구절과 찬송, 국가 상징은 참여자들에게 단순한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전쟁과 가난, 국가 재건의 기억 속에서 이미 생존과 보호의 언어로 체화된 신앙 경험과 결합되어 있었다. 박은혜는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회교육 방안연구*에서 노인의 하나님 이미지를 지적, 정서적, 행위적 차원에서 올바르게 내면화하도록 교회교육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를 교육상담적 방식으로 치유하여 신앙 성숙을 돕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반복 학습이 신앙 내면화를 만들고 그것이 곧 행동 변화를 연결시킨다고 했다.[124]

이는 개인의 의도적 선택이라고 규정하기보다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반복적으로 학습된 해석의 결과에 가깝다. 이러한 신앙 해석은 다른 세대나 다른 삶의 맥락에서는 동일한 강도로 공명되지 않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석의 지평 차이가 드러난다. 따라서 문제는 노년 세대의 신앙 해석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어떤 학습의 구조 속에서 신앙과 국가 기억을 함께 해석하도록 형성되어 왔는가 하는 구조적 조건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건을 드러내기 위해, 신앙이 교리나 명제의 전달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예배와 설교,

---

122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171–73.
123 Osmer, 171–73.
124 박은혜,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회교육 방안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7, no. 3 (2021): 77.

공적 집회와 의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체화되어 왔음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질문들—국가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신앙과 이데올로기의 경계, 세대 간 해석의 차이—은 학습의 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주변화되어 왔다.[125]이러한 문제의식은 연구자가 참여한 실천신학적 수업 경험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이루어진 수업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형식이 아니라, 참여자 각자의 경험과 질문을 신앙 해석의 자원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김혜란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화두를 던졌고, 학생들은 말하기와 토론뿐 아니라 드라마, 시연, 상징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해석을 표현했다.[126]

특히 비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강단 중심의 배치를 벗어나,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교수와 학생의 위계를 완화하고 모든 참여자를 학습의 주체로 초대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했다. 이러한 작은 구조적 변화는 학습의 분위기와 참여 방식에 의미 있는 전환을 만들어냈다.[127]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년

---

[125]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4 – 11, 171 – 173. 아스머는 실천신학이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로 신앙이 형성되는 해석 공동체와 학습의 구조 안에서 어떤 질문들이 허용되고 배제되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신학적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특정 질문들이 구조적으로 차단될 경우 신앙은 성찰적 긴장을 상실한 채 반복 학습을 통해 고정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신앙과 이데올로기의 경계, 세대 간 해석 차이에 대한 질문들이 학습의 장으로 유입되지 못한 현상은 구조적 주변화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126] HyeRan Kim-Cragg, "Postcolonial Practical Theology: A Preaching Focus" (lecture,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Postcolonial World,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June 4-8, 2024). 학생들은 동일한 주제를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해 표현하였다. 나는 집 앞 나무 아래에서 흙을 직접 채취하여 나아만 장군의 요단강 이야기를 시각화 하는 데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자연과 치유, 그리고 생태학적 영성을 결합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은 성서 이야기가 추상적 교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감각적 경험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27] 김혜란, *상호의존성: 포스트식민주의 여성주의 실천신학*, 21. 김혜란은 성인-중심 예배에서 어린이, 간-인종 가족과 퀴어 가족 내의 청소년, 다중적 종교 전통을 수행하는 사람들, 국적 하나보다 더 많은 것에 속한 새로운 이민자, 인간공동체의 이기적 행위로 고통받는 비-인종 등 이에 국한되지 않는 깨어지고 취약한 상태인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을 간과된 사람들로 명명하며 누구든 주변화되면 안 된다고 했다.

세대의 신앙 공명을 전환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회 안의 학습 구조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는 새로운 교리를 추가하거나 기존 신념을 교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애사적 경험을 신앙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고, 국가 기억과 신앙 언어가 만나는 지점을 질문과 성찰의 대상으로 드러내며, 서로 다른 해석의 지평들이 안전하게 마주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설계하는 일이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 통해 교회는 그동안 주변화되었던 목소리와 경험들을 해석의 전면으로 초대할 수 있으며, 신앙이 이데올로기적 공명에서 벗어나 보다 책임적이고 관계적인 방향으로 재형성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곧바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수행해 온 질적 연구 전통과도 맞닿아 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최근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논문들은 한국 목회 현실과 사회적 갈등을 배경으로, 신앙 실천이 어떻게 삶의 조건과 구조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지를 분석해 왔다.[128]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실천신학적 연구 흐름을 참고하며, 현장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다시 신학적 성찰의 장으로 가져오는 해석학적 순환 방법을 채택하였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한국 교회와 전세계 교회에 신앙 실천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와 변화를 지향하는 실천신학적 탐구 과정으로 이해하며 질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다. 특히 지난 15 여 년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한국 목회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세대 갈등, 정체성 위기, 이데올로기적 긴장, 공적 신앙의 왜곡과 재구성을 다룬 다수의 목회학 박사 논문을 축적해 왔다. 2013 년부터 2025 년까지

---

[128]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갈등, 치유, 변화를 위한 실천신학(이중언어 목회학 박사과정) D. Min. in Practical Theology of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2025 Winter/Spring Orientation Handbook*, 1/5-1/16/2026, 97-104. 2013년부터 2025년까지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논문 총 96편 수록되었다(updated: 4.30.2025). 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박사 과정 안내서에서 논문 목록을, 온라인 도서관에서 논문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하였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제출된 질적 연구 논문은 총 96 편에 이르며(updated: 2025.4.30), 이는 본 연구가 위치하는 학문적 흐름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나는 이 가운데 '공적 신앙 실천', '집단 정체성 형성', '근거이론 기반 질적 연구', '실천신학적 해석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과 해석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주요 질적 연구 논문들은 부록에 실었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이미 공명하고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신학적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지를 묻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아스머는 실천을 개인의 신념 차원을 넘어, 신앙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구조적 맥락으로 설명한다:

> 신앙을 고정된 교리 체계나 인지적 신념의 집합으로 이해하기보다,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반복되는 실천과 해석의 패턴을 통해 형성되는 역동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천신학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규범적으로 교정하는 학문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실천의 구조 속에서 내면화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학문으로 이해하는데 있다.[129]

노년 세대를 하나의 고정된 범주나 동일한 신념 집단으로 이해하기보다, 그들이 어떤 해석의 자리에서 의미를 구성해 왔는지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요청된다. 가다머(Gadamer)는 *진리와 방법*에서 근대적 인식론이 전제해 온 방법 중심의 이해 개념을 비판하며, 인간의 이해가 형성되는 조건과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이해는 개인 내부의 인식 작용이나 방법적 판단을 통해 획득되는 결과가 아니다. 이해는 각 개인이 형성해 온 경험과 전통, 역사적 조건으로 이루어진 해석의 지평들이 만나는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해는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행위라기보다, 삶의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미의 사건으로 경험된다.[130]

---

[129]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33–35, 39–41.

[130] Hans-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진리와 방법*, trans. 김성기 and 이기상 (서울: 문학과지성, 2012), 25-3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년 세대가 신앙과 국가 상징을 결합하는 현상은 설득과 교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그들이 관통해 온 특정 생애사적 궤적과 신학적 해석 체계가 맞물려 탄생한 하나의 '의미론적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년 세대를 새로운 해석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의 신념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재정렬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해석의 지평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조건 속에서 공명하게 되었는지를 성찰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가다머의 해석학적 통찰은, 본 연구가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을 판단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사건으로 접근하고자 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노년 세대의 정치적, 종교적 실천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생애사적 경험 위에 특정한 신학적 해석 구조가 반복적으로 결합되면서 형성된 공명의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이상 '왜 노년 세대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교회적 구조 속에서 그러한 공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로 옮겨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노년 세대를 새로운 내용으로 재교육하거나 다른 해석을 주입하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미 서 있는 해석의 자리에서, 무엇이 자신의 것이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성찰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개인의 신념을 교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신앙이 형성되고 내면화되는 학습의 장 자체를 재구성하는 문제에 가깝다.

3. 급격한 공명을 전환하기 위한 실천신학적 구조 개입의 시도 (A Practical Theological Intervention to Transform Rapid Resonance)

본 연구의 제언은 특정한 공동체 윤리나 이상적인 관계 모델을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이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을 이미 규정된 틀 안에서 평가하거나 교정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는 목회적 경험에 근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아스머가 실천신학의 과제를 개인의 신념을 교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신앙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실천과 해석의 구조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규정한 논의와 깊이 맞닿아 있다. 아스머에 따르면, 실천신학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선언하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구조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학문이라고 했다.[131]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떻게 하면 노년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유보하고, 대신 '어떤 구조 속에서 그러한 신앙 공명이 형성되고 증폭되어 왔는가'를 끝까지 추적해 왔다. 이는 아스머가 제시한 네 가지 과제 중 해석적 과제(interpretive task)와 실천적 과제(pragmatic task)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태도 변화보다 신앙이 형성되는 구조적 조건과 학습의 장에 주목하는 접근이다.[132]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실천적 방향은 노년 세대의 신앙 내용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그 신앙이 형성되고 발화되는 학습 구조 자체에 대한 개입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급격한 공명(NECK)은 특정 메시지나 이념의 설득력 때문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질문과 해석이 차단된 구조 속에서 신앙, 기억, 국가 상징이 반복적으로 결합되며 증폭된 결과였다. 노년 세대는 예배와 집회, 공적 공간에서 이미 주어진 해석에 응답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애사적 경험과 신앙적 감정을 다시 질문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는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예컨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허리 협착증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행진을 이어가던 한 노년 남성은, 신체적 고통과 가족 상실의 경험을 '나라를 지켜야 할 사명'이라는 언어로만 표현하고

[131]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15–35.
[132] Osmer, 30–35.

있었으며, 자신의 고통을 질문하거나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133]이러한 현상에 맞물려, 틸리히(Tillich)는 종교적 상징이 특정 역사적, 정치적 상징과 결합될 때 그 상징이 궁극적 관심 자리를 차지하면서 종교 자체가 왜곡된다고 했다.[134] 이는 본회퍼가 말한 신앙의 책임성이 이념적 확신으로 대체되는 위험성과도 맞닿아 있다.[135] 실제로 관찰된 여러 집회 현장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단순한 국가 상징을 넘어 '기도의 도구' 혹은 '예배의 표식'으로 사용되었고, 찬송가, 군가, 구호가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참여자들은 질문이나 해석의 교환보다는 집단적 응답에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공명을 완화하거나 전환하기 위한 실천은 새로운 신학적 해답을 제시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스머가 강조하듯, 실천신학적 응답은 공동체가 다른 방식으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하고, 그 실천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136]

이에 본 연구는 실천신학적 제언으로서, 노년 세대의 신앙 공명이 형성되었던 학습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시도를 제안한다. 이 개입은 프로그램 중심의 교정이나 교육이 아니라, 학습의 장(space) 자체를 재배열하는 실험적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배와 설교, 소그룹 모임, 공적 신앙 실천과 같은 기존의 학습 장면 속에 질문과 해석이 허용되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참여 방식의 변화—발화의 주체, 침묵의 양상, 몸의 반응, 상징 사용의 변화, 신앙 언어의

---

[133]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관찰일지 1 호에 제시되어 있다.

[134] Paul Tillich, *Dynamics of Faith,* 12–13.

[135] 고재길, "본회퍼의 사회윤리에 대한 소고," *장신 논단* 2, no. 37 (2010): 254 – 68. 본회퍼는 자신의 행동을 '이데올로기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책임적 행동으로 이해했으며 전통적 종교형태나 단순한 규범적 종교(제도/이념)에 머무르는 신앙을 넘어 그리스도의 책임 윤리를 강조했다.

[136]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30–35.

재구성—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다.[137] 이는 관찰 일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존 집회 공간이 발화의 주체를 제한하고 응답만을 요구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요청된다.[138] 예컨대 '충정가' 제창이나 깃발 흔들기와 같은 행위는 강한 결속과 정체성 확인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의미를 다시 묻거나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장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139] 이러한 구조 개입은 신앙의 내용을 '올바르게' 가르치려는 시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이는 노년 세대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려는 개입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기억과 신앙, 상징을 다시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시도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해답을 제공하는 위치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해석하는 위치에 머문다. 이는 거킨(Gerkin)의 목회적 해석학이 강조하듯, 목회자가 '정답을 주는 전문가'가 아니라 '해석의 동반자'로 서야 한다는 윤리적 태도와도 일치한다.[140] 나아가 이러한 구조 개입의 효과는 즉각적인

---

[137] 나형석은 고든 래트롭의 예배비평론을 분석하며, 예배의 구조(ordo)가 회중의 신앙 경험과 참여 방식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나형석, "고든 래트롭의 예배비평론과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위한 함의 연구," *신학과 실천* 16, no. 3 (2008), 125–36. 박해정은 설교와 예배가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회중의 해석과 응답이 포함되는 구조일 때 신앙 형성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박해정, "21 세기 감리교 예배와 설교를 위한 방향성 제고," 131–42. 베그너는 예배를 구조화된 실천으로 이해하며, 발화, 침묵, 몸의 반응, 상징 사용이 신앙 주체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한다. Teresa Berger, *Worship: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s* (New York: Routledge, 2018), 6–11, 107–109. 조기연은 예배를 하나님과 회중 사이의 소통 사건으로 이해하며, 예배 구조가 회중의 응답 방식과 신앙 이해를 규정한다고 본다. 조기연,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몇 가지 오해," *신학과 실천* 8, no.3 (2005): 171–83.

[138] 연구자는 2025 년 1 월부터 12 월까지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수행한 태극기 집회 총 13 회 관찰일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139] 독자들의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 음원 영상을 QR 코드로 제공하였으며 충정가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찰일지 #6 와 부록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140] 변재봉, "찰스 거킨의 이야기해석에 대한 목회상담," 112 – 49. 거킨은 목회를 문제 해결이나 정답 제시의 기술로 보지 않고, 인간의 삶을 '살아 있는 텍스트'로 읽으며 그 의미를 함께 해석하는 해석학적 동행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전문가로서 해답을 제공하는 위치가 아니라, 성도와 함께 삶과 신앙의 의미를 탐색하는 해석의 동반자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 해소나 합의의 형성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아스머가 지적하듯, 실천의 변화는 단번의 결론이 아니라 형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141]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 변화 이후에 나타나는 미세한 이동—노년 세대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방식의 변화,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의 발화를 듣는 태도의 변화, 국가 상징이 더 이상 단일한 의미로 고정되지 않고 질문의 대상이 되는 순간들—에 주목한다. 실제로 일부 참가자들은 관찰 과정에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말하고 싶다'며 연구자에게 심층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의존과 공존의 공동체는 본 연구에서 미리 설정된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 개입의 결과로서, 다시 말해 판단과 교정이 아니라 해석과 경청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열리는 가능성이다. '그래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이 아니라, 신앙 공명이 폭주하지 않고 서로 다른 기억과 해석이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때 드러나는 관계적 효과에 가깝다.[142] 결국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실천신학적 구조 개입은 한국 교회가 노년 세대의 신앙을 문제화하거나 관리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그 신앙이 형성되어 온 구조를 성찰하고 재구성하도록 요청한다. 이는 세대 갈등을

---

[141] Gerben Heitink, *Practical Theology: History, Theory, Action Domains: Manual for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9), 244–48.

[142] 김혜란, *상호의존성*, 10. 김혜란은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포스트식민주의 실천신학을 차별을 거부하며 다중의 경계를 가로질러 '너머로 나아가도록' 요청하는 이론적 틀로 설명한다. 또한 그는 상호의존성을 단순한 윤리적 이상이 아니라, 공동체가 상호의존으로 다시 지어질 장소와 공간을 상상하도록 초대하는 가능성의 언어로 제시한다. 이러한 이해는 상호의존성이 이미 완성된 공동체의 특성이기보다, 기존의 고정된 경계와 해석을 흔들며 새로운 관계적 조건을 열어 가는 실천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나는 이러한 가능성이 요청되는 구체적 장소가 바로 신앙이 학습되고 내면화되는 예배 구조라고 본다. 그 동안 우리의 예배 구조는 갈등이 어떠한 역사적, 신앙적 구조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사유할 언어와 틀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 교회는 노인 세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긴장과 공명을 단순한 옳고 그름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개념화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이론적, 인식적 틀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은 새로운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학습의 구조 안에서 질문과 해석이 다시 가능해지는 조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며, 상호의존성은 바로 그 구조적 전환을 사유하도록 돕는 하나의 실천신학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처방이 아니라, 노년 세대의 신앙이 형성되어 온 학습 구조를 성찰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더 넓은 해석의 공간을 회복하도록 초대하는 시도이다.

C. 프로그램 적용: 기억과 공명을 위한 치유 예배 프로그램 (Program Implementation: A Healing Worship Program for Memory and Resonance)

나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한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되었다.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노년 세대의 신앙과 국가 인식은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먹먹하게 다가온 이유는, 현장에서 만난 노년 참가자들의 발화와 몸짓, 기억과 감정이 이미 하나의 완결된 생애 서사처럼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반공 인식과 국가 상징에 대한 신앙적 태도는 일시적 의견이나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산업화, 생존과 희생의 기억 속에서 축적된 정체성의 언어였다.

이러한 서사는 몇 차례의 설교나 단기적 교육 프로그램, 혹은 설득의 언어로 쉽게 수정되거나 전환되기 어려워 보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가, 그 구조에 대해 알고 싶어 졌고, 그 구조에 작은 변화만 보이더라도 노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다 생각했다. 그 어떤 작은 공명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정말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다.

1. 기억과 공명을 위한 치유 예배 프로그램

1.1. 프로그램 제안

나는 노년 세대의 집회 참여와 신앙 실천을 개인의 이념 선택이나 정치적 급진화로 설명하기보다, 학교와 교회라는 공적 학습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형성, 내면화된 신앙 경험의

결과로 이해하였다.[143] 연구 과정에서 확인된 급격한 공명(NECK)은 특정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과 해석이 차단된 학습 구조 속에서 신앙과 국가 상징이 결합되며 증폭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엇을 더 설교하거나 교정할 것인가를 제안하기보다, 신앙이 학습되고 체화되어 온 구조 자체를 다시 열어 해석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은 김남중의 예배 이해—예배를 참여적(participatory), 비언어적(image-rich), 관계적(connective) 실천으로 재구성하는 접근[144]—를 토대로, 연구자가 수업 중 시연에 참여했던 치유 예배 틀을 확장, 재구성하였다.

1.2. 프로그램 개요

본 프로그램은 노년 세대의 신앙과 공적 실천을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선택으로 환원하지 않고, 그들이 학교, 교회, 사회라는 공적 학습 구조 속에서 배워 온 신앙과 상징 그리고 정서의 형성과정을 안전하고 참여적인 예배 구조 안에서 다시 해석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모든 세대이며, 본 프로그램은 세대 통합(sing-generational integration)을 지향한다. 노년 세대는 자신의 생애 신앙형성과 공적 기억을 새로운 언어로 다시 읽는 기회를 갖고, 청년과 중년 세대는 노년 세대가 형성되어 온 신앙의 학습 구조를 이해하며, 공동체 전체는 서로의 신앙과 삶을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텍스트'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오해와 거리감은 줄어들고, 서로의 신앙과 실천이 하나의 공동 텍스트로 읽히는 해석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간은 3 회차로 구성한다.

---

[143] 이러한 패턴은 연구자의 관찰 일지 # 13 에서도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144] 김남중, "Class Presentations: Healing Service Design." 김남중은 '현대예배는 참여적(Participatory), 비언어적(Image-rich), 연결적(Connective)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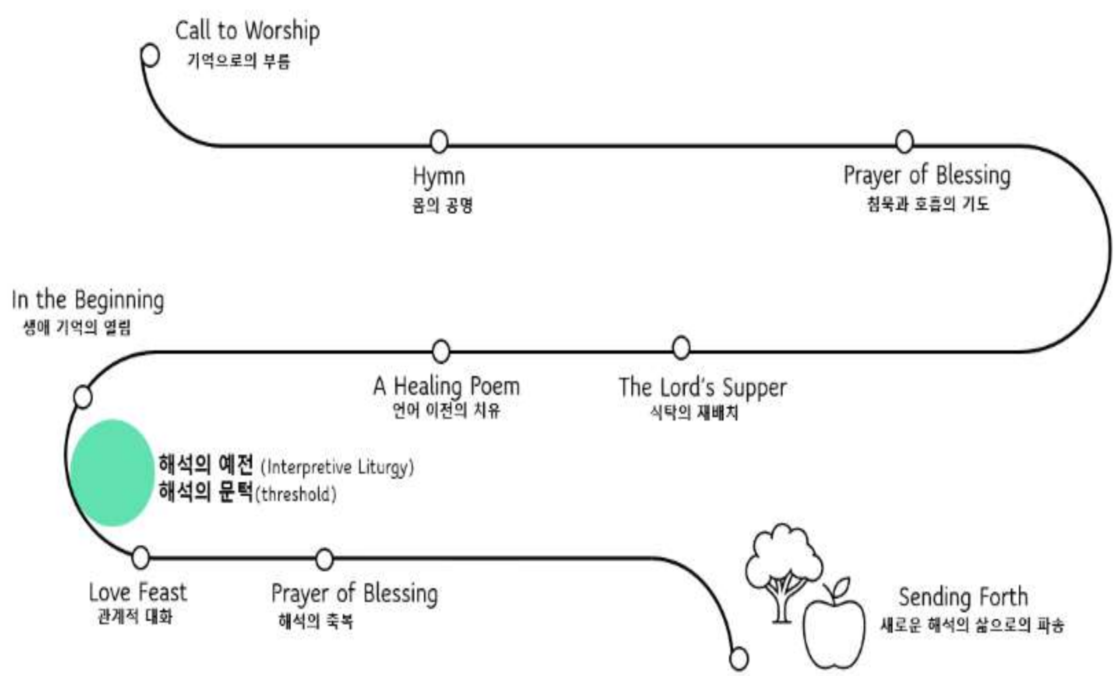
〈표 14〉 프로그램 세부 구성 요약표

주차	목적	핵심 활동	예전 구성
1 주차	기억 열기	사진, 자서전 조각으로 삶의 형성 구조 찾기	Call to Worship, Hymn, Healing Poem
2 주차	해석 실천	자서전 한 페이지를 사진과 함께 읽고 공동체 해석	In the Beginning → Interpretive Liturgy → Love Feast
3 주차	재배치, 파송	'내 삶의 새로운 한 문장' 작성과 세대 간 축복	Prayer of Blessing, Sending Forth

1.3. 구조와 흐름

본 프로그램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던 노년 크리스찬 세대의 생애 기억과 공적 학습 경험으로 확장하여 구성되었다. 아래 그림은 프로그램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기억과 공명을 위한 치유 예배 프로그램(Healing Worship Program for Memory and Resonance)



나는 이 예배를 무엇을 가르치거나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자리로 설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미 살아온 삶을 안전하게 꺼내고, 잠시 멈추어 바라보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구상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 고백이나 결단이 아니라, 기억으로의 부름(call to worship)으로 시작된다. 이 부름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보다 '어떤 삶을 살아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떠올리게 하며, 참여자들을 해석자가 아닌 기억을 지닌 존재로 초대한다.

이어지는 찬송은 의미를 설명하기보다 몸에 남아 있던 신앙의 기억을 깨우는 공명의 역할을 한다. 특히 노년 세대에게 찬송은 사고보다 먼저 감정과 신체가 반응하는 신앙의 언어이기에, 기억을 자연스럽게 예배 안으로 불러들이는 통로가 된다.[145] 곧이어 드려지는 축복의 기도는 변화나 결단을 요구하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음을 선언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예배는 In the Beginning – 생애 기억의 열림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예배의 흐름은 단순한 감정 환기나 치유 기법이 아니라, 해석을 즉각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머무름'을 허용하는 신학적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 나는 이 지점을 '해석의 문턱(threshold)', '해석의 예전(interpretive liturgy)'이라 명명하며, 그 신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2. 프로그램 신학적 토대

2.1. 해석의 문턱(threshold)/해석의 예전(interpretive liturgy)의 신학적 의미

김수정은 "Interpreting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the Old Testament" 수업에서 Threshold Reading 이라는 해석 방법을 제시하며, 성서를 즉각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의

---

[145] 이미나, 김희영, 김동일 et al., *웰빙과 웰다잉을 위한 노인돌봄과 노인상담*, 133–75. 노년층은 음악, 시, 예술 활동이 포함된 집단 활동에서 정서적 반응이 빠르고 기억 소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정서 자극에 따른 즉각적인 정서적, 신체적 변화가 상담 평가의 핵심 요소로 강조된다. 이러한 연구는 찬송과 노래가 노년 세대의 종교적 감정, 기억, 신체 경험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중요한 통로임을 뒷받침한다.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해석 이전에 머무름과 유보의 공간을 확보할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 해석 방법이 제안하는 구조가 기억과 신앙, 해석의 전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신학적 틀을 제공한다고 본다. 김수정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Threshold Reading 은 성서를 즉각 해석하거나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독자가 텍스트 앞에 서도록 요청하는 읽기 방식이다. 이 읽기에서 독자는 텍스트 내부로 침투하지 않으며, 텍스트의 접경면(adjacent surface) 앞에 머문다. 이 머무름의 지점이 바로 문턱(threshold)이다. 이 읽기의 구조는 세 가지 공간으로 설명될 수 있다. *Encoded Text* 는 독자가 바꿀 수 없는 텍스트 그 자체이며, *Threshold* 는 독자가 *Acting Reader* 로서 해석 이전의 유보와 반응을 경험하는 경계 공간이다. *Real Reader's Lab* 은 이 문턱에서 발생한 반응이 숙성되어 공동체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자리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객관적 분석자가 아니라, 기억과 상처, 윤리적 긴장을 몸으로 감당하는 수행적 해석자가 된다. 따라서 해석은 즉각적 결론이 아니라, 머무름과 지연, 침묵을 포함한 윤리적 훈련으로 이해된다.[146]

나는 '해석의 문턱'도 이러한 의미를 확장하여, 자서전과 사진, 삶의 장면들은 설명이나 교훈 없이 공동체 앞에 놓인다고 보았다. 기억은 간증으로 정리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저 그렇게 살아온 삶으로 존중받는다.[147] 나는 이 지점이 노년 세대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삶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강남순은 *Cosmopolitan Leadership* 수업[148]에서 해체적 쓰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고립(isolation), 외로움(loneliness), 고독(solitude)은 동일한 '혼자 있음'의 경험이 아니다. Isolation 은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담론적 구조 속에서 말할 자리와 해석의 자리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결과이다.

---

[146] Soo Kim Sweeney, "Interpreting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the Old Testament" (lecture, Context of Ministry and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Summer, 2025).

[147] 강남순, *데리다와의 데이트*, 112. 강남순은 '문지방 질문(threshold question)'을 말했다. 자칫 잘못하면 환대라는 이름이 적대처럼 느껴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우려이다. 나는 노년 세대들의 삶을 해석의 잣대로 평가하면 환대가 적대로 전환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노년들 그들의 삶 자체를 그대로 존중하며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나는 프로그램에서 침묵의 시간을 넣었는데 그냥 그대로 그들의 이야기를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읽고 듣고 그대로 현장에서 받아내는 열린 해석의 공간을 만들었다.

[148] 강남순, "Introduction: Cosmopolitan leadership."

이러한 고립은 노년 세대를 보호나 관리의 대상으로만 위치시키며, 해석의 주체가 아니라 해석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윤리적 실패이자 사회적 폭력으로 작동한다. Loneliness 는 관계를 원하지만 연결되지 못할 때 경험되는 감정적 상태로, 상실과 단절이라는 삶의 조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고통이다. 반면 solitude 는 고립이나 외로움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선택된 머무름과 침묵을 통해 삶과 세계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성찰의 공간을 의미한다. 바로 이 solitude 의 자리에서 개인은 타자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삶 앞에 서서 자신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 대화는 곧 삶을 다시 말하고 기록하는 행위, 곧 '쓰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서전 쓰기는 고독의 공간에서 형성되는 해석의 실천이며, 해석의 주체로 다시 서는 과정 그 자체이다.[149]

'자서전'이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해석하고, 그 성찰과 해석을 정리하고 구성해 글로 담아낸 결과물이다. 즉, 인간 각자는 대체 불가능한 개별성을 지닌 존재로서, 각자의 읽기 방식, 보기방식 또는 쓰기방식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자서전'이라는 범주와 개념 자체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김수정의 'Threshold Reading'과 강남순이 말하는 '해체적 쓰기'는 모두 해석을 즉각적인 의미 부여의 행위로 보지 않고, 해석 이전의 머무름과 유보가 요청되는 구조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공명한다.

이러한 관점은 아스머가 제시한 실천신학의 네 가지 과제 가운데, '왜 이러한 신앙 실천이 형성되었는가'를 탐구하는 해석적 과제(interpretive task)와 밀접하게 연결된다.[150] 아스머가 말하는 해석적 과제는 신앙 실천이나 문제 행동을 즉각적으로 평가하거나 교정하기 이전에, 그것이 형성된 삶의 조건과 사회적, 상징적 구조를 이해하려는 작업이다.[151] 아스머는 알코올 중독의 사례를 통해,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이 고통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 맥락을 해석하는 것이

---

[149] 강남순, *데리다와의 데이트*, 87–91.

[150]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trans. 김현애 and 김정형, 165–70.

[151] Osmer, 169–78.

실천신학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한다.[152]

이러한 아스머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의 위기는 인간의 물음이 과도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음이 너무 빨리 정리되고 봉합될 때 발생한다.[153]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신앙은 응답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고착되며, 삶의 긴장과 모순을 해석하기보다 기존 질서를 신성화하는 언어로 전락할 위험을 지닌다. 따라서 신학의 과제는 삶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물음과 하나님의 의미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석의 장을 여는 데 있다.[154]

이런 신학적 의미를 토대로 나는 노년 세대의 공적 신앙 실천을 규범적으로 평가하거나 교정하기 이전에, 그들의 기억과 신앙, 상징적 실천이 형성된 조건과 학습 구조를 이해하는 해석적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다. 심층면접 이후 축코딩의 결과로 알 게 된 사실이,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닫힌 학습 구조로 인해 강제적 학습 교육(예배)과 주입식 교육(예배)으로 노인들은 해석의 주체가 아닌 해석의 객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노인들에게 스스로 주체적 해석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싶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자서전 해석과 다양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법이다. 나는 짧은 시나 성경 구절을 통해 언어 이전의 치유를 시도했다. 이 언어는 의미를 닫지 않고, 감정과 기억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여백을 만든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해석의 문턱(threshold)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나는 이 문턱을 기억이 곧바로 판단이나 교정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자리로 설정했다. 질문은 던져지지만

---

[152] Osmer, 161–78. 아스머는 ‘왜 이 사람은 술을 통해 삶을 견디고 있는가?’ ‘이 행동은 어떤 상실, 관계 단절,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는가?’ ‘이 사람에게 술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서 술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가 된다고 해석했다.

[153] Osmer, 161–78.

[154]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trans. 김현애 and 김정형, 189. 아스머가 말하는 대화적(dialogical) 논증이란, 변론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추론함으로써 진리에 더 근접하는 것이다. 나는 이 과정이 열린 해석의 과정으로 본다.

답은 요구되지 않으며, 해석은 유보된다. 그 다음 성찬과 식탁의 시간은 하나의 의미로 통합되지 않는다. 각자가 준비해 온 음식과 상징은 서로 다른 삶과 해석을 품은 채 같은 식탁 위에 놓인다. 이어지는 관계적 대화는 설득이나 교정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해석을 경청하는 자리로 열린다.

마지막으로 나는 해석의 축복을 선언한다. 이는 해석을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각자의 해석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예전적 선언이다. 참여자들은 정답을 들고 파송되지 않고, 열린 해석을 안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 예배는 결론이 아니라, 닫혀 있던 신앙 구조에서 벗어나 다시 해석하며 살아가도록 여는 시작이다. 이는 노년 세대의 삶을 교정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 자체를 신학적 질문으로 존중받도록 하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실천이다. 이 구조 속에서 노년 세대는 더 이상 해석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삶의 질문 앞에 서서 의미를 다시 사유하는 해석의 주체로 요청된다.

3. 프로그램 설계

3.1.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본 연구가 제안하는 치유 예배 프로그램은 노년 세대의 신앙과 공적 실천을 교정하거나 해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들이 배워온 삶의 구조를 예배라는 안전한 장 안에서 다시 읽도록 초대하는 실천이다. 이는 예배를 신앙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기억과 해석이 교차하는 학습 구조로 재구성하려는 실천신학적 시도이다.

3.2.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개인의 변화를 결과로 입증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닫힌 신앙 학습 구조와 구별되는 새로운 구조가 열릴 때 어떠한 경험적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2장에서 언급한 심층면접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을 실천적 대안

프로그램의 참여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2장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연구자의 질문 언어와 문제의식에 노출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보다 그 의미를 해석하려는 태도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55] 나는 2장의 연구 참여자들과 프로그램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무엇을 가르쳤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구조적 경험을 제공하였고, 그 안에서 어떠한 반응이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다 개방적으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 정보이다.

〈표 15〉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대상	나이	성별	결혼	자녀	소속	직업
참여자 A	82	여	유	유	일반교구	무
참여자 B	75	남	유	유	일반교구	무
참여자 C	69	남	유	유	일반교구	유
참여자 D	67	여	유	유	일반교구	무
참여자 E	75	남	유	유	일반교구	유
참여자 F	53	남	유	유	일반교구	유
참여자 G	50	여	유	유	일반교구	유
참여자 H	25	여	무	무	청년	유
참여자 I	22	여	무	무	청년	유
참여자 J	17	여	무	무	학생	무
참여자 K	16	남	무	무	학생	무
참여자 L	14	여	무	무	학생	무

3.3. 준비과정

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을 별도로 ‘프로그램 참여자’로 지칭하였다. 또한 예배 경험이 이들의 인식과 반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다 자연스럽게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의 기획

[155] 권희경 and 이현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자기보고식 측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31, no. 4 (2020): 252. 이러한 경향은 연구의 개방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했다.

배경이나 연구 목적은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자서전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녀 세대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특히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생애를 함께 돌아보는 일에 흥미를 느끼며 자서전에 포함될 사진을 직접 선별하여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 가족들은 수십 년간 보관만 되어 있던 사진을 다시 꺼내어 살펴보게 되었고, 그 자체가 하나의 기억을 환기하는 경험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 프로그램을 S 교회에서 진행했다. 이 공간은 약 12 명 이내의 참여자가 원형 혹은 식탁 중심 구조로 마주 앉기에 적절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따뜻한 톤의 조명과 비교적 안정적인 방음 환경을 갖추고 있어 집중과 머무름을 요구하는 예전 구조에 적합한 장소였다. 예배는 월요일 오후 8 시에 진행되었는데, 이는 노년 세대뿐 아니라 직장인과 청장년 세대가 비교적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사전 연락을 통해 조율된 결과였다. 참여자들에게는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시간과 장소, 준비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며, 예배의 구체적 의도나 해석의 방향은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험하게 될 자리’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였다.

예배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참여자들이 감각적으로 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나는 입구에 국내 아로마테라피 브랜드의 기본형 리드 라벤더 향의 방향제를 배치하였다. 라벤더는 노년층의 긴장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향으로 알려져 있다.[156] 본 프로그램에서는 예배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참여자들의 신체 리듬과 정서를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다. 방향제는 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두기보다 공간 곳곳에 분산 배치하여, 특정 향을

[156] 이채영 and 심준영, “라벤더 향기 흡입에 의한 입면기 동안 전두엽과 중심엽의 뇌파 변화,” *한국웰니스학회지* 19, no. 4 (2024): 259–65.

인식하기보다 ‘편안한 공기’로 경험되도록 구성하였다. 탁자 위에는 흰 천을 덮어 일상의 식탁과 구별되는 예전적 공간을 형성하였다. 각 자리에는 참여자 개인의 자서전과 생애 사진이 놓였으며, 이 자서전은 글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개인 사진과 해당 시대의 사회적 장면이 함께 실린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는 기억이 문자 정보로만 호출되지 않고, 시각과 정서가 함께 동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체 셋팅 구조〉



〈책으로 만든 자서전〉


〈입구에 배치된 순서지〉


〈다양한 해석을 위한 성찬 빵〉

3.4. 감각적 예배 환경

3.4.1. 시각과 청각의 결합

자서전을 함께 읽는 시간에는 화면을 통해 자서전의 페이지와 생애사 사진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때 연구자는 단순한 낭독에 그치지 않고, 해당 시기를 떠올릴 수 있는 소리 환경을 함께 구성하였다. 컴퓨터를 통해 파도 소리, 배의 뱃고동 소리, 시골길의 바람 소리, 농촌의 생활 소리 등 자서전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환경음을 재생하였다. 이러한 청각적 요소는 자서전의 글과 사진을

입체적으로 보완하며, 참여자들이 기억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경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소리는 노년 세대뿐 아니라 함께 참여한 젊은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으며,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소리를 함께 듣는 구조 자체가 공명 가능성을 열어두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의도되었다.

3.4.2. 후각과 촉각을 통한 기억의 재접속

예배 공간에는 향기가 분명한 다양한 종류의 꽃을 준비하였다. 꽃은 장식물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직접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배치되었다. 참여자들은 꽃을 손에 쥐고, 코에 가까이 대어 향을 맡고, 볼이나 입가에 살짝 대보며 촉각적으로 꽃을 경험하도록 안내받았다. 이러한 구성은 꽃을 익숙한 이름으로 규정하기보다, 감각적 인상을 언어로 표현해 내기 위한 준비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꽃 그림이 인쇄된 카드에, 그 꽃을 통해 떠오른 감정이나 새롭게 붙여진 이름을 직접 적도록 안내받았다. 이 과정에서 꽃은 기존에 명명된 사물이 아니라, 각자의 기억과 감각을 통해 다시 읽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이러한 촉각과 후각의 활용은 신앙과 기억이 추상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여전히 몸의 감각 안에서 경험될 수 있음을 열어두는 통로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3.4.3. 오감을 통한 머무름의 경험

참여자들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꽃을 계속 손에 쥐거나 탁자 위에 두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으며, 꽃의 향기를 맡고 손으로 만지며 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초대되었다. 만지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은 예배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서전의 문장을 직접 읽거나 다른 이가 읽는 것을 듣고, 사진과 영상을 눈으로 바라보며, 자서전에 담긴 당시의 소리와 공간의 향기를 함께 경험하도록 구성된 환경 안에 머물렀다. 또한 성찬의 자리에서는

각자가 준비한 서로 다른 빵을 보고 만지고 맛보는 과정을 통해 기억과 신앙을 감각적으로 다시 접속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김용환의 수업에서 교재로 소개한 *웰빙과 웰다잉을 위한 노인돌봄과 노인상담*에서 제시된 노년 이해로부터 중요한 통찰을 얻어 연구에 반영한 것이다.[157] 본 프로그램은 노년 참여자들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의미를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오감을 활용해 안전하게 머무르며 해석이 열릴 수 있는 신앙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김용환은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에서 노년기의 신앙과 학습이 설명과 교정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노인의 삶과 신앙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생애의 리듬 안에서 다시 경험되어야 한다고 했다.[15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프로그램이 오감을 분리하지 않고 교차적으로 구성한 것은 노년 참여자들이 자신의 기억을 해석하거나 정리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기보다, 몸과 감각을 통해 안전하게 다시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배려였다.

4. 프로그램 진행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예배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주차 예배는 설교 중심의 전통적 예배

157 이미나 et al., *웰빙과 웰다잉을 위한 노인돌봄과 노인상담*, 177–92. 저자는 미술치료와 모래치료의 실제를 통해 더 나아가 음식 경험을 활용한 감각 중심 접근을 통해 시각, 청각, 후각, 촉각과 같은 감각 자극이 노년에게 정서적 반응과 기억의 열림을 촉진한다고 했다. 나는 이러한 통찰에 기대어, 오감을 개별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각들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교차하며 작동하도록 예전적 환경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환경 구성은 노년의 신앙 경험이 인지적 이해나 언어적 해석에 앞서, 신체 감각과 정서의 차원에서 먼저 반응한다는 노년 연구의 주요 통찰과도 맞닿아 있다.

158 Kim,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Korean Context."

콘티를 따르지 않고, 기억이 열릴 수 있도록 설계된 최소화된 예전 구조로 진행된다. 각 순서는 의미 전달이 아니라, 참여자의 기억과 정서를 안전하게 호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아래〈표 16〉에 제시하였다.

〈표 16〉 1 주차: 삶을 열다

순서	제목	진행 내용
1	준비와 찬양	–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서로 인사를 나눈다. – 노년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입구에 디퓨저를 배치한다. – 리본으로 장식된 순서지를 읽으며 예배 공간으로 입장한다.
2	여는 말	– 사회자가 간단한 인사말을 전한다. – 모임의 목적과 전체 예배의 흐름을 간략히 소개한다.
3	기억으로의 부름	– 음악과 영상을 함께 흐르게 한다. – 영상에는 자서전의 문장과 생애사 사진이 시간 순서대로 제시된다. – 참여자들은 화면에 나타나는 자서전과 사진을 조용히 함께 읽고 바라본다.
4	몸의 공명	– 참여자들이 익숙한 찬송을 함께 부른다. – 찬송의 의미 해설은 생략하며, 언어 이전의 집단적 기억과 정서적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데 초점을 둔다.
5	성서 본문 낭독	– 창세기 47 장 9 절을 소리 내어 낭독한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내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나이다. – 본문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은 제공하지 않으며, 야곱의 고백이 각자의 생애와 나란히 놓이도록 한다.
6	침묵과 호흡의 기도	– 본문 낭독 후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 이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말씀이 기억과 만날 시간을 허락하는 예전적 침묵이다. – 중보나 요청 기도 대신 호흡과 침묵에 집중하며, 말하지 않아도 되는 예배 공간을 형성한다.

7	식탁의 재배치[159]	– 성찬은 교리적 설명보다 함께 먹고 나누는 경험에 초점을 둔다. – 노년 참여자와 함께 참석한 자녀, 젊은 세대도 식탁에 동참한다. – 참여자들은 미리 정해진 빵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신앙 경험을 상징한다고 느낀 빵을 준비해 온다.[160] – 각자는 돌아가며 빵을 식탁에 올려놓고, 그 빵을 선택한 이유를 간단히 나눈다. – 이를 통해 성찬은 하나의 의미로 규정되지 않고, 다양한 기억과 해석이 나란히 놓이는 열린 구조로 경험된다.[161]
8	언어 이전의 치유	– 각 참여자가 앉은 탁자는 흰 천으로 덮여 있다. – 사회자는 다양한 꽃 중 한 송이를 중앙 꽃병에 꽂는다. – 참여자들은 꽃을 바라보며 각자가 그 꽃의 이름을 새롭게 짓는다. – 꽃 그림이 인쇄된 카드를 나누어 주고, 참여자들은 떠오르는 이름을 적는다. – 익숙한 이름이 유보되며,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열린다. – 이 과정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피아노 연주가 잔잔히 흐른다.
9	마침 기도와 축복	– 변화나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 축복으로 예배를 마친다. "험한 세월을 살아온 삶도 하나님께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10	파 송	– 조용히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일상으로 돌아간다.

2 주차 예배는 기억을 의미화하거나 신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해석이 잠시 지연되는 문턱의 예전으로 기능한다. 이 예배를 통해 참여자들은 신앙이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동체 안에서 머무름 자체가 신앙의 실천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이후 3 주차에서 이루어질 공동체적 해석과 재구성이 논쟁이나 교정이 아닌 공명으로 전환될 수 있는

159 Leonard Sweet, *From Tablet to Table 태블릿을 넘어 테이블로*, trans. 장택수 (고양: 예수전도단, 2015), 18.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예수의 식탁 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식탁은 우리의 정체성이 탄생한 자리이자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재생되고 기억되고 경험되는 장소라고 말했다.

160 김남중, "Class Presentations: Healing Service Design." 김남중은 수업 중에 이머징 예배를 비롯한 현대에 맞게 해석된 예배를 소개했고, 나는 성찬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161 Sweet, *From Tablet to Table 태블릿을 넘어 테이블로*, trans. 장택수, 16–20.

토대를 마련한다. 아래〈표 17〉에 제시하였다.

〈표 17〉 2 주차: 삶의 문턱에서 숨을 쉬다

순서	제목	진행 내용
1	준비와 찬양	-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서로 인사를 나눈다. - 자서전과 사진을 각자의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는다. - 이 예배는 설명이나 토론이 목적이 아님을 미리 안내한다.
2	여는 말	- 사회자는 '오늘 우리는 삶을 해석하거나 정리하기보다, 다시 읽기 위해 모였다'고 짧게 선언한다. - 참여자들을 평가자나 해석자가 아닌 '동행자'로 초대한다.
3	기억의 재열림	- 잔잔한 음악과 함께 자서전 페이지와 생애사 사진을 화면에 순서대로 띄운다. - 참여자들은 말없이 자서전과 사진을 함께 읽는다.
4	경청의 공명	- 익숙한 찬송을 함께 부르되, 의미 설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 이는 말보다 먼저 몸과 정서가 반응하도록 돕는 예전 행위이다.
5	성서 본문 낭독	- 야고보서 1 장 19 절을 소리 내어 낭독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 처음에는 사회자가 본문을 낭독하며, 본문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세 번째는 모든 참여자가 함께 읽는다.
6	자서전 본문 낭독	- 한 참여자의 자서전 중 한 단락을 진행자 또는 다른 세대 참여자가 소리 내어 읽는다. - 자서전 주인공은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고, 타인의 목소리로 다시 듣는다.
7	해석의 문턱 – 재청취의 질문	- 사회자는 자서전 주인공에게 다음 질문만을 던진다.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니, 예전에 읽을 때의 마음과 지금 이 자리에서 읽는 마음 사이에 달라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 이 질문은 판단이나 결론이 아닌 재해석을 돕기 위한 것이다.
8	침묵과 머무름	-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 참여자들은 나눔을 강요받지 않으며, 말해지지 않은 감정 또한 존중된다. - 이 과정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피아노 연주가 잔잔히 흐른다.

9	마침 기도와 축복	– 변화나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 축복으로 예배를 마친다. 오늘 우리는 삶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시 읽힌 이 삶은 아직 닫히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열린 자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10	파 송	– 조용히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일상으로 돌아간다.

3 주차 예배의 목적은 1 주차에서 열린 기억과 2 주차에서 유보된 해석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 대화(relational dialogue)를 통해 다시 말해지고, 그 해석이 교정이나 평가가 아니라 축복(blessing)의 형태로 승인되도록 돕는 데 있다. 아래〈표 18〉에 제시하였다.

〈표 18〉 3 주차: 삶이 해석되다

순서	제목	진행 내용
1	준비와 찬양	– 잔잔한 음악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눈다. – 참여자들은 지난 주에 사용한 자서전과 사진을 각자의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 오늘 예배는 결론이나 판단이 아니라 관계적 감각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안내한다.
2	여는 말	–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예배를 연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정리하거나 결론 내리기보다, 서로의 삶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다시 들리기 시작했는지를 관계 속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3	관계로의 부름	– 옛 시대의 생활상을 담은 영상과 함께 잔잔한 음악을 흐르게 한다. – 참여자들은 화면을 보며 말없이 그 시대의 정서와 기억에 머문다.
4	침묵 – 기억과 해석 사이에 머무르기	–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 이는 해석을 준비하는 침묵이 아니라, 기억과 해석 사이의 문턱에 머무는 예전적 침묵이다.
5	성서 본문 낭독	– 누가복음 24 장 30–32 절을 소리 내어 낭독한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 본문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은 제공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사회자가 본문을 낭독하며, 본문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세 번째는 모든 참여자가 함께 읽는다.
6	관계적 대화	– 사회자는 다음 질문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은 이후, 나는 무엇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누군가의 삶이 새롭게 다가온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 이 나눔은 해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감각의 변화를 말하도록 안내한다.
7	해석의 축복	– 관계적 대화 이후,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해석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해석들은 서로의 삶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공동체의 약속 안에서 축복입니다.
8	파 송	– 사회자는 다음의 파송의 말을 전하며 예배를 마친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들은 만큼, 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적 감각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 예배가 지닌 의도와 연구적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과 나눔의 내용이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이에 대해 참여자들의 구두 동의를 얻었다. 아울러 연구의 맥락과 참여자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적 사항이 연구 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다. 프로그램은 약 1 시간 10 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참여자들이 함께 공간을 정리하며 마무리되었다. 노년 참여자들은 익숙하게 드나들던 공간이 예배를 위해 새롭게 배치된 모습을 접하며 낯섦과 호기심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며 변화된 분위기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자녀 세대는 이러한 공간 변화 자체를 흥미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준비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부모에게 설명하거나 질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노년 참여자들에게는

약간의 긴장과 조심스러움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는 이러한 흐름이 과도한 긴장이나 어색함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순서지를 준비하여, 예배의 전체 흐름과 함께 '서로를 듣는 말씀'에 사용된 성경 구절, '서로를 듣는 찬양'의 가사, 그리고 서로에게 전해질 꽃의 의미를 간단히 안내하였다.



〈성서 본문이 새겨진 꽃 해석카드〉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예배순서지 바구니〉

노년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자서전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읽혀 지는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도 보였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혹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염려가 조심스러운 태도로 드러났다. 또한 자서전, 빵, 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도록 요청받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잠시 침묵하거나 말을 망설이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예배가 진행되면서, 해석이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구조 안에서 참여자들의 태도는 점차 완화되었다. 자서전이 설명 없이 읽혀 지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판단 없이 놓이는 경험이 반복되자, 참여자들은 점차 공간에 머무르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데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자연스러워졌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방어하지 않고도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표 19〉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 진술 사례

진술
[프로그램 참여자 B] 처음에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으로 읽혀진다는 게 조금 불안했어요. 그런데 계속 진행되는 동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D] 자서전을 읽는 시간에는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그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것 같아서 듣고 있는 저도 편안해졌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F] 꽃을 만지고 이름을 적는 시간이 인상 깊었어요. 말 로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 제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위와 같은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로그램 초반에 관찰되었던 어색함과 긴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완화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서로의 삶을 설명하거나 정리하려 하지 않고도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이 자리에 조금 더 머물고 싶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였고, 또 다른 참여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반응들이 특정한 메시지나 교훈의 결과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해석이 유보된 구조 안에서 관계적 반응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과로 이해하였다. 아래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자료로 첨부하였다.





〈각자 준비한 빵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과정〉

〈자서전을 읽고 귀로 듣는 시간〉





〈해석 카드와 성찬 붕어빵〉

〈자서전을 함께 읽고 듣는 시간〉





〈꽃을 들고 즐거워하는 노인과 청년〉

〈기도와 침묵의 시간〉



〈같은 꽃, 열린 해석과정〉



〈오감을 통해 열린 해석이 공존하는 과정〉

5. 프로그램 참여자 피드백

〈표 20〉 치유 예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피드백

프로그램 참여자	내용
참여자 A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라벤더 향이 느껴지면서 예배 전에 먼저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배 공간에서 향기를 맡고 꽃을 직접 만지고 비벼보는 경험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꽃에 새 이름을 붙여도 된다는 안내를 듣고, 정해진 해석이 없다는 점이 가장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제가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경험을 하였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판단 없이 들어주시는 분위기 속에서 말해도 괜찮겠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꽃과 향기의 기억이 오래 남아 집에 돌아간 후에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참여자 B	성찬이라고 하면 늘 같은 빵만 떠올렸는데, 각자가 서로 다른 빵을 가져와 나누는 방식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삶을 거칠고 투박한 빵에 비유했을 때, 그 이야기를 좋게 받아주시는 반응을 통해 삶의 모습이 달라도 괜찮다는 인정을 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서전을 쓰며 '그때의 저'를 다시 만난 경험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제가 다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이야기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으셔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참여자 C	붕어빵을 준비하며 오병이어 이야기가 최초의 성만찬이라는 개인적인 해석을 나누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설명하거나 변명했을 이야기였지만, 여기서는 그 생각을 그대로 들어주셔서 편안했습니다. 라벤더 향이 예배 전부터 긴장을 풀어주었고, 자서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방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 공간에서는 밀려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여자 D	꽃 카드에 장미의 이름을 '빨간 엉덩이'라고 적으며,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엉덩이를 토닥여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개인적인 기억이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웃으며 받아주셔서 마음이 풀렸습니다. 자서전을 통해 인생을 한 번에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고,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제가 서로 말을 건네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그 여운이 오래 남았습니다.
참여자 E	입구에서부터 느껴진 향기 덕분에 공간 자체가 일상과 다르게 인식되었습니다. 빵을 고르며 '저는 어떤 빵일까'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말로 삶을 정리하지 않아도 하나의 상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서전을 읽으면서 노년 참여자분들의 말씀이 주장이나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생애 이야기로 들렸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구조 덕분에 중간에 판단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F	꽃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도 된다는 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늘 정해진 의미를 따라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불러도 괜찮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세대통합 자서전이라는 말이 실제로 체감되었고, 향기와 빵, 꽃 같은 감각적 요소들이 대화를 날카롭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G	예배가 끝나면 보통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는데, 이번 경험은 집에 돌아간 뒤에도 자서전과 나눔의 내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 번에 해석이 끝나지 않고 한 주 동안 곱씹게 되었으며, 2 주차와 3 주차로 이어지면서 처음의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오히려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참여자 H	처음에는 노년 세대를 비슷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서전을 읽고 당시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한 분 한 분을 서로 다른 생애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말씀의 내용보다 그분 자체가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자 I	이전에는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지만, 자서전과 빵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살아오셨구나'라는 이해가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이야기를 바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었고, 판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참여자 J	예배 중에 바닷가 파도 소리나 새소리, 시골에서 들릴 것 같은 소리들이 흘러나왔는데, 그 소리를 듣다 보니 노년 참여자분들이 살았던 시대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마치 제가 그 시간과 장소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머리로 이해하기기보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설교가 길어지면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이번 예배에서는 설교 대신 성경을 같이 읽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또렷해졌어요. 말이 많지 않으니까 생각이 흩어지지 않았고, 들은 이야기와 소리들이 제 안에서 천천히 이어지면서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참여자 K	할머니의 자서전 사진을 준비하면서, 할머니가 어떤 시간을 살아오셨는지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오래된 사진이라고만 느꼈는데, 하나씩 보면서 그때의 할머니 모습과 지금의 할머니가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다른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이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설교를 들으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이번 예배에서는 성경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서 좋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생각이 더 잘 되었고, 할머니 사진과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함께 떠올랐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그 장면들이 계속 생각에 남았습니다.
참여자 L	할아버지 자서전이랑 사진을 엄마와 같이 준비하면서, 할아버지를 그냥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게 되었어요. 예배가 끝난 뒤에도 그 생각이 계속 남아 있었고, 집에 가서도 할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두 번째로 다시 참여했을 때는 같은 자서전인데도 처음이랑 다르게 느껴져서 신기했고, 새로운 생각이 생겼어요. 평소에 설교를 들으면 지루해지거나 다른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서 오히려 집중이 잘 됐어요. 말이 많지 않아서 제 생각을 천천히 해볼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좋았어요.

6. 프로그램 결과 해석

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 변화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 인터뷰와 피드백에서 나타난 감정 표현과 핵심 단어들을 추출하여 단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감정 단어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 특정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를 워드 클라우드[162] 형태로 시각화 하였다. 다음 그림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감정 단어의 빈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감정 단어 빈도 분석



분석 결과, ‘공감’, ‘이해’, ‘편안함’, ‘존중’, ‘따뜻함’ 과 같은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과 ‘이해’는 세대 간 관계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감정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노년 세대의 삶의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서 경청 되는 가운데 정서적 긴장이 완화되고 관계적 이해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제안한 ‘해석의 공간’이 실제 참여자 경험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생성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프로그램 과정에서 진행된 자서전 낭독, 상징의 재해석, 침묵과 묵상의 확장, 오감의 동원은 참여자들에게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관계를 재해석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동일한 자서전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감정과 해석이 생겨났다고

[162]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는 참여자 진술이나 텍스트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의 빈도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더 크게 표시되어 참여자 경험에서 나타난 주요 의미와 감정 표현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https://www.wordclouds.com 통해 자료를 얻었다.

진술하였는데, 이는 신앙 경험이 단번에 완결되는 의미 체계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계속 재해석되는 공동체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노년 세대를 중심의 해석 틀로 끌어올리거나 기존 신앙을 수정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강남순이 제시한 이중의 시선(double model of seeing)를 예배의 장 안에 구현하려는 실천이다.[163] 노년 세대는 오랫동안 교회와 사회 안에서 보호와 관리, 교정과 위로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며 해석의 객체로 위치 지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예배 구조 안에서 그들은 더 이상 설명되어야 할 과거가 아니라, 신앙과 사회를 해석하는 현재의 주체로 다시 호명되었다.[164]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의 문턱(threshold)구조가 실제 공동체 경험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생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말하고,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다시 듣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서로의 삶을 이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노년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 경험을 해석하는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프로그램은 노년 세대의 공적 신앙 실천을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신앙적 공간을 형성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노년 세대의 공적 신앙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판단하기보다, 그 신앙이 형성되어 온 학습 구조와 의미 체계를 성찰하는 실천신학적

---

[163] Kang, "Cosmopolitan Leadership: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a World of Glocal Conflicts."

[164] Kang, "Cosmopolitan Leadership: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a World of Glocal Conflicts." 강남순이 제안하는 '이중의 시선(double model of seeing)'은 현실을 단일한 시선으로 해석하지 않고, 지배적 시선과 주변적 시선을 동시에 유지함으로써 의미의 조기 종결을 거부하는 해석 윤리를 요청한다. 이는 해석 이전에 머무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배제되어 온 삶의 경험이 해석의 주체로 다시 서게 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교회의 과제가 특정 신념을 바로잡는 데 있기보다, 질문과 해석이 가능해지는 신앙 학습 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데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 질문들에 대한 통합적 응답을 제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년 세대의 신앙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목회적 시사점과 실천적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를 정리하고, 연구 과정 속에서 경험된 연구자의 성찰을 통해 본 연구의 실천신학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Chapter V

결론 (Conclusion)

A. 연구질문에 대한 응답

본 연구는 서론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제기하였다. 첫째,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의미화하고 내면화하는가? 둘째, 이 내면화 과정에서 에이지즘과 반공주의는 어떤 인지적, 정서적, 신학적 역할을 하는가? 셋째, 이러한 내면화는 교회 공동체 내 세대 갈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갈등은 어떤 방식으로 심화 혹은 변화하는가? 각 연구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의 태극기와 성조기 내면화가 단순한 정치적 호감이나 일회적 선택이 아니라, 생애사적 경험과 신앙 학습과 예배화된 공적 공간이 중첩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신앙적 의미 구성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전쟁과 분단, 가난과 재건의 기억은 '하나님의 보호'와 '국가 재건'의 서사와 결합하여 노년 세대의 기억 챔버를 형성하였고, 교회와 집회에서 반복된 설교와 찬송, 기도, 국기 흔들기 등의 예배적 수행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구원과 보호 그리고 사명의 상징으로 학습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반복 학습은 결국 국가 상징을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신앙 언어로 의미화하고, 이를 신앙 정체성의 일부로 체험하게 하는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로 수렴되었다.

둘째 질문과 관련하여 에이지즘과 반공주의는 이 내면화 과정을 단순히 돕는 보조 요인이 아니라, 의미 형성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으로 에이지즘은 '쓸모없다',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사회적, 교회적 메시지를 통해 노년 세대를 주변화하고, 자기연령주의를 통해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상실과 주변화 경험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

‘마지막 사명’을 찾으려는 정서적 욕구를 강화했고, 이는 국가 상징과 공적 신앙 실천에 대한 강한 헌신으로 이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반공주의는 어린 시절 교육, 교회 설교, 국가 담론을 통해 ‘공산주의 = 하나님의 적’이라는 절대 명제로 내면화되었다. 그 결과 반공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신앙적 틀 속에서 이해되었고, 태극기와 성조기는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신앙적 무기이자 성물(sacred objects)로 의미화되었다. 에이지즘이 ‘마지막 사명’의 정서적 토양을 제공했다면, 반공주의는 그 사명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해석의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상징 내면화를 강화하는 이중 구조를 형성했다.

셋째 질문에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 상징 내면화가 교회 공동체 내 세대 갈등을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신앙–학습 구조의 충돌로 심화시키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노년 세대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는 ‘전쟁과 생존의 기억’, ‘하나님의 보호’, ‘나라와 교회를 지켜온 신앙의 증거’와 결합된 상징인 반면, 젊은 세대에게는 민주주의, 인권, 정치적 다양성의 언어가 더 익숙한 해석의 지평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예배와 집회, 설교 구조는 여전히 질문보다 응답을, 대화보다 동원(mobilization)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닫혀 있어, 서로 다른 해석의 지평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노년 세대는 자신의 신앙적 확신이 의심받고 있다고 느끼며 방어적으로 공명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는 노년의 신앙을 ‘왜곡된 정치 신앙’으로 간주하며 거리를 두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상호 불신과 이해 불가능성은, 세대 갈등을 정치적 입장 차이가 아니라,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와 열려 있는 신앙–공론 구조 사이의 충돌로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종합하면, 급격한 공명(NECK)은 특정한 메시지 때문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질문과 해석이 차단된 학습 구조 속에서 신앙과 국가 상징이 반복적으로 결합되며 증폭된 결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의 태극기와 성조기 내면화 현상이 단순한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 생애사적 기억, 에이지즘과 반공주의, 예배와 집회라는 학습 구조가 결합하여 형성된 신앙적 의미 구조임을 밝혔다. 또한 이 구조가 질문과 해석의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세대 간 신학적 대화와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적인 신학적 응답은, 노년 세대의 신앙을 교정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신앙이 형성되고 내면화되는 학습 구조 자체를 재구성함으로써,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를 질문과 경청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실천신학적 과제가 요청된다는 데에 있다.

B. 목회적 시사점과 대안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의 국가 상징 내면화 현상과 세대 간 갈등이 단순히 '노인들의 신앙 문제'나 '정치적 편향'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은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신앙 학습 구조, 해석의 조건, 그리고 예배적 실천의 패턴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회적 접근은 노년 세대를 변화의 대상으로 삼거나 신앙 내용을 교정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신앙이 형성되고 내면화되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성찰하고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 질문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본 연구의 실천신학적 통찰은 다음의 세 가지 방향 전환을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한다.

1. 노년 세대를 조정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해석자이자 주체로 재인식하기

그동안 한국 교회는 노년 세대를 목회적 돌봄과 보살핌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거나, 때로는 갈등의 원인 혹은 교정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가 드러낸 바와 같이,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은 생애사적 경험, 사회적 배제, 예배적 몸의 학습, 그리고 반복된 설교 구조 속에서 형성된 해석의 결과다. 따라서 목회는 노년 세대가 이미 지니고 있는 경험과 해석 능력을 존중하고, 이들을 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자원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는 노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 주입(imposition)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이 공동체의 신학을 넓히는 기여로 재조명되는 목회적 전환을 의미한다.

2. 질문과 대화가 가능한 신앙 학습 구조로의 전환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예배와 설교, 교육 구조가 질문과 비판적 성찰을 허용하지 않는 닫힌 학습 구조를 만들어 왔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해석을 절대화하고 반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신앙과 국가 상징이 비판 없이 결합되는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목회적 시사점은 '무엇을 더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신앙이 어떻게 배우도록 구조화되어 왔는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전환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질문과 대화가 가능한 신앙 학습 구조적 전환

·대화와 참여적 교육으로의 이동 ·해석 공동체 형성 ·질문과 토론을 신앙 성숙의 요소로 인정하는 예배와 설교 구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노년 세대를 향한 '재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학습 방식이 다시 열리는 사건을 목표로 한다.

3. 예배화된 공적 공간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감수성 회복

집회 현장이 예배적 구조를 모방하고, 찬송, 기도, 구호, 상징 수행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는 현상은 단지 정치적 동원(mobilization)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몸과 감정의 리듬 속에서 형성되는 방식을 보여 준다. 따라서 목회는 '집회 참여를 하지 말라'고 교정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왜 공적 공간이 예배의 자리처럼 느껴지며, 왜 그 공간이 노년 세대에게 의미와 역할과 정체성을 제공하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

〈표 22〉공적 공간의 신학적 전환

·예배가 일방향적 전달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성, 참여성, 해석적 성찰이 살아 있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공적 신앙 실천(기도, 연대, 정의)을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신앙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제 2 의 성찰 공간으로 재위치 시켜야 한다. ·노년 세대의 공적 신앙 실천을 '교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학적 사건'로 바라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목회적 시사점을 토대로 노년 세대의 기억을 신앙 안에서 치유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목회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나는 '노년 세대의 기억 치유 기도회(Healing Prayer Gathering for Elderly Believers)'를 구성하여 특별 기도회 형식으로 교회 현장에서 시행하였다. 노년 세대의 신앙을 이해하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설득이나 교육을 넘어, 그들의 기억을 신앙 안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치유적 예배 공간이 필요하다. 이 기도회는 노년 세대를 교정하거나 설득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하고 존중하는 영적 공간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의 삶을 하나의 역사적, 신앙적 이야기로 경청하도록 돕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배 구조는 세대 간 갈등을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루기보다,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석하고

살아가는 과정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목회적 실천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노년 세대의 기억 치유 기도회'는 특정한 효과를 검증하거나 일반화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신앙 형성 구조에 대한 실천적 응답으로 시도된 하나의 탐색적 실험이다.

이 프로그램은 노년 세대의 신앙이 형성되는 구조를 교정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개입이라 규정하기보다 그들이 자신의 기억과 신앙을 다시 이야기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실천적 시도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며, 특정한 결과를 입증하려는 연구 설계 또한 포함하고 있지 않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피드백과 변화의 징후들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통제된 조건 속에서 검증된 결과라고 규정하기보다 특정 맥락에서 나타난 경험적 반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효과가 입증된 모델이라고 이해하기보다 노년 세대의 신앙 경험을 이해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안되는 실천적 실험이라 할 수 있다. 기도회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피드백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C. 후속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의 국가 상징 내면화 과정을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몇 가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세대 간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노년 세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동일한 국가 상징과 신앙 언어가 다른 세대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의미화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청년 세대는 노년 세대와는 상이한 사회적 조건과 미디어

환경, 그리고 신앙 형성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신앙 형성 과정과 의미 구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는 한국 교회 내 갈등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회 유형과 신학적 전통에 따른 차이를 다루는 연구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주로 보수적 복음주의 교회 배경을 지닌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교회 유형과 신학적 전통 속에서 신앙과 국가 상징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진보적 교회, 대형 교회, 농촌 교회, 이민 교회 등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동일한 상징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거나 재해석되는지를 탐색하는 연구는, 신앙 의미 체계가 교회 문화와 예배 구조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조정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년기 신앙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추적하는 종단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노년기의 신앙 실천과 정체성 형성은 단일 시점에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은퇴, 상실, 건강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와 같은 삶의 전환을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노년 세대의 신앙과 정체성, 그리고 국가 상징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연구는, 신앙을 고정된 신념이 아니라 과정적이고 서사적인 실천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D. 연구자의 갈등 치유와 회복에 대한 성찰

나는 약 10 개월에 걸친 관찰 일지와 현장 참여를 통해 노년 세대 크리스천들을 가까이에서 만났다. 그들과 함께 걷고, 노래하고, 깃발을 흔들며, 때로는 비를 맞고 넘어지는 순간까지 함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본 연구가 노년 세대를 비난하거나 교정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노년을 문제로 규정하지 않으며, 그들의 신앙을 단순히 수정해야 할

대상으로도 보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이미 공명하고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신학적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지를 묻고자 했다. 목회 현장에서 나는 노년 세대의 공적 실천을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으며, 그 감정은 때때로 내 안에서 갈등으로 되살아나곤 했다. 하지만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그 감정의 이면에는 설명되지 않은 이해의 빈자리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의 언어와 몸짓을 경청하는 과정, 그들의 기억과 상실, 신앙적 몸의 수행을 탐색하는 과정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던 오해와 단정이 서서히 이완되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자료 분석이 깊어질수록, 갈등의 원인은 특정 세대의 성향이나 개인적 태도가 아니라 '질문과 해석이 막혀 있는 학습 구조'에 있음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 이 연구의 방향이 '해석'과 '구조'로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지도교수들의 중요한 동반이 있었다. 김용환은 연구 초기, 노년 세대의 집회 참여를 현상 보고 차원에서 설명하려 했던 나의 접근을 실천신학적 질문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짚어 주며, 노년 세대를 문제의 원인이나 관리의 대상으로 환원하기보다 그들의 신앙이 형성되어 온 해석 구조 자체를 묻는 연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가다듬어 주었다.[165]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판단과 교정의 언어가 아니라, 이해와 해석의 장을 여는 실천신학적 과제로 자리

[165] 김용환, "Aging, Ageism Generational Conflict." 김용환은 노화의 본질과 노년기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제도적 차원에서 노인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에이지즘(ageism)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비판적으로 탐구했다. 또한 노화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개념을 검토하고, 노년기의 인생주기와 삶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노년을 단순한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신앙과 의미가 재구성되는 생애 단계로 조명했다. 이러한 학습은 한국 노인들의 삶의 현실과 문화적 조건을 고려한 목회 돌봄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데로 이어졌으며, 세대 간 갈등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기보다 구조적, 문화적 문제로 인식하고 돌봄과 치유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이끌었다. 본 연구의 해석 중심 전환은 김용환 지도교수의 연구 지도 과정에서 제기된 실천신학적 문제의식—노년 세대를 문제의 원인이나 교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그들의 신앙이 형성되어 온 해석 구조와 학습 조건을 질문해야 한다는 제안—에 영향을 받았다.

잡을 수 있었다. 또한 김남중은 예배를 전달 중심의 단일한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다양성 속에서 신앙이 학습되고 체화되는 구조적 장으로 이해하도록 이끌며, 그의 수업에서 현대 예배를 참여적(participatory)이고 비언어적(image-rich)이며 관계를 형성하는(connective) 실천으로 경험하게 하였다.[166]

이러한 예배 이해는 예배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말과 침묵, 몸과 상징을 통해 신앙이 해석되고 형성되는 학습 구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구조 개입—예배의 진행과 참여 방식, 상징의 사용—이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니라 신앙 형성 조건 자체의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었다. 이러한 다듬어짐의 과정 속에서, 나는 노년 세대를 설명하거나 교정하는 논문이 아니라, 교회의 학습 구조를 성찰하는 실천신학적 연구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다.

지도교수들의 동반 속에서 본 연구가 '해석'과 '구조'라는 방향을 분명히 하게 되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시선 또한 점검하게 되었다. 연구의 진전이 단지 자료의 축적이나 분석의 정교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연구 과정은 늘 연구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 거울 앞에서 나는 나의 판단, 감정, 목회적 반응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나 자신에게 새로운 자유를 허락했다. 나는 더 이상 노년 세대의

[166] 김남중, "Healing and Transformation through Preaching and Worship" (lectur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May 27–31, 2024). 김남중의 수업은 본 연구가 '구조'라는 개념을 예배와 신앙 형성의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그의 수업에서 예배와 설교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 행위가 아니라, 참여적이고 상징적이며 반복을 통해 신앙이 학습되고 체화되는 실천 구조로 이해되었다. 특히 전통 예배와 현대 예배를 포함한 다양한 예배 양식을 분석하고, 예배와 설교를 치유와 변화를 의도하는 실천으로 설계, 수행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은, 본 연구가 공적 집회 공간을 하나의 '유사-예배적 학습 장'으로 해석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나는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 변화보다,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되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이 신앙 형성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본 연구가 구조적 개입과 해석의 전환을 논의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행동을 교정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적 몸짓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정체성 회복의 여정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연구자로서의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목회자로서의 나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특히, 예배를 전달이 아니라 학습 구조로 이해하는 관점에 눈이 열리면서, 나는 교회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게 되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허용되고 해석이 열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회의 본질적인 과제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연구 초기의 긴장과 답답함을 치유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 여정은 나의 목회적 정체성에 깊은 회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노년 세대를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언어를 다시 찾으려 애쓰는 영적 동행자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변화는 연구 결과 이상의 은혜였다. 이 성찰적 전환을 통해, 나는 갈등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갈등이 드러내는 구조와 그 뒤에 숨은 상실을 함께 바라볼 용기를 배우게 되었다.

나는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노년 세대의 공적 실천을 비교적 단순한 신념의 문제, 혹은 개인적 보수성의 결과로 이해해 왔다.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세대 갈등은 때로 답답함과 판단의 언어를 불러일으켰고, 국가 상징을 흔드는 노인들의 모습은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며 현장을 직접 걷고 관찰하고, 그들의 발화와 몸짓, 상징 수행의 결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과정에서 나는 노년 세대를 바라보던 나의 기존 시선이 얼마나 단순했고 제한적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관찰과 면담을 통해 쌓여 간 자료는 노년 세대의 신앙이 결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사적 기억과 신앙 학습 구조 그리고 사회적 주변화가 중첩되며 형성된 의미 구조임을 보여주었다. 전쟁과 분단의 공포, 반공주의의 반복 학습, 은퇴 이후의 상실감, 교회 내 주변화 경험,

그리고 예배화된 공적 공간에서의 반복된 몸의 수행이 서로 얽히며 강한 공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른바 '닫힌 신앙 – 국가 의미 체계'는 그들의 성향을 평가하거나 교정할 문제가 아니라, 질문과 해석이 차단된 학습 구조 안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된 결과였다.

이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나에게도 깊은 변화를 요구했다. 나는 연구자이자 목회자로서, 그동안 노년 세대를 '변화시켜야 하는 대상', 혹은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집단'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나는 노년 세대가 자신들의 신앙을 몸으로, 상징으로, 반복으로 수행하는 장면들을 마주했다.[167] 누군가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손에서 깃발을 놓지 않았고, 누군가는 걷다 잠시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대열에 합류했다.[168] 또 누군가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데 여기 오면 숨이 트인다'고 말했다.[169] 그 말 한마디는 내게 공명이 단지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결핍과 소외, 그리고 회복을 매개하는 구조의 문제일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

어떤 노인은 '깃발을 흔드는 것이 기도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여기는 집회가 아니라 예배의 또 다른 자리'라고 말했다.[170] 이 세 장면은, 노년 세대가 단지 무엇인가에 설득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학습된 방식—응답, 반복, 동조, 상징 수행—을 통해 자신을 다시 확인하고 존재를 회복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걸음을 함께하며, 그들이 경험한 상실과 두려움, 신앙적 몸짓 뒤에 자리한 긴 내면의 여정을

[167] 본 문장은 공적 집회 공간에서 이루어진 참여관찰을 종합한 해석으로, 관찰 일지 #1–8 호 전반에 근거한다.

[168]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깃발을 놓지 않거나, 걷다 잠시 주저앉았다가 다시 대열에 합류하는 장면은 관찰 일지 #1 호와 #6 호에 기록된 사례에 근거한다.

[169]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데 여기 오면 숨이 트인다'는 발언은 관찰 일지 #2 호에서 기록된 현장 대화에 근거한다.

[170] '깃발을 흔드는 것이 기도이며 신앙 고백이다', '여기는 집회가 아니라 예배의 또 다른 자리이다'라는 진술은 관찰 일지 #2 호와 #4 호에 기록된 참가자 발화에 근거한다.

마주하면서, 내 안에 있던 판단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나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를 묻던 자리에서, '어떤 구조 속에서 저런 공명이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갔다. 이 전환은 단순한 이해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이 서 있던 해석의 지평이 이동하는 경험이기도 했다.

이제 나는 노년 세대를 더 이상 문제의 원인이나 교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의미를 찾기 위해 애쓰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확인하려는 깊은 영적 몸부림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이다. 그들의 공명은 단순한 이념적 반응이 아니라, 잃어버린 정체성과 소속을 회복하려는 신앙적 몸의 기억이다. 변혁적 통찰은 나의 목회적 관점도 새롭게 열어 주었다. 교회의 과제는 노년 세대를 설득하거나 재교육하는 데 있지 않았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구조'였다.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예배 구조, 일방향적 설교 전달 방식, 신앙 언어와 국가 언어가 구분 없이 결합되는 학습 환경 속에서, 이미 형성된 공명의 구조는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틀린 내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해석의 구조 자체를 열어 주는 일, 즉 신앙이 다시 질문 되고 해석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연구는 결국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여정이기도 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나는 노년 세대의 공적 신앙 실천을 바라보던 기존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과 신앙을 이해하려는 더 깊은 자리로 옮겨 앉게 되었다. 나는 이제 그들을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성찰해야 할 신앙의 거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영적 주체로 바라본다. 노년 세대에 대한 나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나는 그들을 이념의 사람들로 보지 않고, 기억의 사람들, 상실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애쓰는 신앙의 사람들로 본다.

이 변혁은 연구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나는 소망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시선이 나만의 변화로 머물지 않고, 한국 교회가 노년 세대를 다시 바라보는 눈을 열고, 갈등을 새로운 이해와 해석의 자리로 전환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갈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갈등을 질문하고 성찰하는 구조가 열릴 때,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거시적 논의를 했다고 해서 거시를 사는 존재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여전히 미시의 자리에서, 작은 열쇠를 들고 큰 문 앞에 서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미시의 세계가 거시의 세계로 연결되듯, 교회의 학습 구조를 여는 작은 시도는 공동체 전체의 신앙 언어를 바꿀 수 있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 노년 세대를 비난하거나 타자화 하는 시선을 내려놓고, 그들이 형성되어 온 구조를 성찰하는 시선으로 전환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다시 되뇌었다. 갈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갈등을 질문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부끄러울 뿐이다. 또한 이론 자체는 선악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나는 공명(NECK)이라는 개념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교회가 더 깊이 성찰하고 더 안전한 학습 구조를 열기 위한 언어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다시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의 차이를 묵상한다. 연구는 관찰과 분석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구가 실천으로 이어질 때, 신앙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이 된다.

그래서 나는 성서가 말하는 바를 이 연구의 마지막 문장에 붙잡고 싶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개역 성경, 야고보서 1:19). 이 말씀은 세대 갈등의 한복판에서 교회가 먼저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더 많이 말하기보다 더 깊이 듣는 구조, 즉각 판단하기보다 해석을 유보하는 구조, 분노를 증폭시키기보다 경청을 학습하는 구조가 요청된다. 노년 세대가 자신들의 생애사와 기억, 상실과 소외를 다시 말할 수 있고, 젊은

세대가 그 발화를 비난이 아니라 경청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열리기를 바란다. 국가 상징이 더 이상 단일한 의미로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긴장 속에서 질문 되고 재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도한다. 신앙과 복음으로 씨름하는 모든 교회 현장에서, 서로가 반목하고 단절되는 곳에도, 그리고 세대 갈등과 사회적 분열의 고통 앞에도, 치유와 회복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한다. 공명의 폭주가 더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먼저 학습 구조를 열고 해석의 장을 회복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 길에서 상호의존과 공존은 규범의 구호가 아니라, 해석과 경청이 가능해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관계의 열매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침내 이 작은 걸음들이 더 큰 물결을 이루어, 한국 교회가 갈등을 파괴가 아니라 치유의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이지점에서 나는 다시, 이 연구의 결론이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마지막 방향은 특정 공동체 윤리나 이상적 관계 모델을 규범적으로 선언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본 연구는 공명이 형성되고 증폭되었던 학습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실천신학적 시도를 요청한다. 즉,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학습하게 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이다.

예배와 설교, 소그룹 모임, 공적 신앙 실천과 같은 기존의 학습 장면 속에 질문과 해석이 허용되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참여 방식의 변화—발화의 주체, 침묵의 양상, 몸의 반응, 상징 사용, 신앙 언어의 재구성—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공명이 완화되거나 전환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시험하는 것이다. 이 실천은 노년 세대의 신앙을 교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신앙이 형성되는 조건을 재배열하려는 실험이며, 그 과정에서 상호의존과 공존의 가능성이 열리는지를 평가하는 길이 될 것이다.

부록 A: 현장 관찰 일지[171]

(Appendix A: Observation Journal)

본 부록에 수록된 관찰일지는 본 연구에서 생성된 1 차 질적 자료(raw data)이다. 연구의 투명성과 자료의 맥락 보존을 위해 해석 이전의 원문을 편집 없이 제시하였으며, 본문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일부 장면과 발화를 선별적으로 인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익명 처리되었다.

#1 관찰일지

<table>
<tr><th>Date / 날짜</th><th>Time / 시간</th><th>Location / 장소</th><th>Weather / 날씨[172]</th></tr>
<tr><td>2025 년 1 월 25 일 (토)</td><td>오후 1 시 – 4 시</td><td>광화문 광장</td><td>최저기온 0° C
최고기온 9° C</td></tr>
<tr><td colspan="4">관찰자: 이규운</td></tr>
<tr><td colspan="4">1.현장 개요
2025 년 1 월의 매서운 찬바람 속에서도 광화문 일대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노년층 참가자들이 1 만 명 정도 모여 있었다. 일부 참가자는 가방에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배지를 달아 세대적 반공 경험을 드러냈다. 현수막을 든 대열이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 뒤따르는 노년층은 국기를 흔들며 응답했다.
행진은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이를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나라와 신앙을 지키는 의무’로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td></tr>
<tr><td colspan="4">2.참가자 특징
이번 행진에는 약 1 만 명 규모의 대규모 인파가 참여했으며, 그 중심은 60~80 대 노년층 보수 개신교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두툼한 패딩, 방한모, 목도리 등 겨울 복장을 착용한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행진하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가방, 모자, 배지 등에 ‘공산당이 싫어요’, ‘자유대한민국 수호’ 등의 상징물을 부착해 개인적 신념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td></tr>
</table>

[171] 본 관찰일지는 연구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평가나 편견 없이 객관적인 기록을 목표로 한다. 촬영된 사진은 블라인드 처리한 후 논문에 활용했으며 IRB 심사 승인 후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IRB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관찰일지를 활용하여 대상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 면접 참여자를 점진적으로 선정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에 대한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박사과정과 학교에 대한 정보와 연구 내용에 관한 정보를 구글설문지와 홍보영상으로 제작했고 이것을 큐알코드로 변환해서 명함형태로 배부했다. 이 과정은 노년 세대에게 있어 연구참여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172] 날씨는 관찰 일지를 정리하기전 기상청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후 관찰 일지에 수록했다.

행진 대열은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었으며, 노년층이 다수임에도 장거리 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몸으로 증언하는 애국"이라는 집단적 수행성을 보여주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또한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고령자들도 여럿 포착되었는데, 이는 연령과 신체 제약을 넘어서는 참여 의지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참가자들은 행진을 단순한 정치적 시위가 아니라 국가적, 신앙적 소명을 수행하는 의례적 행위로 인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3. 활동과 상호작용

1 월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광화문–을지로–시청 일대를 따라 조직적으로 행진하였다. 약 1 만 명가량의 참가자는 깃발을 흔들며 일정한 리듬으로 구호를 제창했고, 특히 태극기와 성조기는 행진의 주요 상징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구호는 '자유 수호', '공산화 저지', '대한민국 지켜내자' 등이었으며, 이를 선창하는 리더가 앞쪽에서 마이크로 리듬을 잡으면 뒤따르는 참가자들이 일제히 응답하는 형태였다. 일부는 복음성가와 애국가, 그리고 가요풍 음악이 스피커로 흘러나오면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며 몸을 흔들거나 손을 들어 반응하였다. 행진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주변 시민에게 전단지를 나누거나, 차량 정체 시 창문을 두드리며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확산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여러 참가자는 서로의 복장안에 배지(예: '공산당이 싫어요')를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어 즉석 공동체가 형성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나는 그들의 대열에 합류해서 함께 행진을 하며 그들을 관찰했다.



4. 직접 관찰 내용

행진이 광화문에서 시청 방향으로 이어지던 중, 나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함께 이동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의 표정과 동작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내 바로 앞에 걷던 70 대 후반 남성 참가자 한 명이 갑작스럽게 무릎이 꺾이며 도로 위로 쓰러졌다.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달려와 부축했고, 그는 한동안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다시 일어섰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그는 "괜찮다"며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조금 후 다시 걸음을 내딛던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와 개인사를 조심스레 들려주었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의 요지이다.
(※ 실명은 가명 처리)

연구자: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참가자 A(가명, 남성, 78 세):
"허리 협착이 오래됐어요. 걸을 때마다 찌르는 것 같죠. 그래도 나와야 합니다."

연구자: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참가자 A:
“내가 지킬 게 이 나라밖에 없어요. 외동딸이… 10 년 전에 갔습니다. 그 후로 남은 건 나라뿐이에요.”
(한참 침묵)
“태극기 집회는… 내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생명 다해서 나라 지키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의 모자에는 ‘순국(殉國)’, 가슴에는 군대식 계급 문양이 새겨져 있었음)

연구자:
“오늘 행진도 꽤 길고 힘드실 텐데요.”
참가자 A: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산화되기 전에… 누군가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부서져도, 나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몇 차례 허리를 움켜쥐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헤어지기 전 그는 내 명함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참가자 A:
“나중에 꼭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5. 연구자 성찰

나는 이번 행진에서 쓰러졌던 70 대 후반 남성과의 접촉 경험은 노년층이 집회 공간을 단순한 정치적 참여의 장이 아니라 존재 의미를 회복하는 **장**으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신체적 어려움(허리 협착증)과 가족 상실(외동딸 사망)이라는 삶의 취약성을 언급하면서도, 집회 참여를 “사명”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노년기에 경험되는 상실과 주변화(에이지즘)를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는 서사로 전환해 자기 존재의 지속성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6. 도출된 주제

(※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탐색할 예비적 주제)
첫째, 상실 경험과 국가 서사의 결합. 외동딸 상실 경험과 국가 위기의식이 연결되는 해석 패턴은 개인의 비극이 국가적 구원이라는 더 큰 서사 속에 통합되는 과정을 시사한다.
둘째, 종교적 언어와 정치 행위의 혼합. 사명,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표현은 예배적, 신학적 언어가 정치적 참여를 신성한 실천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듯함.
셋째, 국가 상징의 신체화(Embodiment). 순국 모자, 군대식 배지, 대형 깃발 등의 착용과 사용은 국가와 개인의 정체성을 신체를 통해 실제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음.
넷째, 노년 정체성의 재구성 가능성. 행진 참여와 위험 감수(쓰러진 뒤에도 참여 지속)는 나는 아직 쓰임 받는다는 자기 인식을 강화하는 장으로 기능하는 듯함.

7. 후속 질문

향후 심층 면접에서는 다음의 질문 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어르신께서 집회 참여를 ‘사명’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년에 이르러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과 존재 의미를 느끼고 계신가요?”
“반공(反共)에 대한 인식은 어떤 개인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나요?”
“행진이나 국기 흔들기 같은 행동이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감정은 어르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집회가 어르신에게 '공동체'나 '예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나요?"
8. **추가 메모와 향후 계획** 심층면접 시 에이지즘 경험과 집회 참여 **동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색할 예정이며, 특히 "사회에서는 잊혔지만 광장에서는 쓰임 받는다"는 서사가 반복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반공 언어의 신앙적 전환 과정(예: '공산주의=악' 구조)을 면밀히 분석해, 생애사와 교회 경험 그리고 역사 기억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의미화되는지 추적할 예정이다.

#2 관찰일지

Date / 날짜	Time / 시간	Location / 장소	Weather / 날씨[173]
2025 년 3 월 1 일 (토)	오후 1 시 – 4 시	서울역 광장	흐림, 오후에 비, 12° C / −3~7° C
관찰자: 이규운			

1. 현장 개요 2025 년 3 월 1 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모였다. 삼일절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맞물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냅시다!"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의 중심에는 고령의 기독교인들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으며, 찬송가와 군가가 교차로 울려 퍼졌다.



2. 참가자 특징

참가자 다수는 60~80 대의 노년층으로, 과거 국가 위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였다. 이들은 흔히 성경과 태극기를 동시에 손에 들고 있었고, 신앙적 언어와 정치적 주장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발언하였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기독교 국가의 결합을 강하게 믿고 있었으며 현재의 정치 상황을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3. 활동과 상호작용

태극기와 성조기는 단순한 국가 상징이 아니라, 신앙의 표징처럼 취급되었다. 일부 참가자는 깃발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눈을 감고 기도하였고 음악이 바뀔 때마다 집단적으로 손을 맞잡거나 찬송가의 후렴을 함께 불렀다. 스피커에서는 군가와 찬송가가 교차로 흘러나왔고 이는 '나라를 위한 기도'와 '영적 전쟁의 찬양'이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참가자들은 깃발을 흔들며 자신이 믿는 신앙과 국가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구호 제창은 예배의 리듬처럼

[173] 날씨는 관찰 일지를 정리하기전 기상청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후 관찰 일지에 수록했다.

반복되었다. 오후에 비가 쏟아지면서 저마다 우비로 갈아 입었으며 일부 노년층 참가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다”, “공산주의는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외치며 정치적 구호를 신앙적 확신으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이들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동시행동이 아닌 신앙 공동체적 결속의 재현으로 관찰되었다.

3.직접 관찰 내용

현장 한쪽에서 검은 상의를 입은 70 대 중반의 남성 참가자를 만났다. 그는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등에 KOREA AIR FORCE 글자가 새겨진 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나에게 먼저 말을 건냈기에 수월하게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의 요지이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의 요지이다.

(※ 실명은 가명 처리)

연구자:

“어르신께서는 오늘도 태극기를 손에 들고 계시네요. 이 집회에 자주 나오시는 편이신가요?”

참가자 A (가명, 남, 75 세):

“그렇죠. 거의 매주 나옵니다.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요. 여기 나오면 숨이 트여요.”

연구자: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참가자 A:

“직장 다닐 땐 그래도 누군가였어요. 팀장도 하고, 회의도 주재하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냈죠. 근데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절 찾지 않더군요. 집에서는 그냥 늙은이일 뿐이고요.”

(그는 광장을 향해 고개를 들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여길 오면요, 다시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깃발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치잖아요. 누군가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연구자:

“그럼 태극기를 흔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참가자 A:

“그때마다 3·1 운동 생각이 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정신 말이죠. 그때 그 정신이 지금 나를 살려주는 것 같아요. 깃발을 흔드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제 기도이자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5. 연구자 성찰

나는 참가자 A(가명, 남, 75 세)의 진술을 통해 노년층이 상실된 자아를 신앙과 국가 상징의 결합을 통해 회복하려는 내면적 동기를 확인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 예배적 행위로서 집회 참여를

내면화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국가적 트라우마를 신앙 언어로 해석하며 내면화된 반공주의와 종교적 애국심이 교차하는 정체성의 재구성이 나타난다.
6. 도출된 주제 (※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탐색할 예비적 주제) 첫째, 상실된 사회적 위치에 대한 신앙-국가 결합적 응답. 노년층 참가자들이 퇴직 이후 경험하는 사회적 주변화(에이지즘)에 대한 대응으로, 신앙과 국가 상징의 결합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존재감을 재구성하는 모습이 관찰됨. 둘째, 예배적 공동체 속에서의 자기 회복 경험. 집회는 단순한 정치 참여라기보다, '나는 여전히 쓰임 받는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신앙적, 공동체적 장(場)으로 작동하는듯 보임. 셋째, 정치 집회의 예배화(worship turn). 구호, 찬송, 기도, 깃발 흔들기 등이 결합하여 집회가 일종의 예배적 실천 형식으로 전환되는 장면이 다수 관찰됨. 참여자들은 국가와 신앙을 동일한 질서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임. 넷째, 반공주의의 도덕과 신앙화. 반공주의는 단순한 이념적 태도라기보다 전쟁, 경험, 생존 기억, 기독교적 선악 구도가 결합된 도덕적 신념 체계처럼 나타났으며, 이는 도덕적, 영적 의무감으로 확장되는 듯 보임.
7. 후속 질문   향후 심층 면접에서는 다음의 질문 축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어르신께서 이 집회에 참여하시게 되는 개인적 이유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곳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소속감이나 위로, 치유 같은 감정을 느끼 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집회에서 사용되는 말씀, 기도, 찬양, 반공 언어 등이 어르신의 신앙과 정치적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내면화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8. **추가 메모와 향후 계획** 참가자 A(가명, 남, 75 세)은 심층 면접 대상은 아니었으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노년층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였다. 다음 관찰에서는 집회 현장의 음악(찬송가, 군가)과 감정 반응 간의 관계를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다.

#3 관찰일지

Date / 날짜	Time / 시간	Location / 장소	Weather / 날씨[174]
2025 년 3 월 18 일(화)	오후 1 시 – 4 시	헌법재판소 앞	최고 9.8, 최저 0.5°C, 봄철 눈이 내림
관찰자(Researcher): 이규운			

[174] 날씨는 관찰 일지를 정리하기전 기상청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후 관찰 일지에 수록했다.

1. 현장 개요

2025 년 3 월 18 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헌법재판소 건너편에는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 여전히 3 월의 꽃샘추위가 남아 있어 다소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었다.

2. 참가자 특징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가방이나 옷에 부착한 사람들도 많았다. 젊은 사람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스피커를 활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특정 음악(응원가 혹은 선동가)을 틀어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일부 참가자들은 야당 인사들이 진행하는 인터뷰를 방해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3. 활동과 상호작용

참가자들의 주요 구호 중 하나는 “빨갱이는 물러가라”였으며, 이는 이념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구호이다. 일부 참가자들은 스피커를 크게 틀어 공산당은 마귀라고 외치고 있었다.
특정한 선동 음악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이를 녹음하여 기록하였다.
참가자들에게 태극기와 성조기의 의미를 물어본 결과, 이를 단순한 국가 상징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직접 관찰 내용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에도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중년 남성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선동가를 불렀다. 나는 이 노래를 녹음해서 전사했다. 충정가라는 노래였다. 그들은 이 노래가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이건 신앙이자 사명입니다'라고 말하며 깃발을 흔들었다. 또 다른 여성 참가자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반복적으로 외치며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옆에서 크게 소리를 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70 대 중반의 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순국결사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가슴에는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뱃지가 붙어있었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의 요지이다.
(※ 실명은 가명 처리)

연구자:
“어르신, 눈이 오는데도 계속 깃발을 힘차게 흔드시네요.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참가자 B (가명, 남, 76 세):
“나는 순국결사대요. 평생 공산당이랑 싸워온 사람이지. 내가 국민학교 때예요. 공산당 놈이 총을 내 어머니 가슴에 딱 겨누고 있었어.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해. 그때 깨달았지.
국가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삶도 끝나는 거라고.”

연구자:
“그래서 태극기를 흔드시는 것이, 그때 기억과도 연결되나요?”

참가자 B:
"그럼요. 이게 그냥 천 조각이 아니요. 우릴 살린 깃발이요. 난 지금도 이걸 흔들 때, 그때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마음이 올라와요. 지금이라도 나라 지키면, 그 빚을 갚는 거지."
(그는 가슴에 달려 있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붉은 뱃지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하지만 이것만은 할 수 있어. 나라를 위해 설 수는 있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나한테 말하는 자리요."



연구자:
"힘드시진 않나요? 눈과 비도 오는데…?"

참가자 B:
"힘들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 근데 나라가 무너지면 더 아파. 여기 오는 게… 내 마지막 사명이요."

5. 연구자 성찰

이번 집회는 단순한 정치적 시위라기보다는 신앙과 정치적 정체성이 융합된 집단적 의례처럼 보였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단순한 국가 상징을 넘어 신앙의 표식으로 기능하며,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믿음과 정치적 확신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특히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들의 내면화된 정체성을 보여준다.

6. 도출된 주제

(※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탐색할 예비적 주제)
첫째, 신앙과 국가주의의 결합 구조
집회 참여자가 국가적 위기 담론을 신앙 언어로 해석하며, 정치적 참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천'으로 의미화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시민종교(civil religion) 또는 국가주의적 신학(nationalist spirituality)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후 면담에서 그 신학적 기반을 더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공주의의 영성화(Spiritualized Anti-Communism)
반공주의가 이념적 수준을 넘어, 선/악 그리고 빛/어둠, 하나님/마귀의 구도 속에서 재해석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틸리히(P. Tillich)의 이데올로기 비판이나 본회퍼(Bonhoeffer)적 윤리적 긴장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후 심층 인터뷰에서 그 종교적 원천과 영성적 구조를 명확히 탐색해야 한다.
셋째, 생애사적 기억과 집단적 정체성의 재활성화
한국전쟁, 산업화, 군사정권을 경험한 세대의 생애사적 기억이 반공 담론과 국가 수호 담론과 결합하면서, 신앙적, 도덕적 책임감으로 재해석되는 경향이 있었다.

7. 후속 질문

"이 집회를 하나님 나라 혹은 영적 사명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자유', '하나님 나라', '나라 살리기' 같은 표현이 어르신에게는 어떤 신앙적 의미를 갖나요?"

8. **추가 메모와 향후 계획**

이번 현장은 날씨가 추워 관찰자와 참가자 모두 신체적으로 긴장된 상태였으며,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극한의 날씨 속 신앙적 열정은 상징 행위의 진정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보인다.

#4 관찰일지

Date / 날짜	Time / 시간	Location / 장소	Weather / 날씨
2025 년 4 월 12 일(토)	오후 1 시 – 4 시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동상 앞 중심)	최고 15.7 / 최저 5.5° C, 흐리고, 빗방울

관찰자(Researcher): 이규운

1. 현장 개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매주 열리는 국가 정상화 집회가 이날에도 열렸다. 슬로건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우리가 지킨다'이다. 집회는 사전 예배로 시작되었으며 찬송과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은 예배의 일부처럼 팔을 들어 깃발을 흔들었다. 깃발을 흔드는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 신앙의 고백과 같은 몸짓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2.참가자 특징



참가자 대부분은 60~80 대 노년층이었으며 부부 혹은 교회 소그룹 단위로 움직였다. 복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가슴에 'God bless Korea' 배지를 단 이들도 있었다. 가방에 'SAVE KOREA'가 붙어 있었다. 그들은 깃발을 손에 쥐고 찬양 가사에 맞추어 함께 흔들며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깃발은 이들에게 '기도의 도구'이자 '자기 정체의 표식'으로 보였다.

3. 활동과 상호작용



설교자는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외쳤고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높이 들며 '아멘!'으로 응답했다. 깃발을 드는 행위가 마치 신앙 고백처럼 반복되며 개인의 내면적 신념을 외적으로 표출하는 신앙 행위로 기능하고 있었다. 태극기로 두건과 스카프를 만들어 목에 두른 한 여성 참가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고 외치며 깃발을 흔들었다. 그 행위는 신앙적 정체성과 국가적 소속감을 동시에 확인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읽혔다. 깃발은 그녀에게 단순한 국가 상징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으로 여겨졌다. 설교와 구호가 교차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를 외쳤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고, 그 장면은 교회 예배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4. 직접 관찰 내용



다음은 현장에서 만난 노인 부부(60 대 후반, 가명)에 대한 대화 관찰 기록이다.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손에 들고 있었으며, 집회 참여를 신앙적 실천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부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말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구호와 찬양에 응답했다. 짧은 대화 끝에 향후 심층 면접 참여에도 관심을 보이며 연구 협조 의사를 밝혔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의 요지이다.
(※ 실명은 가명 처리)

연구자: 오늘 깃발을 함께 드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분은 거의 매주 나오시나요?

참가자 B(가명, 남, 68 세): 네,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저희는 주말이면 예배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죠.

연구자: 그럼 이곳에서 깃발을 드는 행위는 두 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참가자 C(가명, 여, 65 세): 저는 깃발을 들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찬양할 때 손을 들듯이, 깃발을 흔드는 게 저 한테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흔드는 거죠.

참가자 B(가명, 남, 68 세): 나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라를 위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나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 한테는 이게 기도이자, 예배이자, 싸움이에요.

연구자: 깃발을 드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참가자 C(가명, 여, 65 세):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몇 번 나오다 보니까…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게 그냥 정치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참가자 B(가명, 남, 68 세): 그렇죠. 깃발을 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죠. 젊을 때는 일터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이게 내 일이에요. 이 깃발이 내 손에 있는 한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연구자: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깃발을 드는 행위가 단순히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신앙의 연장선에 있네요.

참가자 C(가명, 여, 65 세): 그렇죠. 우리 세대는 나라와 믿음이 따로가 아니에요. 그 두 개가 함께 가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게 단순히 집회가 아니라, '예배의 또 다른 자리'예요.

5. 연구자 성찰

노인 부부(B, C)의 진술은 깃발을 드는 행위를 예배적 행위, 신앙적 자기정체성의 실천, 세속 공간의 신성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라는 표현은 퇴직 후 상실된 사회적 역할을 신앙적 사명으로 대체하는 '영적 자기확인'의 언어로 읽힌다.

6. 도출된 주제

(※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탐색할 예비적 주제)

첫째, 깃발 들기와 신앙적 내면화의 가능성

집회에서 관찰된 깃발 들기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출이 아니라, 일부 참가자에게는 신앙적 헌신과 예배적 표현의 연장선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 행위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정체성 회복의 상징물로 기능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국가 상징의 신성화(Sacralization)와 영적 의미 형성

태극기와 성조기를 단순한 국가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혹은 신적 보호의 상징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국가 상징이 예배 언어, 기도 언어와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실천신학적으로는 '시민종교적 성향(Civil Religion)'과의 연관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적 언어의 신학화와 영성화 경향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공산주의는 악(어둠)의 세력’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담론이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 사명 등의 신학적 언어로 번역되는 양상이 드러났다. 이는 향후 국가주의적 신학(Nationalistic Theology) 혹은 영적 이데올로기화의 구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7. 후속 질문

“집회에서 깃발을 드실 때 어떤 신앙적 의미를 느끼십니까?”
“깃발을 드는 그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집회가 신앙생활과 어떤 점에서 이어진다고 느끼시나요?”

8. **추가 메모**(Additional Notes)**와 향후 계획**(Next Steps)

이번 관찰은 깃발을 드는 몸짓이 곧 신앙의 언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심층면담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행위를 신앙적 상징행위로 인식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이론적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5 관찰일지

Date / 날짜	Time / 시간	Location / 장소	Weather / 날씨
2025 년 4 월 19 일(토)	오후 1 시 – 4 시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동상 앞 중심)	하늘은 흐리고 거센 바람, 체감기온 약 11° C

관찰자(Researcher): 이규운

1. 현장 개요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의자를 배치한 채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태극기와 성조기가 시야를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주로 60~80 대 노년층으로 보였고, 깃발을 손에 든 채 무대 발언과 구호에 맞춰 일제히 반응하고 있었다. 무대에서는 정치적 발언과 함께 기도, 찬송, 신앙적 언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집회 공간은 일상적 도시 광장이라기보다 예배와 집회가 결합된 공적 종교 공간처럼 기능하는 인상을 주었다. 이날 현장은 국가, 신앙, 개인의 삶의 의미가 중첩되어 드러나는 상징적 장(場)으로 관찰되었다. ‘MKGA (Make Korea Great Again)’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있었다. 행사 사회자는 ‘한미동맹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외쳤으며 군복 차림의 노인들이 북을 치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응답했다.

2. 참가자 특징

참가자 상당수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었으며, 깃발을 흔들거나 손을 들어 응답하는 행위에 비교적 익숙한 모습을 보였다. 구호 제창과 기도, 찬송이 이어질 때에는 개인 간 동작과 리듬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며, 집단적 참여 감각이 형성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노년 여성 참가자의 비율도 적지 않았으며, 일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용히 손을 들고 기도에 참여하거나, 구호가 반복될 때 짧게 따라 외치는 방식으로 집회에 동참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참가자들은 자신을 단순한 '시위 참여자'라기보다, 국가와 신앙을 함께 지키는 역할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3. 활동과 상호작용

참가자들은 "MKGA!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는 구호를 반복하며 그 문장을 하나의 기도문적 리듬으로 외쳤다. 특히 중년과 노년 남성들이 한 손에는 깃발을 다른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예수님은 좌파가 아니다!", "신앙과 자유는 진리다!"라고 외칠 때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신앙적 경계선 긋기(boundary marking) 행위로 작용하고 있었다.

4. 직접 관찰 내용[175]

나는 현장에서 한 남성 참가자 D(가명, 남,78 세)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MKGA 모자를 착용하고 '예수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의 요지이다.
(※ 실명은 가명 처리)

연구자: "MKGA 뱃지가 인상적입니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참가자 D(가명, 남, 78 세): "예, 'Make Korea Great Again'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미국처럼, 하나님 믿고 자유 지켜야 나라가 삽니다. 트럼프가 하던 거 우리도 해야 해요."

연구자: "트럼프 방식이 한국에도 맞다고 보시나요?"

참가자 D: "미국은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신앙도, 정치도요. 근데 지금 미국도 무너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죠. 반공, 좌익, 다 싸워야 해요."

연구자: "한국적 상황과는 좀 다르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참가자 D: "물론 한국은 다르죠. 근데 신앙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좌파가 아닙니다. 그분은 질서와 정의의 왕이에요. 미국 보수 기독교는 그걸 지키려고 싸워왔어요.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신앙과 자유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진리예요."

[175] 나는 공공장소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참여 관찰의 일부로 간주하고 관찰일지에 기록했다. 이는 심층면접과 달리 구조화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드러나는 생생한 의미 구성의 방식들을 포착할 수 있어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다. 식별 정보는 포함하지 않으며, IRB 승인에 해당 관찰이 포함되어 있기에 윤리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대화는 나의 연구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연구자: “그렇다면 MKGA 는 어떤 의미인가요?”

참가자 D: “하나님 중심의 나라, 공산주의 없는 나라, 부끄럽지 않은 자유를 가진 나라. 그걸 다시 만들자는 뜻입니다. 나는 퇴직하고 신앙 말고는 남은 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면,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가자 C(가명, 여, 65 세): 그렇죠. 우리 세대는 나라와 믿음이 따로가 아니에요. 그 두 개가 함께 가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게 단순히 집회가 아니라, ‘예배의 또 다른 자리’예요.

5. 연구자 성찰

참가자 D 의 진술은 기독교 복음주의, 미국 보수주의, 한국 반공주의가 융합된 신앙담론을 보여준다. 그의 언어에는 “신앙 = 질서”, “자유 = 신앙의 증거”, “국가 = 하나님의 도구”라는 등식이 내면화되어 있다. 특히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표현은 퇴직 후 상실된 사회적 역할을 신앙적 전투성(Vocational Spirituality)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그의 MKGA 해석은 단순한 미국 모방이 아니라 복음주의 질서를 한국적 맥락에 재구성하려는 신앙과 정치 혼합체로 해석될 수 있다.

6. 도출된 주제

(※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탐색할 예비적 주제)

첫째, 집회 참여는 은퇴 이후 상실된 사회적 역할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라는 신앙적 언어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치적 행위는 개인의 신앙 실천과 분리되지 않은 채, 노년기 자기 이해의 중요한 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둘째, 태극기, 성조기, MKGA 와 같은 상징은 단순한 정치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자유를 상징하는 신앙적 기호로 재해석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상징 사용은 집회 현장에서 예배적 몸짓과 결합되며, 일종의 상징적 신앙 실천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불안한 사회 인식 속 ‘신앙적 질서 회복’ 담론의 형성 참가자들의 발화와 행위에서는 사회적 혼란과 위기를 ‘신앙적 질서의 붕괴’로 인식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으로 집회 참여를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신앙 이해가 사회 현실 해석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시사한다.

7. 후속 질문

“MKGA 를 신앙적으로 해석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퇴직 이후 신앙이 사회참여와 어떻게 연결되었나요?”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느끼십니까?”
“미국 기독교 정신을 한국에 적용할 때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8. 추가 메모와 향후 계획

이번 관찰은 국가 상징을 통한 신앙적 자아의 재건이라는 주제를 뚜렷이 보여준다. 참가자 D 의 진술은 이념화된 복음주의의 현장적 표본으로 신앙적 국가주의(Faith-Infused Nationalism) 또는 종교적 정체성의 행위화(Performing Faith Identity)라는 이론적 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6 관찰일지

Date / 날짜	Time / 시간	Location / 장소	Weather / 날씨
2025 년 5 월 3 일 (토)	오후 1 시 – 4 시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동상 앞 중심)	흐림, 비, 9–13°C, 쌀쌀한 봄 날씨

관찰자(Researcher): 이규운

1. 현장 개요

'국민저항권 발동 집회'는 약 2,000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로, 참석자의 대부분은 60~80 대의 노년층이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헌법 1 조 수호와 탄핵 무효, 공산화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이들은 신앙적 열정으로 집회를 예배처럼 이끌었다. 이날 반복적으로 재생된 '충정가(忠貞歌)'는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노년 세대의 국가 정체성과 신앙적 정체성이 교차하는 의례적 중심으로 기능하였다.

2.참가자 특징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주로 60~80 대의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수호'와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조끼를 입거나 태극기와 성조기, 십자가 배지를 부착한 채 집회에 참여하였다. 특히 현장에서는 '충정가'가 크게 울려 퍼졌고 참가자들은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3. 활동과 상호작용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충정가를 반복적으로 제창하였으며, 노랫소리가 커질수록 일부 노년 참가자들은 눈물을 훔치거나 고개를 숙인 채 노래를 이어갔다.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 부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관찰되었다. 충정가 제창은 단순한 노래 부르기를 넘어, 개인의 감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확인하는 시간처럼 보였다. 비옷을 입은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을 맞잡는 장면도 자주 포착되었으며, 이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연대감을 강화하는 상호작용으로 보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집회가 단순히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을 넘어, 노년층이 집단적 감정과 기억을 나누며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 직접 관찰 내용

충정가(忠情歌)[1] 가사

인생의 목숨은 초로(草露)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襄陽)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충정가[176]가 현장 스피커로 재생되며 많은 참가자들이 기립하고 있다. 인근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던 노인 여성은 울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이 여성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다음은 노인 여성 참가자 E(가명, 여성, 78 세)와 대화의 일부분이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의 요지이다.
(※ 실명은 가명 처리)

연구자:
노래를 따라 부르시네요. 이 곡이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참가자 E(가명, 여성, 78 세):
(눈가가 젖어 있음)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그 말이 그냥 노랫말이 아니라 제 기도 같아요.
전쟁도 겪었고, 나라가 무너질까 봐 울던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연구자: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이어지신다고 느끼세요?

참가자 E: 그럼요. 지금도 나라가 위태롭다고 느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우리는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 믿을 교회도, 신앙도 없는 세대예요. 그걸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에요.

연구자: 방금 말씀하신 "나라가 없으면 신앙도 없다"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한 이유일까요?

참가자 E: 맞아요. 몸이 아파도, 비가 와도…여기 오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우리도 따라야지."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나라가 사는 거니까요.

(잠시 침묵. 스피커에서 '충정가' 후렴이 다시 울려 퍼짐)

---

[176] 나는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불리는 충정가(忠情歌)의 기원에 주목하게 되었다. 충정가(忠情歌)의 원문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매일신보(1904–1910) 전 기간의 디지털 아카이브(국립중앙도서관 신문 검색 서비스)를 비롯하여 RISS 와 국회도서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신문 지면이나 공식 간행물에서 충정가가 직접 수록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대한매일신보가 당시 애국 계몽 운동의 중심 언론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충정가가 같은 시기 사회, 정치적 맥락 속에서 창작되고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이 노래는 1950 년대 군 내부에서 구전된 비공식 군가로 저속 군가로 분류되어 한때 금지된 바 있다. 선율은 일제시대 군가와 유사하며 정확한 작사와 작곡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2010 년대 후반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과 충절의 상징으로 부활해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나는 이 노래가 정치적 감정공동체 내에서 애국 정서를 자극하는 의례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독자들의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 음원 영상을 QR 코드로 제공하였다.

“아~ 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연구자:(조용히) 지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참가자 E:(눈을 감고 따라 부르며) 기쁨이에요. 이상하게…죽음을 이야기하는데도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같아요. 이건 집회가 아니라, 예배예요.

연구자: 그럼 이 노래가 단순한 군가나 애국가가 아니라…

참가자 E: 예, 저 한테는 찬송이에요. 나라를 위한 찬송. 우리가 잊히지 않았다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증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이 진짜 믿음이에요.

(뒤쪽에서 남성 참가자의 목소리가 들림)

“이 노래 들으면 피가 끓어! 우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외침에 주변 참가자들이 “아멘!”으로 응답한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깃발이 젖어 무겁게 흔들린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은 결연했다.

5. 연구자 성찰

이날의 집회는 충정가라는 노래를 통해 죽음과 희생을 영적 가치로 재해석하는 신앙적 내면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엄과 신앙적 완성의 상징이 된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경험한 ‘나이듦의 배제(Ageism)’를 신앙적 사명과 애국적 의무로 대체하여 극복하고 있었다. 즉, 사회가 자신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쓰신다’는 영적 내러티브로 변환하는 것이다.

6. 도출된 주제

(※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탐색할 예비적 주제)

첫째, 음악, 노래를 통한 정서적 결속
충정가 제창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모습이 다수 포착되었으며, 노래가 집단 기억과 신앙적 정서를 호출하는 정서 매개체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임.

둘째, 노년 정체성의 재확인
집회 참여를 통해 노년 참가자들이 “나는 여전히 쓰임 받는 존재”라는 감각을 경험하는 정체성 재구성의 장으로 기능하는 양상이 관찰됨.
이는 사회적 주변화 경험(에이지즘)에 대한 대응 전략일 가능성이 있음.

7. 후속 질문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이라는 가사에 어떤 신앙적 감정을 느끼십니까?”
“충정가를 들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영적 결단이나 의미가 떠오르나요?”
“국가를 위한 희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집회와 예배가 하나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나이든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고 느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8. 추가 메모와 향후 계획

‘충정가’의 반복은 기억의 의례적 수행(ritual of remembrance)이었다.
그들은 잊혀 진 세대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세대’로 복권시키는 존재였다. 이날의 집회는

곧 노년 세대의 자기 구원(Self-salvation)의 장이었다. 국가와 신앙, 역사와 노년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는 증언자'로 자신을 세우고 있었다.

#7 관찰일지

Date / 날짜	Time / 시간	Location / 장소	Weather / 날씨
2025 년 5 월 17 일 (토)	오후 1 시 – 4 시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동상 앞 중심)	산발적으로 비가 내림. 체감온도 19 ° C
관찰자(Researcher): 이규운			
1. 현장 개요 약 7000 명 규모의 집회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의 다수는 60~80 대의 보수 성향 기독교인이었다. 가자들은 태극기를 어깨에 두르거나 들고 있었고, 일부는 "하나님 나라 회복", "영적 전쟁", "이재명 OUT" 등의 손팻말을 높이 들고 있었다. 비가 오락가락했음에도 행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사회자는 "이 비는 주님의 눈물"이라며 비를 영적 상징으로 해석했다. 전체 분위기는 전통적인 정치 집회가 아닌,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설교가 결합된 야외 예배집회의 형식을 띠었다.			
2.참가자 특징 빗속에서 우산을 접고 손을 들어 함께 찬송하는 모습이 다수 포착되었고, 가사를 따라 부르며 눈을 감는 노인도 있었다. 찬송가가 재생될 때, 일부 참가자들은 손을 높이 들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등 예배적 제스처를 수행했다. 한 노인 남성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 찬양은 무기입니다"고 말하며 손에 든 태극기를 흔들었다. 			
3. 활동과 상호작용 전통적인 정치 구호보다는 '나라를 위한 회개의 기도', '한국 교회의 부흥',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가 중심이 되었다. 다수 참석자가 비를 맞은 채 손에 태극기를 들고 통성기도에 몰입. 일부는 무릎을 꿇고 포장된 바닥에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회개하라',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문구가 적힌 머리띠, 조끼, 피켓 활용했다. 단상에 선 목회자 출신 인사는 '지금은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전쟁'이라 언급했다, '우리는 비를 맞으며 주의 군대로 부름 받은 것이다'라는 선언적 메시지 사용했다. '예배-시위-성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4. 직접 관찰 내용			



집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찬송과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닌, 비 속에서 자기 존재를 초월적 의미로 전환하는 일종의 예전(ritual)처럼 느껴졌다.
특히 비를 맞으며 손을 든 채 찬양을 부르는 노인들의 모습은, 단순한 정치 시위자가 아니라 '영적 군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애완견을 데리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온 한 70 대 여성은 '비를 맞고라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부르심이 있다'며 '하늘 문이 열리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인 여성 참가자 F(가명, 여성, 71 세)와 대화의 일부분이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의 요지이다.
(※ 실명은 가명 처리)

전동 휠체어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꽂아둔 채 애완견을 품고 있던 F 씨는, 비가 그친 뒤에도 계속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듯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연구자가 말을 걸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연구자:
"비도 오는데, 계속 자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참가자 F(가명, 여성, 71 세):
"집에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애들도 다 커서 바쁘고,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고….
근데 여기 오면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무릎 위의 작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다.

참가자 F:
"이 아이랑 둘이 사는데요, 집에 혼자 있으면 소식에서 들리는 일들이 너무 불안해요.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지킬 건지.
그래도 여기 오면 내가 나라 위해 기도할 자리라도 있다는 게 감사하죠."

연구자: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느끼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5. 연구자 성찰

F 씨의 발언과 행동은 노년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주변화(에이지즘)에 대한 대응으로 집회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녀는 집회 참여를 '아직 쓰임 받는다'는 감각으로 설명했으며, 이는 상실된 사회적 역할을 신앙적, 국가적 사명으로 대체하는 방식처럼 보였다.
또한 태극기 흔들기와 비 속 기도는 단순한 정치 행동이 아닌, 신앙적 의례로 내면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국가 상징이 영적 의미로 확장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전동휠체어라는 신체적 제약에도 참여한 점은 이 집회가 일부 노년층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회복하는 대안적 공동체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심층 면접에서는 이러한 신앙과 국가 정체성의 결합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도출된 주제 (※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탐색할 예비적 주제) 첫째, 구원 이해와 종말론적 긴장의 공적 표현 '비를 맞고라도 이 자리에 선다'는 언어와 태도는 현재의 정치, 사회적 혼란을 종말론적 위기의 징후로 해석하고, 이를 신앙적 헌신과 구원의 실천으로 연결하려는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국가 상징의 신앙적 내면화와 시민종교적 변용 노년 세대 크리스천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단순한 국가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역사 속에서 구현된 신앙적 표징으로 의미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상징은 신앙 실천의 일부로 흡수되며, 신앙과 국가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민종교적(civil religion) 변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반공주의의 신학적 이데올로기화 반공주의는 단순한 역사적,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 선과 악,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질서라는 신학적 이분법 안에서 재해석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은 영적 전쟁의 서사로 번역되는 가능성을 보인다. 넷째, 내면화의 실천적 수행: 깃발 들기와 예배적 행위 깃발을 들고 흔드는 행위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신앙적 정체성을 몸으로 수행하는 내면화의 실천(performed internalization)으로 나타나는 듯 보였다. 이는 목회적 해석학(pastoral hermeneutics)에서 말하는 '의미가 몸을 통해 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7. 후속 질문 "집회 현장에 오면 '여전히 쓰임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감정이 언제 가장 강하게 드시나요?" "퇴직 이후나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일상에서 '나이가 들어서 소외된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때였나요?" "집회에 오면 어떤 점에서 '내가 이 공동체의 일부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태극기나 성조기를 흔드는 행위가 어르신의 마음이나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주나요?"
8. **추가 메모와 향후 계획** 이번 관찰에서는 노년층이 비와 불편함에도 집회를 떠나지 않는 모습이 두드러졌고, 이는 단순한 정치 참여라기보다 사회적 주변화(에이지즘)에 대한 신앙적, 상징적 대응처럼 보였다. 특히 F 씨의 행동은 집회가 노년층에게 '나는 아직 쓰임 받는다'는 실존적 회복의 공간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면접에서는 집회 참여가 '노년 정체성'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사회적 배제 경험이 어떻게 신앙이 국가 상징과 결합되는지, 이 지점을 중심으로 더 세밀하게 탐색할 계획이다.

#8 관찰일지

Date / 날짜	Time / 시간	Location / 장소	Weather / 날씨
2025 년 10 월 25 일 (토)	오후 1 시 – 4 시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동상 앞 중심)	최저기온 0° C 최고기온 9° C

관찰자(Researcher): 이규운

1. 현장 개요

집회는 약 1 만 명 규모의 참가자가 모인 대규모 집회로, 광화문 일대 전역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밀집해 있었다. 집회 현장 주변에는 지역명을 표시한 깃발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특히 부산 등 타 지역에서 올라온 버스 차량들이 도로 주변에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이는 집회가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적 동원 구조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장면으로 관찰되었다. 무대 전면의 대형 전광판 앞에서는 찬양과 율동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이에 맞추어 깃발을 흔들거나 손을 들어 응답하였다. 전광판 인근에는 집회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메가모자, 태극기와 성조기 소품, 문구가 인쇄된 깃발 등 다양한 상징물이 진열되어 있었다.

2.참가자 특징

빗속에서 우산을 접고 손을 들어 함께 찬송하는 모습이 다수 포착되었고, 가사를 따라 부르며 눈을 감는 노인도 있었다. 찬송가가 재생될 때, 일부 참가자들은 손을 높이 들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등 예배적 제스처를 수행했다. 한 노인 남성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 찬양은 무기입니다"고 말하며 손에 든 태극기를 흔들었다.

3. 활동과 상호작용

집회 현장 곳곳에는 태극기, 성조기, 역사적 인물을 다룬 서적과 기념물을 판매하는 임시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노년 참가자들이 비교적 오랜 시간 머물며 책을 살펴보고 구입하는 모습이 빈번히 관찰되었다. 특히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서적, 반공 담론을 다룬 출판물, 기독교적 국가관을 강조하는 책들이 눈에 띄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책을 서로에게 권하거나,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정치 상황을 연결지어 설명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책 구매 행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자신의 신념과 기억을 재확인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처럼 보였으며, 구매 후 책을 가슴에 안거나 가방에 넣는 모습에서는 상징적 의미 부여의 정서가 감지되었다. 판매대 주변은 자연스럽게 대화와 토론의 공간으로 기능하며, 노년 참가자들 간의 경험 공유와 공감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집회가 일회적 정치 행동을 넘어, 역사 인식과 신앙적 세계관을 재구성하고 재확인하는 학습적, 의례적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 직접 관찰 내용



현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노년 남성이 있었다. 그는 집회가 진행되는 수 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꽹과리를 치고 있었으며, 찬송가가 울려 퍼질 때나 연설이 이어질 때에도 그의 징 소리는 집회 공간 전반에 지속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집회의 리듬을 형성하는 요소처럼 작동하며, 참여자들의 구호와 찬양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잠시 그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부산에서 매주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한다고 말했다. 꽹과리를 치는 행위는 단순한 흥을 돋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음'을 몸으로 드러내는 방식처럼 느껴졌다. 이 노인의 지속적인 신체적 실천은 집회가 언어적, 청각적 차원뿐 아니라, 신체 감각과 반복 행위를 통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관찰되었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의 요지이다.
(※ 실명은 가명 처리)
연구자:
몇 시간째 계속 꽹과리를 치고 계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참가자 F(가명, 남성, 73 세):
이건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비파로 악령을 쫓았잖아요.
나는 비파고, 이 꽹과리는 내 몸이에요.

연구자:
악기가 곧 본인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느끼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참가자 F :
우리가 말로는 안 통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소리로 역사하십니다.
이 소리는 공산주의 같은 어둠을 쫓는 소리예요.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때니까요.

연구자:
공산주의를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참가자 F:
그렇죠. 그건 사상이 아니라 영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싸움이에요.

연구자:
그럼 이 집회와 행진은 선생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참가자 F:
사명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쓰시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내는 한,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연구자:
그 말씀에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감각이 느껴집니다.

참가자 F:
맞아요. 사람들은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남은 자가 더 중요합니다.

5. 연구자 성찰(Reflections)

이 대화에서 참가자는 자신의 신체를 '도구'가 아닌 '악기'로 이해하며, 신앙적 소명을 신체적 수행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이는 단순한 정치적 참여라기보다, 구약적 상징(다윗의 비파)을 현재의 정치, 역사적 위기 상황에 재해석하여 적용하는 해석학적 행위로 관찰된다. 특히 반공주의는 이 참여자에게 이념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종말론적 시간 의식 속에서 인식되는 영적 전쟁의 표상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체, 소리, 반복 행위는 신앙과 역사와 국가를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하며, 노년의 삶은 '소멸의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용되는 존재로 재구성된다.

6. 도출된 주제
(※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탐색할 예비적 주제) 첫째, 예배와 전쟁의 상징적 융합 음악과 소리와 행진이 예배이자 영적 전투 행위로 동시에 인식됨. 공적공간이 예배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현상 둘째, 신체화된 내면화(Embodied Internalization) 신앙이 언어와 신념을 넘어 신체 행위와 존재 인식으로 확장되는 양상. “내가 악기다”라는 자기 규정에서 드러남 셋째, 에이지즘에 대한 신앙적 전복 넷째, 성서적 상징의 자기 동일시. ‘다윗의 비파’라는 성서적 이미지를 현재 자신의 행위와 동일선상에 놓는 해석이 나타남. 성서 이야기가 과거 서사가 아니라 현재적 소명 서사로 재맥락화되는 경향이 관찰됨.
7. 후속 질문 “집회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느끼셨나요?”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이러한 신앙적 행동은 은퇴 이후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반공에 대한 생각은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왔다고 느끼십니까?” “상실 경험이 이러한 확신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교회 예배와 이 집회의 분위기 사이에 공통점이나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노년의 삶에서 구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8. **추가 메모와 향후 계획** 이 사례는 신앙의 내면화가 인지적 신념이 아니라 반복적 신체 수행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관찰 지점을 제공한다.

#9 관찰일지

Date / 날짜	Time / 시간	Location / 장소	Weather / 날씨
2025 년 11 월 1 일 (토)	오후 1 시 – 4 시	서울 시청 광장	낮 최고 18.6° C, 아침 최저 14.2° C 쌀쌀한 날씨
관찰자 (Researcher): 이규운			
1. 현장 개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저항대회’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으며,.현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는 대형 현수막, 깃발, 의류, 피켓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태극기 천을 우산으로 재구성하여 머리 위에 씌운 참가자가 눈에 띄었다. 그 우산은 더위를 피하기 위한 실용도구가 아니라, 국가 상징을 신체 위에 직접 ‘덮는’ 수행적 상징물로 기능하고 있었다.			

2.참가자 특징참가자



대부분은 60~80 대 노년 세대로, 6,25 전쟁, 냉전기 반공교육, 산업화 시기 국가 동원 체제를 살아낸 세대였다. 그들의 몸에는 그 기억이 시간의 흔적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광장 한쪽에는 태극기 천으로 만든 우산을 들고 있는 노년 여성, 다른 쪽에는 작은 성경책을 가슴에 꼭 붙잡고 있던 노인, 그리고 "태극기는 국민"과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적힌 조끼와 태극기를 입은 이들이 모여 서 있었다.

3. 활동과 상호작용



태극기 우산을 든 여성은 우산을 머리 위에 정중하게 얹듯 들고 있었으며 강한 햇빛 아래 그것을 '보호막'이자 '덮개'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도구적 사용이 아니라 "나라가 나를 덮는다 → 나는 나라 안에 있다"라는 신앙적 정체성이 은유로 기능하고 있었다.
사회자의 선창 후 전원이 기립하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낭독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낭독의 억양은 기도와 고백에 가까웠으며, 순간 광장이 예배당과 유사한 감정의 장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국가 상징이 신앙 고백문으로 변환되는 순간이었다.

3.직접 관찰 내용



태극기 우산을 들고 있는 노년 여성 참가자를 만났다.
그녀는 직접 태극기 천을 사서 손바느질로 옷도 만들고 태극기우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그녀처럼 태극기를 재단하여 치마, 모자, 조끼, 어깨띠와 같은 의상 형태로 착용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의상으로 이들의 내면과 외형을 동시에 감싸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애국 상징물의 착용이 아니라, 국가와 신앙의 정체성을 '몸 위에 입는 행위'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의 요지이다.
(※ 실명은 가명 처리)

연구자:
"태극기 우산을 직접 만드셨다고 하셨죠. 이 우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참가자 F (가명, 여, 85 세):
"그냥 우산이 아니에요.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으니까…
나는 이걸 머리에 이고 산다고 생각해요.
(잠시 눈시울이 붉어짐) 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었잖아요. 전쟁, 배고픔, 그 시절…"

연구자:
"머리에 이고 산다… 라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참가자 F: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머리 위에 두는 거예요. 가려주고, 덮어주고,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태극기랑 믿음이 같이 가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어요.”

연구자:
“그 감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요?”

참가자 F:
“그럼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공산화가 올 수 있었다는 걸 본 세대예요.
그래서 흔드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5. 연구자 성찰

본 관찰에서 노년층의 집회 참여는 사회적 주변화 경험(에이지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기 역할과 존재감을 재확인하는 장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보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참여를 통해 ‘나는 아직 쓰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라기보다 정체성 유지와 회복의 차원과도 연결되어 보인다. 한, 반공 인식은 이념적 주장이라기보다, 전쟁과 생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세대적 기억의 연속선상에서 의미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반공 언어는 신앙 언어와 결합하여 ‘영적 전쟁’의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태극기우산, 태극기 의상과 같이 국가 상징을 신체와 밀착시키는 표현 방식은 국가와 신앙의 상징이 몸을 매개로 결합되는 ‘신체화(embodiment)’ 현상의 한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국기에 대한 맹세와 충정가 제창의 순간, 집회는 정치 시위라기보다 예배적 의례의 정서 구조를 띠는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였다.

6. 도출된 주제

(※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탐색할 예비적 주제)

첫째, 존재감 회복을 위한 수행적 참여
집회에서의 국기 흔들기와 구호 제창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라기보다, 노년 참가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쓰임 받는 존재다”라는 감각을 생성하는 수행적 실천(performance)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관찰되었다.
이는 은퇴 이후 상실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대응 방식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반공주의의 경험적, 정서적 내면화
반공주의는 단순한 이념적 신념이라기보다는 전쟁과 생존 기억에 뿌리내린 경험적 감정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기억은 신앙 언어와 결합되어 ‘영적 전쟁’의 서사로 형성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셋째, 국가 상징의 신체화(embodiment)와 내면화 가능성
태극기와 성조기를 몸 가까이 두르거나 지속적으로 흔드는 행위는 국가 상징이 신체를 매개로 내면화되는 신체적 실천의 한 형태로 이해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와 신앙의 경계가 일상적 신체 경험 속에서 재구성되는 지점으로 보인다.

7. 후속 질문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 때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국가를 위한 헌신과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이든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고 느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8. **추가 메모와 향후 계획**

태극기 우산은 ‘기억 + 신앙 + 국가 + 몸’이 결합된 상징적 자기 정체화 도구였다.
이는 노년층의 자기구원(self-salvation)적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10 관찰일지

Date / 날짜	Time / 시간	Location / 장소	Weather / 날씨
2025 년 11 월 8 일 (토)	오후 1 시 – 4 시	서울 시청 광장	맑고 바람 한 점 없는 쾌적한 날씨, 15° C

관찰자(Researcher): 이규운

1. 현장 개요

광화문 광장에는 수천 명의 노년층이 모여 있었다. 당시 시국은 APEC 회담 기간으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나라가 망했다", "전부 퍼줬어"라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렸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높이 들고 '나라가 위급하다', '일어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팻말을 흔들었으며, '한미동맹'이라는 대형 현수막 아래에서 기도와 찬송이 이어졌다. 나는 직접 제작한 연구 참여 명함(QR 코드 포함)을 배포하며 참여자를 모집했다.

2.참가자 특징참가자 대부분은 70~90 대 노년층으로 전쟁 경험 세대이며 은퇴 목회자와 예비역 군인 출신이 다수였다. 복장은 군복, 붉은 점퍼, 태극기 문양 의류였으며 가슴에는 '한미동맹', '평화군 경찰대', 'MAGA'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신앙적 확신 속에서 집회를 예배처럼 참여하고 있었다.

3. 활동과 상호작용

참석자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깃발 흔들기, 북 연주 등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공산주의는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구호가 반복되며 정치적 언어가 신앙적 언어로 전환되었다. 성조기는 단순한 외교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자유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다.



3.직접 관찰 내용

다음은 현장에서 만난 전직 목회자(85 세, 전 신학대학 교수)와의 실제 대화 일부이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인식하며 깃발을 신앙적 실천의 도구로 이해했다. 장시간 대화 후 구글 폼을 통해 연구 참여 등록을 완료하였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의 요지이다.
(※ 실명은 가명 처리)

연구자: 목사님,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드시고 계시네요. 어떤 의미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참가자 G(남, 85 세): 그렇죠. 이 성조기에는 의미가 있고 태극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학교에서 빨갱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습니다.

연구자: 깃발을 흔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가자: 나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라를 위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월남전 참전 때 깨달았어요. 나라가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걸요. 성조기는 자유의 상징이에요.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어요. 깃발을 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내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연구자: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참가자: 교회가 잃은 게 많지만 결국 나 자신이 바로 서야 합니다. 나는 병을 겪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병사예요.

5. 연구자성찰

본 집회에서 관찰된 깃발 흔들기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출을 넘어, 참가자들에게 예배적 행동과 유사한 감정적, 신체적 리듬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참가자들은 깃발을 드는 순간을 기도, 헌신, 혹은 신앙적 고백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국가 상징과 신앙적 정체성이 동일한 의미 체계 안에서 재배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반공주의적 언어가 이념적 언술이 아니라 신앙적 표현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마귀의 전략"과 같은 문구는 정치적 적대 라기보다는 '영적 선악구도'의 프레임 안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퇴직 이후 자신의 역할이 축소된 노년층 참가자들은 집회 참여를 통해 '여전히 쓰임 받는 존재'라는 감각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병사' 혹은 '사명 수행자'로 재정의하려는 정체성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직 목회자와의 대화에서도 깃발이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기도의 도구'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역할의 증표'처럼 여겨지고 있음이 암시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국가와 신앙의 상징 체계가 서로 구분되지 않고 결합되는 해석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는 향후 심층면접에서 더 명확하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

6. 도출된 주제

(※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탐색할 예비적 주제)

첫째, 존재감 회복을 위한 수행적 참여

집회에서의 국기 흔들기와 구호 제창은 단순한 정치적 행동이라기보다, 노년 참가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쓰임 받는 존재다"라는 감각을 생성하는 수행적 실천(performance)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관찰되었다. 이는 은퇴 이후 상실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대응 방식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반공주의의 경험적, 정서적 내면화

반공주의는 단순한 이념적 신념이라기보다는 전쟁과 생존 기억에 뿌리내린 경험적 감정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기억은 신앙 언어와 결합되어 '영적 전쟁'의 서사로 형성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셋째, 국가 상징의 신체화(embodiment)와 내면화 가능성

태극기와 성조기를 몸 가까이 두르거나 지속적으로 흔드는 행위는 국가 상징이 신체를 매개로 내면화되는 신체적 실천의 한 형태로 이해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와 신앙의 경계가 일상적 신체 경험 속에서 재구성되는 지점으로 보인다.

7. 후속 질문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 때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국가를 위한 헌신과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이든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고 느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8. **추가 메모**(Additional Notes)**와 향후 계획**(Next Steps) 태극기 우산은 '기억 + 신앙 + 국가 + 몸'이 결합된 상징적 자기 정체화 도구였다. 이는 노년층의 자기구원(self-salvation)적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11 관찰일지

Date / 날짜	Time / 시간	Location / 장소	Weather / 날씨
2025 년 11 월 16 일 (토)	오후 1 시 – 4 시	서울 시청 광장	흐림, 약 14° C 약간의 바람

관찰자: 이규운

1. 현장 개요

광화문광장에는 수천 명 규모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참가자 대다수는 60~80 대의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대형 화면에서는 찬송가와 군가가 교차로 재생되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5 미터 길이의 대형 성조기를 들고 있던 한 노년 남성이었다. 성조기가 바람을 받아 위로 길게 휘어 오르는 모습은 집회 전체의 상징적 장면을 형성하고 있었다.

2.참가자 특징

본 집회 참가자의 주요 연령층은 60~90 대의 노년 세대로, 전쟁, 군사정권, 산업화 시기를 모두 통과한 생애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의 복장과 소지 물품은 개인의 정체성과 신념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상징 장치로 기능하고 있었다. 특히 대형 성조기를 들고 있던 노년 남성들의 경우, 깃발은 어깨와 팔, 등 근육의 움직임 전체를 사용해야 겨우 흔들 수 있는 크기(약 5m 수준)였다.



깃발은 그들의 몸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결합된 하나의 신체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깃발을 흔드는 자세는 찬양 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매우 유사했으며, 그 표정 속에는 결연함, 기도,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3. 활동과 상호작용

참가자들은 깃발을 흔드는 행위를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신앙적 찬양 행위로 이해하고 있었다.
대형 성조기 아래, 사람들은 손을 들거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듯 노래를 불렀다.
깃발 흔들기는 '예배의 몸짓'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4.직접 관찰 내용



다음은 현장에서 만난 노인(남,65 세, 대전거주)으로 그는 약 3-5 미터 길이의 대형 성조기를 들고 있었다. 잠시 대화를 요청했고 기꺼이 내게 달려와 몇 가지 질문에 그는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해주었다. 대전 소재 대형교회에 다닌다는 노인은 집회 참석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얼굴에 꽤 많이 표현되었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의 요지이다.
(※ 실명은 가명 처리)

연구자:
"매주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신다고 하셨죠.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참가자 H(무명, 남, 64 세)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우린 끝이니까요. 내가 죽고 나라가 산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성조기를 가리키며)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겁니다. 원단 사서 자르고 이어붙였어요. 그냥 흔드는 게 아니라… 이건 찬양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들어올 때 춤을 췄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요. 성령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줘요."



연구자:
"성조기에 적힌 이 이름들은… 혹시?"

참가자 H: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내 손주들이에요.
미국을 잊지 말고, 대한민국을 기억하라고. 내가 없어도...
얘들은 기억해야죠.
깃발을 흔들 때면… 얘들한테 희망을 흔드는 겁니다."

연구자:
"가족들과 의견이 다를 때도 있으신가요?"

참가자 H:
"있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 믿어요.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아무 것도 없다는 걸."
(찬송가가 울려 퍼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광장 중앙으로 걸어가 깃발을 크게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함.)

5. 연구자성찰

이번 관찰에서는 집회 참여가 단순한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노년 세대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보였다.깃발 흔들기 행위는 예배적 몸짓과 결합되어 있었으며, 반공주의는 영적 언어 구조 속에서 재해석되고 있었다. 또한 국가 상징은 신체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고, 신앙,역사, 가족에 대한 기억은 세대 전승의 서사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초기 관찰은 향후 심층면접에서 더 면밀히 탐색해야 할 주제들로 판단된다. 깃발 흔들기는 정치적 표현을 넘어 예배적 몸짓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노년에게 집회는 '나는 여전히 쓰임 받는다'는 정체성 회복의 장으로 보인다. 반공주의는 이념적 학습이 아니라 생존 경험에서 형성된 신앙적 감각으로 나타난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신체 가까이에 두는 행위는 국가-신앙-자아의 신체적 결합(embodiment)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손주들의 이름을 깃발에 새기는 행위는 기억의 세대 전수(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의 한 방식으로 보인다. 깃발 흔들기는 정치적 표현을 넘어 예배적 몸짓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노년에게 집회는 '나는 여전히 쓰임 받는다'는 정체성 회복의 장으로 보인다. 반공주의는 이념적 학습이 아니라 생존 경험에서 형성된 신앙적 감각으로 나타난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신체 가까이에 두는 행위는 국가-신앙-자아의 신체적 결합(embodiment)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손주들의 이름을 깃발에 새기는 행위는 기억의 세대 전수(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의 한 방식으로 보인다.

6. 도출된 주제

(※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탐색할 예비적 주제)

첫째, 반공주의의 신학적 재구성(Anti-Communism as Moral – Spiritual Narrative)
반공주의는 정책이나 이념 담론보다, 전쟁과 생존의 기억 위에 형성된 도덕적 감정으로 나타났으며, '악/마귀'와 같은 신앙 언어를 통해 영적 전쟁의 서사로 재해석되고 있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데올로기가 신학적 의미 체계로 변환되는 과정일 가능성을 내포한다.

둘째, 국가 보존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이해하는 신학(Nation as Condition for Salvation Narrative)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없다"는 진술은, 국가 존속을 신앙 실천과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이해하는 특정한 구원 이해를 암시한다. 이는 향후 '하나님 나라 vs 국가 동일시'라는 신학적 긴장을 분석할 핵심 범주로 발전 가능하다.

셋째, 가족과 미래 세대 기억의 신앙적 전승(Intergenerational Sacred Memory)
손주들의 이름을 깃발에 새기는 행위는 개인적 가족 기억이 국가와 신앙의 이야기 속에 결합되어, 미래 세대를 향한 신앙적 증언과 책임 의식으로 확장되는 서사로 나타났다. 이는 신앙, 역사, 가족 기억이 하나의 구원 서사 안에서 엮이는 구조일 수 있다.

7. 후속 질문

"나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감정은 어떤 역사적 기억과 연결되어 있나요?"
"집회 참여가 개인의 신앙생활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손주들의 이름을 성조기에 새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깃발을 흔들 때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이 행동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주기를 바라시나요?"

8. 추가 메모와 향후 계획

이번 관찰에서 노년 남성 참가자는 깃발 흔들기를 신앙적 소명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대형 성조기에 손주들의 이름을 새긴 행동은 국가 상징을 가족과 세대 기억과 연결하는 개인적 의례처럼 보였다.
이는 국가, 신앙, 가족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 체계 안에서 재구성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그는 깃발을 흔들 때 성령의 뜨거움을 느낀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집회가 단순한 정치적 참여를 넘어 예배적 감정 구조 속에서 경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초기 관찰 단계이므로, 향후 심층면접에서 깃발, 신앙, 세대 서사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구체적 탐색이 필요하다.

#12 관찰일지

Date / 날짜	Time / 시간	Location / 장소	Weather / 날씨
2025 년 12 월 6 일 (토)	오후 1 시 – 4 시	서울 시청 광장	흐림, 신선한 가을 바람, 체감 14~17° C

관찰자: 이규운

1. 현장 개요

이날 광화문광장은 노년층의 대규모 집회로 형성되어 있었다. 무대에서는 “자유 수호”, “공산화 저지”, “한미동맹 회복” 등의 구호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으며, 참석자들은 국기(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응답했다. 그리고 2016 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등장한 김정은을 상징하는 인형을 철장에 넣어 끌고 가는 퍼포먼스가 다시 등장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대형 마스크 인물과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한 정치 집회라기보다 전쟁의 기억과 국가 신앙, 그리고 정체성 복원의 감정이 교차하는 의례적 장(場)으로 보였다.



2.참가자 특징

본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60~90 대 노년층으로 한국전쟁, 산업화, 군사정권 시기의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로 교회 공동체 경험이 대부분 길었고 국가와 신앙의 결합이 내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다. 태극기 문양 상의, 군복 스타일 점퍼, 특히, ‘자유마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다. 상징적 복장을 착용이들은 국가를 지키는 일은 곧 신앙적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이들에게 국가는 단순한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보호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였고 복장을 통한 표현은 그 신념을 몸에 새기는 행위처럼 보였다.



3. 활동과 상호작용

현장에서 국기를 흔드는 움직임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반복되고 있었다. 그 리듬은 교회 예배 중의 찬양이나 응답기도의 박자감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칠 때도 단순한 정치적 요구라기보다는 하나의 공동체적 외침으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반공에 대한 언급은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옳음과 그름, 지켜야 함과 무너짐의 문제로 말해지는 경향이 보였다. 이러한 언어 방식은 반공주의가 단순한 사상이기보다는 삶의 경험과 신념에 연결된 서사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직접 관찰 내용

현장 한쪽에서 '자유마을'이라는 문구가 적힌 흰색 셔츠를 입은 60 대 후반의 남성 참가자를 만났다.
그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동시에 들고 있었으며
천천히 깃발을 흔들면서도 표정은 매우 단단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아래는 그와 나눈 대화의 요지이다.
(※ 실명은 가명 처리)

연구자:
어르신 옷에 적힌 '자유마을'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의미인가요?

참가자 K(무명, 남, 68 세):
(잠시 깃발을 쥔 손을 조여 쳐다보며)"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빼앗겨 본 사람들이에요. 전쟁 나고, 굶고, 쫓기고… 그때는 나라가 없으면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연구자:
지금 이 집회에 계속 나오시는 이유도 그 '자유'와 관련이 있을까요?

참가자 K :
"그렇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같아요. 공산이니 이념이니…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키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아,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가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말의 속도는 느리고 또렷했고,
말을 이어갈수록 표정은 더 단단해졌다.)

5. 연구자성찰

이번 관찰에서는 집회 참여가 단순한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노년 세대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보였다.
깃발 흔들기 행위는 예배적 몸짓과 결합되어 있었으며, 반공주의는 영적 언어 구조 속에서 재해석되고 있었다. 또한 국가 상징은 신체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고,
신앙,역사, 가족에 대한 기억은 세대 전승의 서사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초기 관찰은 향후 심층면접에서 더 면밀히 탐색해야 할 주제들로 판단된다.

6. 도출된 주제

(※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탐색할 예비적 주제)

첫째, 자유의 신앙적, 생존사적 재정의
참가자가 말하는 '자유'는 개인의 선택권이나 표현의 자유라기보다,전쟁, 결핍, 상실을 겪은 생존 경험 속에서 형성된 신앙적, 국가적 보호 질서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둘째, 전쟁 기억에 기반한 반공 인식의 도덕화
반공주의는 추상적 이념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몸으로 겪은 역사"에 근거한 윤리적, 도덕적 확신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 인식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언어를 통해 영적 전쟁의 서사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7. 후속 질문 "어르신이 말하는 '자유'는 신앙과 국가에서 각각 어떤 형태로 경험되는가?" "공산주의에 대한 감정은 개인의 생애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8. **추가 메모와 향후 계획** 이번 관찰에서 이 대화는 반공주의가 단순한 교육이나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전쟁과 결핍의 체험에서 비롯된 생애사적 기억임을 시사한다. '자유'는 도덕적, 종교적, 역사적으로 겹겹이 쌓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국기 흔들기와 구호 제창에 동참하는 행위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쓰임 받는다는 자기 확인의 행위로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구조가 어떻게 개인 신앙과 국가 상징을 결합시키는지는 심층면접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3 관찰일지

Date / 날짜	Time / 시간	Location / 장소	Weather / 날씨
2025 년 12 월 13 일 (토)	오후 1 시 – 4 시	서울 시청 광장	낮 최고 약 4~7°C,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짐
관찰자: 이규운			

1.현장 개요



현장에는 약 8,000 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으며, 참가자의 다수는 노년 세대로 보였다. 집회는 도심의 개방된 광장에서 진행되었고, 대형 스크린과 음향 장비, 좌석 배치, 안내 요원들의 동선 통제 등을 통해 하나의 조직화된 집회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공간은 일상적인 공공 광장이었으나,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예배와 유사한 분위기와 질서를 갖춘 특별한 공적 신앙 실천의 장으로 전환되어 있었다.
현장에서는 연단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발화 구조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발언자는 마이크와 스크린을 통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질문하거나 상호 토론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취와 동조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설교와 연설은 명확한 방향성과 메시지를 가지고 반복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박수, 구호, 찬송을 통해 반응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쌍방적 소통이라기보다는, 이미 설정된 메시지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형태에 가까워 보였다.

2.참가자 특징

본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60~90 대 노년층으로 한국전쟁, 산업화, 군사정권 시기의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로 교회 공동체 경험이 대부분 길었고 국가와 신앙의 결합이 내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다. 태극기 문양 상의, 군복 스타일 점퍼, 특히, '자유마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다. 상징적 복장을 착용이들은 국가를 지키는 일은 곧 신앙적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이들에게 국가는 단순한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보호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였고 복장을 통한 표현은 그 신념을 몸에 새기는 행위처럼 보였다.

3. 활동과 상호작용

특히 주목된 점은 집회 현장 곳곳에 배치된 책과 인쇄물들이었다.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후, 혹은 휴식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책을 살펴보거나 구매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이미 익숙한 듯 책의 특정 부분을 서로 가리키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이 과정에서 책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나 질문보다는, 저자의 서사를 다시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방식의 읽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독서 행위는 개인적인 선택처럼 보였으나, 집회라는 공적 공간과 결합되면서 하나의 학습 장면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 현장에서의 학습은 교실이나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하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설교, 구호, 찬송, 깃발, 책, 사진 이미지 등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참가자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신앙적, 국가적 의미 체계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었다. 이는 강의실에서의 학습과 달리 선택과 중단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적 공간 전체가 하나의 학습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4.직접 관찰 내용

현장 한쪽에서 '경동고등학교 동창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발견했고 대체로 말없이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으나, 깃발을 놓지 않은 채 집회 공간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었다. 이 장면은 집회 참여가 일시적 행동이 아니라, **신체적 피로 속에서도 지속되는 수행**임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관찰되었다. 공적 공간의 일상적 시설물(보도, 벤치) 위에서 국가 상징이 함께 배치되며, 집회 공간과 일상 공간의 경계가 겹쳐지는 장면이 형성되고 있었다. 아래는 그들과 나눈 대화의 요지이다.



참가자 A (남, 70 대 후반)참가자 B (남, 70 대 중반)참가자 C (남, 80 대 초반)
(※ 실명은 가명 처리)

연구자
어르신들, 잠깐 쉬고 계시네요. 이렇게 오래 앉아 계셔도 깃발은 계속 손에 쥐고 계시네요.



참가자 A(남, 70 대 후반)
(웃으며) 이건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쉬어도 이건 잡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연구자
이런 집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언제부터였나요?

참가자 B(남, 70 대 중반)
계기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반공 교육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구자
학교에서요?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참가자 A(남, 70 대 후반)
많이 들었죠.
그때는 교단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연구자
교단이 달라도요?

참가자 A(남, 70 대 후반)
고등학교 동창들 보면요, 누구는 장로교, 누구는 감리교, 누구는 성결교 다녔어요. 근데 나라 사랑하라는 건 다 똑같이 배웠어요.

참가자 B(남, 70 대 중반)
목사님 설교에서요."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다","공산주의는 하나님 부정하는 사상이다",이 말 안 한 교회가 없었어요.

참가자 C(남, 80 대 초반)
예배 때 들은 말이 더 오래 남아요.학교에서 배운 건 머리로 아는 거고, 교회에서 들은 건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참가자 C(남, 80 대 초반)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걸 가르칠 데가 없는 것 같아요.학교도 안 가르치고, 교회도 조심하고.

연구자
그렇다면 어르신들 보시기엔, 지금은 '가르치는 구조'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참가자 B(남, 70 대 중반)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가자 A(남, 70 대 후반)
배우는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몸으로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고.

참가자 C(남, 80 대 초반)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았을 뿐인데, 이제는 그 배움 자체가 틀렸다고 하니까…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5. 연구자 성찰

학교와 교회라는 제도적 학습 구조를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된 삶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교단과 교회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통해 '나라 사랑'과 '반공'이 일관되게 가르쳐졌다는 진술은, 반공주의가 특정 집단의 극단적 신념이 아니라 당대의 공적 학습 구조 속에서 정상화된 가치 체계였음을 보여준다.

6. 도출된 주제

(※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탐색할 예비적 주제)

첫째, 반공주의의 학습된 삶의 방식화

참가자들은 반공주의를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나 특정 시기의 이념적 반응으로 설명하지 않고, 학교와 교회를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체화된 삶의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반공은 '나중에 택한 생각'이 아니라, 성장 과정 속에서 당연한 규범으로 배워지고 살아내야 했던 가치로 인식되고 있었다.

둘째, 학교와 교회의 이중 학습 구조

반공주의는 학교 교육을 통해 인지적으로 학습되었고, 교회의 설교와 예배를 통해 정서적, 신앙적으로 내면화되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교회의 설교가 학교 교육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삶의 방향을 형성하는 학습 경험이었다고 회상하며,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학습 구조로 작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 **후속 질문**

"어르신께서는 학교와 교회에서 배웠던 반공이나 나라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고 느끼십니까? 그 배움이 삶의 어느 순간에 가장 강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산주의에 대한 감정은 개인의 생애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요?" "요즘 학교나 교회에서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거나,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그런 변화가 어르신의 신앙이나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8. **추가 메모와 향후 계획**

이번 관찰에서 노년 세대의 신앙과 정치적 실천을 교정하거나 판단하기보다, 무엇이 어떻게 학습되었는지, 그리고 그 학습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묻는 접근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부록 B: 연구 참여서와 동의서
(Appendix B: Informed Consent Form and Information Sheet)

본 연구 참여자 설명서와 동의서는 연구자가 연구를 시행하고자 할 때 사전에 해당 연구 참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 후 자발적인 동의를 얻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설명서

연구제목: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이 국가 상징을 신앙적으로 내면화하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이 연구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년 세대 크리스천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고 살아오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면담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믿어온 신앙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태극기 집회 경험이 신앙과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노년 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갈등을 더 깊이 이해하고, 교회가 세대 간 소통과 돌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 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지인들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연구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

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노년 세대 크리스천들이 역사적 경험과 신앙적 배경 속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같은 국가 상징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이를 통해 정체성과 신앙을 표현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에는 태극기 집회 참여 경험이 있는 65세에서 90세 사이의 한국 노년 세대 크리스천 1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단, 기독교 신앙이 없거나 태극기와 성조기 관련 집회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됩니다.

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약 60분 정도의 개별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에 참여하게 됩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구자는 태극기와 성조기 집회 참여 경험, 신앙생활, 그리고 그 경험이 정체성과 신앙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면담 과정은 귀하의 동의 하에 녹음과 필사로 기록되며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필요할 경우 연구자는 추가 면담(약 30분 이내)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이는 귀하의 동의 하에 진행됩니다.

또한, 면담 후에는 귀하께 면담 내용의 요약본을 확인(검토)해 주시도록 요청드릴 예정이며 이 과정은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전체 연구 참여 기간은 약 1개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참여자는 1~2회 면담에 참여하게 됩니다.

5. 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지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를 중단하고자 하신다면 연구자 또는 아래 11번에 기재된 연구 문의 담당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여 중지를 원하실 경우 귀하의 면담 자료는 더 이상 연구에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녹음 파일과 필사 자료는 즉시 암호화된 저장장치에서 안전하게 삭제될 것입니다.

6. 부작용 또는 위험과 불편함

이 연구 참여 과정에서 면담 중 일부 질문이나 회상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감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하거나 참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 피로감 또는 심리적 불편함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구자 또는 아래에 기재된 연구 문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또는 비용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지불해야 할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없습니다. 모든 연구 절차는 자발적 동의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귀하의 참여는 순전히 연구 목적을 위한 귀중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8.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본 연구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지만, 연구에 참여하시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서적, 신앙적, 관계적 유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삶의 경험과 신앙 이야기를 안전하고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이 정서적 치유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경험이 한국 사회와 교회의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돕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4.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온전히 경청하며, 참여자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참여자에게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9. 자료 보관과 폐기

녹취와 필사 파일은 암호화된 저장장치에 연구 참여자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1년간 보관한다. 이는 후속 연구나 비교 연구 가능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간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자료는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파기된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익명화)절차를 거쳐 보호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10.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이름, 성별, 연령, 교회 출석 기간, 태극기 집회 참여 기간, 면담 녹취 내용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관련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암호화된 저장 장치에 보관되며 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가 학회나 논문에 공개될 때에는 귀하의 이름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일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연구 종료 후에는 모든 연구 관련 자료를 완전 삭제하거나 파쇄하여 폐기할 예정입니다.

11.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연구책임자에게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합니다. 김용환 박사(ykim@cst.edu / 010-oooo-oooo)와 김남중 박사(njkim@cst.edu / +1-646- ooo-oooo)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동 의 서

연구제목: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이 국가 상징을 신앙적으로 내면화하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서를 읽었으며 연구자와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6.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 김두영 위원장(duyoung.kim@cst.edu /010 oooo-oooo)에게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서명(Signature of Research Participant)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이름	
연구 참여자 서명	
날 짜	
주 소	
전화 번호	
이메일	

희망하는 인터뷰 (대면 인터뷰 / 비대면 인터뷰)

증인의 서명(Signature of Witness)

나의 서명은 나와 동석 하에 연구 참여자가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 동의서에 서명했음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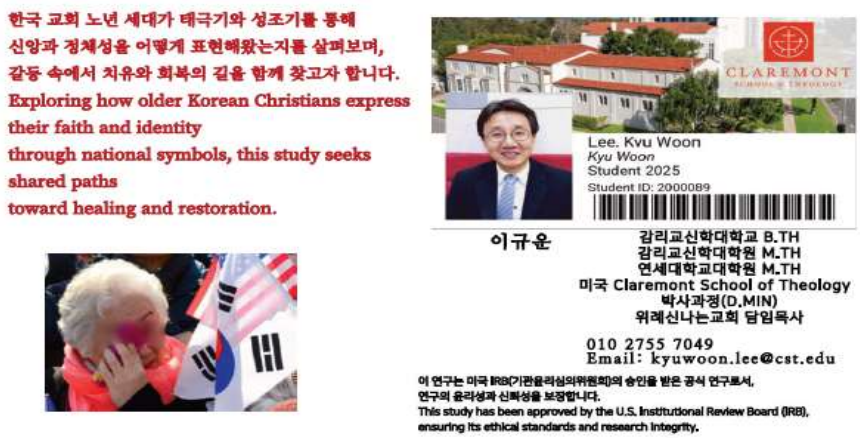
증인의 서명 날짜

연구자 서명 날짜

귀하의 기록을 위하여 이 문서의 사본이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부록 C: 심층면접참여자 모집 명함[177]
(Appendix C: Recruitment Card for In-Depth Interview Participants)

1st





[177] 명함은 두 번에 걸쳐서 만들었다. 노년 층이 읽기에는 글자가 작아서 이후 다시 제작했다.

2nd


한국 교회 노년 세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통해 신앙과 정체성을어떻게 표현해왔는지
를 살펴보며,갈등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길
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연구자 소개
감리교신학대학교 B.TH
감리교신학대학원 M.TH
연세대학교대학원 M.TH
미국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박사과정
위례신나는교회 담임목사 이규운
010-2755-7049


연구 참여자 모집
신청해 주세요
지금
QR코드를 스캔하면 참여 안내 영상과 설문 링크로 이동합니다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이 국가 상징을 신앙적으로 내면화하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The Internalization of National Symbols in the Faith of Older Korean Christians: A Grounded Theory Approach

부록 D: 초기 연구 구상에 대한 동료 연구자 피드백
(Appendix VII: Peer Feedback on the Initial Research Design)

1. 피드백 세션 개요

일시: 2025 년 4 월 14 일(오전 9 시-정오 12 시)

참여자: 동료 박사 과정 연구자 5 인, 후속 기수 연구자 9 인, 지도교수 1 인

형식: Zoom 을 통한 온라인 발표와 토론



2. 주요 피드백 요약

1) 주제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노인 크리스천'이라는 연구 대상은 한국 사회에서 신앙, 정치, 세대 정체성이 교차하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실천신학적 성찰과 사회과학적 분석을 동시에 요구하는 적절한 연구 주제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보완 지점:
연구 대상을 '노인 크리스천'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아닌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방법론에 대한 검토

타당성 확보: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경험에 근거한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본 연구 주제에 적절한 방법론적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개선 제안:
중심현상(core phenomenon)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 근거이론의 축 코딩(axial coding) 분석 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통해 이론적 진술로 통합될 가능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용어 정의와 개념 정교화
검토 의견:
'자기(self)의 의미화(Identity Formation)',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에이지즘(ageism)', '제럴드 메이의 세 가지 영성' 등 주요 개념의 정의가 다소 포괄적이거나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보완 제안:
각 개념을 국제 학술 논문 또는 권위 있는 이론가의 정의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해당 개념이 본 연구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특히 '자기 의미화' 개념은 참여자의 자기 서사와 신앙적 정체성 구성 과정에 적용되는 핵심 개념임을 보다 분명히 기술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4) 연구자의 위치성(reflexivity)
검토 의견:
연구자가 지닌 신학적 입장과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가 연구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자의 위치성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서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완 제안:
자기 고백적 서술의 유익성을 유지하되, 학문적 거리두기와 비판적 성찰을 함께 고려하는 서술 방식이 요청되었다.
(5) 인터뷰 질문 설계
검토 의견:
현재 제시된 20 개의 인터뷰 질문은 60 분 내외의 심층 면접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과도하다는 평가가 제시되었다.
재구성 제안:
질문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8~9 개의 핵심 심층 질문으로 압축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예를 들어 '신앙 정체성', '정치적 관점', '태극기와 성조기의 의미 인식' 등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이 언급되었다. 아울러 각 질문이 어떠한 분석 범주(예: 정치적 성향, 종교적 의미화, 세대 경험 등)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록 E: 프로그램 참여자 자서전 질문 양식[178]
(Appendix E: Program Participant Autobiographical Questionnaire)

1 회차 — 어린 시절, 가족, 형성기의 기억

1.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2. 고향은 어떤 곳이었고,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나요?
3.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4.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5. 어린 시절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기억은 무엇인가요?
6.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놀이나 일상은 무엇이었나요?
7. 어린 시절 당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8. 가족과 관련된 냄새, 음식, 손길 중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9. 어린 시절 두려움이나 상처로 남은 경험이 있다면요?
10. 지금 돌아보면, 어린 시절이 당신에게 남긴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요?

2 회차 — 청년기, 일, 사랑,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

11. 학교생활이나 청년 시절은 어떠했나요?
12. 공부나 일 외에 마음을 쏟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13. 그 시절 사회나 나라의 분위기는 어떻게 기억되나요?
14. 사랑이나 결혼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였나요?
15. 일과 생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왔나요?
16.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17. 일터나 가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18.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셨나요?
19.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느끼는 전환점이 있나요?
20. 그 시기의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3 회차 — 노년의 삶, 의미, 그리고 후세에게 전하는 말

21. 지금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22. 노년의 삶에서 가장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178] 본 자서전 질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가 아니라, 노년 참여자의 기억과 의미 형성을 촉발하기 위한 서사적 질문 목록이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각 회차별로 참여자의 상황과 흐름에 따라 일부 질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23. 나이가 들며 가장 달라진 생각이나 태도는 무엇인가요?
24. 지금의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25. 나이 들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26.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27. 지나온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28.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29. 젊은 세대나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30. 지금 이 순간,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부록 F: 프로그램 참여자 자서전 샘플
(Appendix F: Sample Participant Autobiography for the Program)

제 1 장. 산골에서 태어난 아이



나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현리, 깊은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봄이면 산나물 냄새가 마을 골짜기를 메웠다.
아침이면 닭 울음소리로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면 촛불 하나로 밤을 보냈다.
나는 그때 그 세상이 세상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하지 않았다.
총성이 들리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6·25 전쟁이 터진 것이다.
그때부터 내 어린 인생은 산이 아닌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갔다.

아버지는 그 혼란 속에 북쪽으로 넘어가셨다.
누구는 월북이라 했고, 누구는 잡혀갔다고도 했다.
그저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았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아버지 없는 집이 되었고,
어머니는 여섯 남매의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셨다.

제 2 장. 전쟁이 가족을 갈라놓다



전쟁은 사람을 바꾸고, 땅의 경계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전에는 그냥 양양 땅이었는데, 전쟁 후에는 그 땅이 북쪽이 되었다.
나는 하루아침에 '이북 출신 아이'가 되어 있었다.

큰언니는 시집가서 북으로 갔고,
큰오빠는 공부 잘해서 교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월북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발령이 취소됐다.
그날 오빠는 하늘이 무너진 듯 울었다.
어린 나는 그 울음의 이유를 다 몰랐지만, 그날 이후 오빠의 어깨는 평생 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다.
논밭일, 산일, 지붕을 얹는 일까지 남자들 하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초가집의 새 짚을 엮을 때면 손끝이 터지고 피가 배었지만,
그 손으로 여섯 아이를 먹여 살리셨다.



나는 그때 밥보다 죽이 더 익숙했다.
하얀 쌀밥은 구경도 못 했다.
가끔 쌀이 생기면 그날은 잔칫날이었다.
지금도 누군가 하얀 쌀밥 한 그릇을 내밀면, 그건 내게 기억 속의 눈물을 불러온다.

제 3 장. 다친 다리와 놓친 학교

나는 배우고 싶었다. 글자를 몰라 세상에서 소리 없이 밀려나는 게 싫었다.
하지만 세상은 내게 그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국민학교 1 학년이던 어느 날, 친구들과 다리 위에서 장난을 치다가 다리에서 떨어졌다.
그 후로 1 년 동안 누워 지냈다.
겨우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또 뽕나무에서 떨어졌다.

부록 G: 관찰 일지 양식[179]
(Appendix G: Observation Log Template)

Date / 날짜	Time / 시간	Location / 장소	Weather / 날씨

관찰자(Researcher):

1.현장 개요(Context / Setting)

2. 참가자(Participants)특징

3. 활동과 상호작용(Activities and Interactions)

4. 직접 관찰 내용(Direct Observation)

5. 연구자 해석과 성찰(Reflections / Interpretations)

6. 도출된 주제(Emerging Themes)
(※ 확정된 범주가 아니라, 심층면접 과정에서 탐색할 예비적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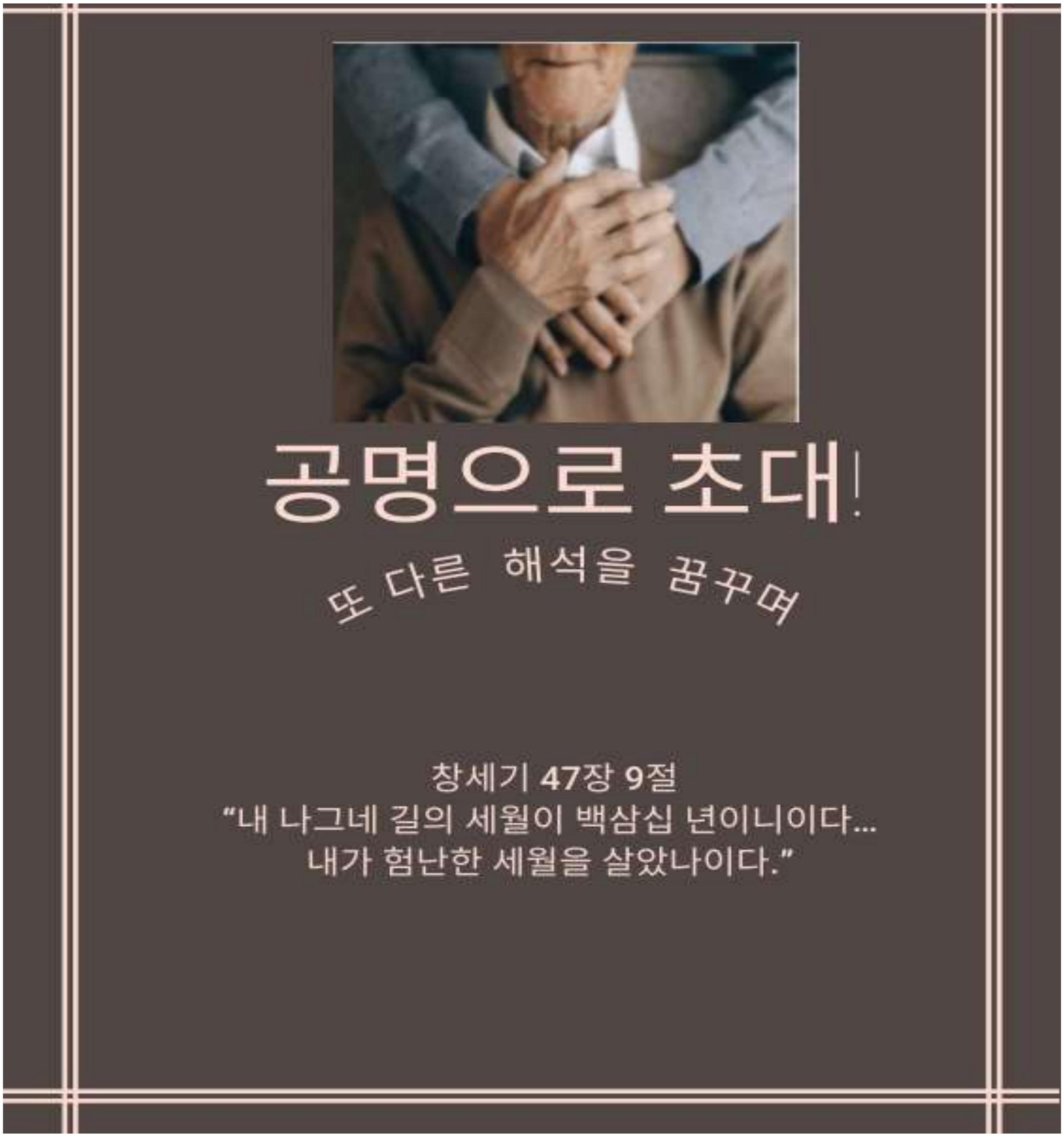
7. 후속 질문 (Follow-Up Questions)

8. 추가 메모(Additional Notes)와 향후 계획(Next Steps)

[179]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290-295. 본 연구의 관찰 일지 양식은 김영천이 제시한 질적 관찰 기록의 구성 원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현장에 맞게 기술적 기록(descriptive notes)과 해석적 기록(reflective notes)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부록 H: 프로그램 초대장
(Appendix H: Program Invitation)

앞면



뒷면

PROGRAM OVERVIEW

프로그램 안내

1주차-기억을 열다 (Opening Memory)

예전(Opening Liturgy)
기억의 자리 만들기 (Memory Activation)
말씀 & 묵상(Reflection Time)
소그룹 나눔(Small 공동 기도 & 축복(Blessing)Group Sharing)

2주차 -상징을 다시 읽다 (Reinterpreting Symbols)

예전(Opening Liturgy)
상징 탐구(Semiotic Exploration)
기억–상징 연결(Meaning-Making)
상징 재해석(Symbol Reinterpretation Practice)
공동 기도 & 축복(Blessing Ritual)

3주차 -공명을 전환하다 (Transforming Resonance)

예전(Opening Worship)
상실과 소외 경험 다루기 (Loss & Marginalization Work)
열린 해석 구조로 전환(Interpretive Shift)
공명 전환 예전(Ritual of Resonance Transformation)
사명 선언과 파송(Commissioning)

부록 I: 프로젝트 소개 영상
(Appendix I: Project Introduction Video)






질적 연구 참여자 모집
특히 태극기 집회나 성조기와 같은


질적 연구 참여자 모집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기관윤리심
사위원회)를 통과한 연구로

부록 J: 연구 참여자 모집 구글설문지
(Appendix J: Google Survey for Recruiting Research Participants)

질적 연구 참여자 모집 설문지

안녕하세요.
미국 서부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규운**입니다.

본 연구는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이 국가 상징을 신앙적으로 내면화하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로

한국 내 노인 기독교인들이 집회에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드는 신앙적 행위의 의미와 그 배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현상 기술이 아니라, **신앙, 정체성, 국가 상징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연결되는지를 탐색**하여,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과 의미 해석**을 바탕으로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 신앙과 사회적 참여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노년 세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통해
신앙과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해왔는지를 살펴보며,
갈등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Exploring how older Korean Christians express
their faith and identity
through national symbols, this study seeks
shared paths
toward healing and restoration.**





이규운

**감리교신학대학교 B.TH
감리교신학대학원 M.TH
연세대학교대학원 M.TH
미국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박사과정(D.MIN)
위례신나는교회 담임목사**

010 2755 7049
Email: kyuwoon.lee@cst.edu

**이 연구는 미국 IRB(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식 연구로서,
연구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This study has been approved by the U.S.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ensuring its ethical standards and research integrity.**

연구 개요

연구 제목: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이 국가 상징을 신앙적으로
내면화하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에이지즘과 반공주의 중심으로

연구 목적: 기독교 신앙과 국가 상징(태극기, 성조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봅니다.

연구 방법: 인터뷰 (직접 만나거나 Zoom)

시간: 약 1시간 정도

익명 보장: 이름과 인터뷰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연구자 정보 및 연구의 신뢰성

이름: 이규운
소속: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박사과정
이메일: kyuwoon.lee@cst.edu
전화번호: 010-2755-7049
이 연구는 박사 논문을 위한 공식 연구이며, 학교 윤리심의(IRB) 승인을 받았습니다.

- **학교 홈페이지:** https://cst.edu/students-homepage/
- **CST 한인 뉴스레터:** https://cst.edu/news/korean-news/

1.이름을 알려 주세요

단답형 텍스트

2.성별을 알려주세요. *

- 남성
- 여성
- 기타:

3.연령대를 알려주세요. *

- 60대
- 70대
- 80대

4. 현재 거주 지역을 말해주세요

- 서울
- 경기
- 그 외(서울 경기를 제외 한 지역)
- 기타(해외)

5. 당신은 종교가 기독교 입니까?

- 네
- 아니요

7. 이 연구에 관한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네, 참여하고 싶습니다
- 아니요
- 추후에 결정하고 싶습니다

8.심층인터뷰 참여를 원하는 경우,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단답형 텍스트

9. 인터뷰가 가능한 요일 및 시간대를 알려주세요

단답형 텍스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영향을 받나요?

A1. 연구 참여는 완전히 자발적이며, 언제든 원하시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제공해 주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Q2. 인터뷰는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A2. Zoom(온라인) 또는 직접 만남(카페, 연구실 등)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나요?

A3. 연구 결과는 박사 논문, 학술지 논문 및 학술 발표 등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인터뷰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Q4. 연구 참여 후에도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있나요?

A4. 아닙니다. 모든 인터뷰 데이터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자가 직접 신원을 보호합니다.

Q5. 태극기와 성조기에 대한 특정 정치적 입장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나요?

A5. 전혀 아닙니다. 연구는 특정 정치적 입장이 아닌, 신앙과 정체성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Q6. 연구 참여 시 금전적인 보상이 있나요?

A6.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금전적인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 참여가 기독교 신앙과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1~2일 이내에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세요:
📧 kyuwoon.lee@cst.edu 또는 010.2755.7049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연구자 이규운 드림

단답형 텍스트

부록 K: 프로그램 참여자 피드백 양식[180]

(Appendix K: Program Participant Feedback Form)

1. 기본 정보

성명(또는 이니셜):

나이대: 60 대 / 70 대 / 80 대 / 기타

참여 회차: 1 주차 / 2 주차 / 3 주차 / 전체

---

2.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평가

1. 오늘(또는 전체 프로그램)은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2. 예배와 활동(시 낭독, 이미지 작업, 상징 탐색, 식탁 교제 등)은 편안했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3. 감정과 기억을 돌아보는 과정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4. 프로그램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예: 자서전 다시 읽기, 찬양, 조용한 묵상 시간, 식탁 나눔 등)

서술형:

---

5. 진행자의 설명과 분위기(안내, 배려, 시간 운영 등)는 어떠했습니까?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3. 경험의 변화에 대한 질문

[180] 이 피드백은 연구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 평가용이다. 연구분석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6. 오늘의 경험 중 특별히 떠오른 기억이나 감정이 있었나요?
   서술형:

---

7. 태극기와 성조기 등 국가 상징을 다시 바라보는 경험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서술형:

---

8. 신앙과 삶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고 느끼셨나요?
   □ 그렇다 □ 약간 □ 모르겠다 □ 아니다

구체적으로:

---

9. 다음 회기나 이후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부록 L: 연구 참여자 피드백 양식[181]과 피드백 결과[182]

(Appendix L: Research Participant Feedback Form and Feedback Results)

1. 기본 정보

익명(또는 이니셜):

인터뷰/관찰 참여 날짜:

참여 방식: 관찰/인터뷰/프로그램 참여 연구

---

2. 연구 절차와 설명 이해도

1.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2. 질문 내용과 흐름이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3. 연구 참여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 전혀 부담 없음 ☐ 약간 부담 ☐ 다소 부담 ☐ 많이 부담됨
4. 연구 참여 중 불편하거나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까?
☐ 있었음 ☐ 없음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3. 감정적, 윤리적 안전감

5.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6. 개인정보와 이름과 개인 이야기가 보호된다고 느끼셨습니까?

[181] 대부분 심층 면접 참여자들은 구글설문지를 읽고 가족과 상의하고 나서 심층면접에 참여했다. 심층면접 후 피드백 참여 설문은 익명으로 수집되었으며, 연구 참여 여부와 연구 참여 결과는 참여자의 신앙 공동체 내 위치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되었다. 참여 결과 피드백은 후속 연구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182]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윤리적 안전감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종료 후 온라인 피드백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Google Forms 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제공된 QR 코드 링크를 통해 참여자가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7. 감정적으로 어려운 주제가 나왔을 때 연구자의 배려가 충분했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4. 연구자와 인터뷰 진행에 대한 평가

8. 연구자의 태도(경청, 질문 방식, 시간 관리)는 어떠했습니까?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아쉬움 있음

9. 연구 질문이 너무 개인적이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까?
서술형:

---

10. 향후 연구를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서술형:

---

5. 최종 의견

11. 전체 참여 경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서술형:

---

12. 연구 참여가 신앙과 정체성, 기억을 돌아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까?
□ 그렇다 □ 약간 □ 모르겠다 □ 아니다
필요한 경우 이유:

피드백 결과

연구 절차의 장점으로는 참여자들이 연구 목적과 절차를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구 참여 이전에 제공된 온라인 설명과 안내문은 참여자들이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인터뷰 과정 역시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참여자들이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과정이 단순한 조사 절차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신앙 경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부 참여자는 평소에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삶의 기억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반응은 질적 연구 과정이 참여자에게 성찰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피드백 설문이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고령 참여자들에게는 설문 참여 자체가 다소 익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설문 응답자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 경험에 대한 평가가 모든 참여자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이러한 피드백은 연구 과정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통계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피드백은 연구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경험한 장기적인 변화나 의미 형성 과정까지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향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노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과 더불어 간단한 구두 피드백이나 인터뷰 형식의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 경험이 참여자의 신앙 이해나 삶의 성찰에 어떠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노년 세대의 경험을 다루는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감정적 안전과 윤리적 보호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연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피드백 결과는 연구 절차가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에게 존중과 경청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피드백은 질적 연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연구 절차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M: 노년 세대의 기억 치유 기도회 내용과 참여자 피드백
(Appendix M: Healing Prayer Gathering for Elderly Believers)

날짜	시간	장소	참석 인원
2026 년 2 월 22 일 (주일)	오후 2 시 - 3 시 30	S 교회	노년 세대 15 명 젊은 세대 10 명

예배 인도자: 이규운 목사

1. 예배의 시작: 기억으로의 부름

예배의 시작에서 목회자는 하나의 초를 먼저 켜며 예배를 연다. 기존교회 전통에서는 장로나 특정 직분자가 초를 켜는 경우가 많지만, 기도회에서는 노년 세대와 청년, 청장년, 그리고 어린이까지 모든 세대가 각자의 초를 하나씩 가져와 함께 불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색깔과 모양의 초를 가지고 와 하나의 촛대나 그릇에 함께 놓고 불을 밝힌다. 이 상징적 행위는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기억의 공간 안에 함께 들어온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양한 모양의 초가 한곳에 모여 하나의 빛을 이루는 모습은 공동체가 서로 다른 삶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모일 수 있음을 상징한다.

2. 말씀 선포: 기억의 재해석

마음의 여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경 구절	창세기 47 장 7-12(개역개정)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8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노년의 삶 이야기 (참여자 이야기)	이 기도회에서 공동체는 바로 이 성경적 장면을 따라, 노년 세대가 자신의 삶을 다시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노년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억이나 물건을 하나 가져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초대된다. 어떤 이는 오래된 사진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이는 평생 간직해 온 성경책이나 작은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물건에는 한 사람의 삶과 기억이 담겨 있으며, 그 이야기를 공동체가 판단 없이 경청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신앙적 행위가 된다. 이 시간의 목적은 삶을 평가하거나 정리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공동체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처의 기억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얻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때, 기억은 더 이상 고립된 상처로 남지 않는다.
설 명	말씀은 창세기 47 장 9 절을 중심으로 선포하였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 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9) 이 말씀은 노년의 신앙이 단순한 신념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시간 속에서 형성된 기억의 이야기임을 보여준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설명하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한다. 야곱의 삶에는 수많은 상처와 갈등의 기억이 있었다. 그는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광야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했다. 그의 딸 디나는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복수의 살인을 저질렀다. 또한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믿으며 오랜 시간 슬픔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처럼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의 역사였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기억을 숨기거나 삭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 장면은 노년의 신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 노년의 삶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기억과 해석이 다시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기억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읽히며,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의미의 지평을 열게 된다. 따라서 이 기도회에서 야곱의 고백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로 읽히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신앙의 언어가 된다. 노년 세대는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젊은 세대는 그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듣는 공동체의 역할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말씀은 노년 세대의 기억을 지우거나 교정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고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는 서로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는 신앙의 여정에 참여하게 된다.
적　　용	기도회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 노년 세대의 상처와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다. • 그 기억은 오늘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읽히고 해석될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이다. • 젊은 세대는 노년 세대의 삶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맡는다. • 동시에 노년 세대 역시 오늘의 젊은 세대를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위해 축복하는 공동체가 된다. 이처럼 기억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의미를 얻는 신앙의 사건이 된다.

3. 관계적 기도: 서로를 위한 축복

말씀 이후에는 세대 간 상호 기도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에는 서로 다른 세대가 짝을 이루어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이 가능하다.

- 청년이 노년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
- 노년 세대가 젊은 세대를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린다.
- 할아버지와 학생이 서로를 안고 기도한다.

이때 참여자들은 서로를 가볍게 포옹하거나 손을 잡은 채 기도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접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세대 간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공동체적 상징 행위가 된다.

4. 성찬: 새로운 기억으로의 초대

기도 이후에는 성찬의 시간이 이어진다. 이 성찬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빵 만을 사용하는 대신,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빵을 준비해 올 수 있다. 각자의 빵은 서로 다른 삶의 경험과 기억을 상징한다. 다양한 빵들이 한 식탁 위에 놓이고 공동체가 함께 떡을 나누는 순간,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으로 경험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강조했다. •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 과거의 상처와 기억은 서로를 분리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기억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이다.	
찬 양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자에 함께 계심을 아 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가리니 시험을 당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의지 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파 송	예배의 마지막에서 나는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파송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모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고, 함께 기도했으며, 같은 식탁에서 떡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참여자들은 촛불이 켜진 공간을 바라보며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기도회 참여자 피드백

참여자 A (여,78 세)	“오늘 기도회에 오면서 오래된 결혼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못 하고 아이들을 낳은 뒤에야 늦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반지를 보면서 제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촛불을 함께 켜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고, 내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빛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저를 안고 기도해 줄 때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참여자 B (남,70 세)	“육성회비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 학교 가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시절의 서러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끝까지 들어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성찬 시간에 서로 다른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 인생이 다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C (여, 74 세)	“제가 가져온 것은 제 아이의 대학교 졸업식 때 찍은 제 사진입니다. 저는 가난해서 공부를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졸업장을 받을 때 제 졸업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났지만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청년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줄 때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참여자 D (남, 80 세)	“저는 오래된 은행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처음 통장을 만들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통장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E (여, 69 세)	“저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증을 가져왔습니다. 전쟁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했을 때 참 기뻤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절의 마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니까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참여자 F (여, 26 세)	“저는 오늘 기도회에 오기 전까지 어르신들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가져온 물건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촛불을 함께 켜는 순간 각자의 삶이 하나의 빛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여자 G (남, 45 세)	“한 어르신이 중동에 파견되었을 때의 현장사진을 보여주며 가족을 위해 일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울렸습니다. 기도 시간에 어르신을 안고 기도할 때 세대가 다르다는 생각보다 같은 공동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참여자 H (여, 23 세)	“어르신이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그냥 교회의 어른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그분도 저처럼 어린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들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참여자 I (남, 21 세)	“성찬 시간에 각자 다른 빵을 가져와 나누어 먹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식탁에서 떡을 나누는 모습이 공동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참여자 J (여, 18 세)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옹하며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종합 해석	기도회 참여자들의 반응은 노년 세대가 자신의 삶의 기억을 다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될 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년 세대는 자신의 삶의 기억이 존중받고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경험을 하였으며, 젊은 세대는 노년 세대의 삶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생애 서사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촛불을 함께 밝히는 상징적 행위, 세대 간 포옹 기도, 그리고 다양한 빵을 나누는 성찬의 경험은 세대 간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공동체적 경험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노년 참여자들이 자신의 기억과 물건을 자유롭게 해석하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조는 그들이 더 이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 경험의 해석 주체로 참여하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관련 사진	       









부록 N: 충정가와 심층면접 참여 신청 QR코드
(Appendix N: QR Code for Survey and Interview Participation (Chungjeongga))

충정가
질적 연구 심층면접 참여자 구글 설문지와 홍보 영상

부록 O: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질적 연구(2013-2025)

(Appendix O: Qualitative Research a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Related to This Study)

년도	저자	논문 제목	영향
2014	Tae Hyun Kim	Analysis of Sermons by Public Theology: A Case Study	공적 신앙 개념을 연결하는 이론적 징검다리
	Du Young Kim	Religious Ritual Enhancement of Ancestor Memorial Service in Korean Protestantism	의례의 재해석 / 몸과 신앙의 결합
2016	Sung Young Park	Postcolonial Preaching in Missionary Contexts	포스트식민주의 · 상호의존
2017	Sawook Park	Neo-nationalism of Churches in Japan from a Cosmopolitan Perspective	국가주의/신앙 결합 비판
2019	Bon Chang	A Qualitative Study of the Ministerial Directions and Pastoral Approaches to the Issues of the Old Generation in the Korean Church	노년 세대 신앙 이해 /목회적 접근
	Jeong Yeon Lim	Homophobia Embedded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Journalism: A Public Theological Investigation	이데올로기가 신앙 언어로 전환되는 메커니즘 분석
2020	Seonpil Hwang	Rural Church Liturgy in Postcolonial Perspectives: A Grounded Theory Approach	근거 이론 / 예배 /공적 공간
	Sang Won Woo	Transforming Colonial Mission	이데올로기 비판 신학
	Kwang-Kyun Kim	Developing Wholeness in Postcolonial Korean-American Christian Identities	정체성 회복 / 상실 이후 재구성
2021	Sang Soo Lee	Toward a Postcolonial Theological Education in Mongolia	근거이론
	Saebae Nam	Qualitative Study of Digital Contact Worship	예배 개념의 확장
	Junghwan Lee	Developing Pastoral Care to Resolve Conflicts Among Seniors, Old and New Members	세대 갈등 / 교회 내 위치 상실
	Doosik Chae	Pastoral Care for Intergenerational Conflicts and Ageism in the Korean Church	에이지즘/실천신학
2025	Chunsoo Oh	Toward Restructuring Pastoral Care in an Era of Super-Aging	초고령 사회 / 교회/노년의 공적 역할

부록 P: 반공주의와 애국주의 공명이 나타난 태극기 집회 현장 사진
(Appendix P: Taegeukgi Rally: Resonance of Anti-Communism and Patriotism)

관련 사진











부록 Q: 동료 검토법 피드백
(Appendix Q: Peer Review Feedback)

동료 참여자	피드백 내용
동료 A	1. 연구문제와 연구목적의 적절성 본 연구는 한국 사회 공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노년 세대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을 이해하고, 그 신앙이 형성되는 구조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는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세대 갈등과 신앙 표현의 차이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이는 실천신학적 연구로서 매우 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판단된다. 특히 태극기 집회 참여 노년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을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신앙 형성 구조의 문제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연구의 독창성과 실천신학적 의의를 보여준다. 연구문제 역시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국가 상징의 신앙적 내면화 과정, 에이지즘과 반공주의의 역할, 그리고 세대 갈등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질문은 연구 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문제, 연구목적, 연구결과, 실천적 제안으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은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연구방법과 연구설계의 타당성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하였으며, 현장 관찰, 심층 면담, 사진 자료 분석 등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다층적 자료 수집은 삼각검증(triangulation)의 측면에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절차를 따라 자료를 분석하고 중심 범주(core category)를 도출하는 과정은 근거이론 연구 절차에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 참여자 확인(member check), 장시간 관찰, 동료 검토 등 질적연구의 신뢰도 확보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은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자료분석과 이론 도출의 논리성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통해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라는 중심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공명(resonance)과 좁은 통로(neck) 구조로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자료 → 범주 → 중심 범주 → 이론 모형으로 이어지는 분석 과정은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보인다. 특히 노년 세대의 생애사적 경험(전쟁, 가난, 산업화, 반공주의 교육 등)과 국가 상징, 신앙 실천이 서로 결합되며 의미 구조를 형성한다는 해석은 질적자료를 기반으로 한 의미 해석으로서 설득력이 있다. 이 연구는 노년 세대의 신앙을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의미 형성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는 점에서 중요한 해석적 기여를 하고 있다. 4. 연구자의 위치성과 해석의 타당성 본 연구는 연구자가 목회자로서 경험한 갈등과 목회적 질문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는 실천신학 연구의 특징이기도 하다. 연구자가 자신의 목회적 경험과 선이해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은 연구의 진정성과 실천신학적 의미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동시에 연구자의 신학적 입장이나 목회적 경험이 자료 해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자의 위치성(positionality), 선이해, 해석 과정에서의 자기 성찰(reflexivity)에 대한 서술이 조금 더 보강된다면 연구의 해석 타당성과 신뢰

	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5. 연구결과와 실천적 제안의 적절성 본 연구는 단순한 이론 도출에 그치지 않고, 노년 세대의 기억과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기억 치유 기도회'라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신학 프로젝트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연구 결과 → 신학적 해석 → 실천적 제안 → 프로그램 제안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D.Min. Practical Research Project의 구조에 잘 부합한다. 연구 결과가 실제 목회 현장과 교회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천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종합 평가 본 연구는 한국 교회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세대 갈등과 노년 신앙 문제를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탐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특히 노년 세대의 신앙을 정치적 태도나 사회적 현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신앙 형성 구조와 의미 체계의 문제로 해석한 점은 이 연구의 중요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의 명확성, 질적연구 방법의 적용, 근거이론 분석 절차, 실천신학적 해석, 목회적 적용 제안 등 전반적인 연구 구조는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다. 다만 연구 참여자 설명, 자료 분석 과정의 구체적 예시, 연구자의 위치성에 대한 성찰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된다면 연구의 학문적 신뢰도와 설득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는 실천신학 질적연구로서 의미 있는 연구이며, 한국 교회의 세대 갈등과 노년 신앙 이해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연구라고 평가한다.
동료 B	본 검토자는 현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40 대 남자 동료 연구자이다. 또한 부모 세대 가운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아 왔기에,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일정한 문제의식과 공감의 지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단순히 특정 현상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시대를 살아낸 장년과 노년 세대의 신앙과 사회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뜻깊게 읽혔다. 본 논문은 한국교회 노년 세대의 공적 신앙 실천을 단순한 정치적 입장으로 환원하지 않고, 그들의 생애 경험과 역사적 기억, 그리고 신앙 형성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특히 연구자가 장기간 현장에 머물며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은 연구의 진정성과 깊이를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연구 태도는 질적연구가 지향하는 현장성과 이해 중심의 접근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본 연구는 근거이론의 형식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며, 자료 수집과 분석, 범주화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절차를 바탕으로 중심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신학적 성찰로 연결한 점도 본 논문의 중요한 강점이다.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들을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존중하며, 오늘의 교회가 장년 및 노년 세대를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는 점에서 목회적 의의가 크다. 다만 근거이론 연구로서 범주 도출 과정과 이론적 포화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보강된다면, 연구의 분석적 엄밀성과 설득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자의 해석적 위치와 선이해에 대한 성찰이 덧붙는다면, 논문의 신뢰도와 완성도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종합해보면, 본 논문은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실한 질적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장년과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을 의미 있게 조명한 연구이며, 학문적 가치와 목회적 적용 가능성을 함께 지닌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된다
동료 C	이 프로젝트는 초고령 사회와 이념적 갈등이 중첩된 한국 교회의 복잡한 현실, 그 중에서도 노년 세대의 신앙 형성과 국가상징 내면화의 문제를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깊이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단순히 '노인들의 정치 참여가 문제다'라는 현상적 비판에 머물지 않고,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에이지즘(Ageism)'과 '반공주의'라는 구조적 조건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통해 학문적으로 성찰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문제의식이 매우 날카롭고, 주제의 독창성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한국 목회 현장의 아픈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프로젝트의 큰 장점은 노년 세대의 '태극기'나 '국가 상징'에 대한 집착을 단순한 정치적 성향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연구자는 노인 성도들이 왜 이러한 상징을 신앙적으로 내면화하게 되었는지를 그들의 생애사적 고통과 사회적 소외(에이지즘)의 맥락에서 읽어낸다. 즉, 노인들의 행동을 교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존재론적 불안과 신앙적 응답의 과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한 것이다. 이는 노인 성도를 단순한 '계도의 대상'이 아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신앙을 지켜내려 하는 '신앙적 주체'로 다시 세운다는 점에서 중요한 신학적, 목회적 공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법론과 신학적 대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이 연구의 강점이다. 연구자는 근거이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해석하는 틀로서 에이지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라는 신학적 가치를 제시한다. 에이지즘이 노인을 사회적 쓸모로 평가하여 변두리로 밀어내는 반면, 상호의존성의 신학은 노년의 신앙 경험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론으로 해석하며, 다시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실천으로 이어가는 실천신학의 흐름을 매우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년 세대의 경험을 '내면화'라는 키워드로 분석한 점은 인상적이다. 연구자는 노인들이 국가 상징을 통해 얻고자 하는 영적 위로와 정체성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건강한 신앙 실천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개인의 학위 논문을 넘어, 이념과 세대로 갈라진 한국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품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연구자의 목회적 고뇌가 담긴 이 연구가 한국 교회의 노인 목회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동료 D	태극기 집회라는 예민하고 복합적 현상을 목회적 돌봄과 성찰의 대상으로 가져온 연구자의 안목과 이후 자신의 논지를 깊이 있게 풀어나가는 학문적 성실성을 높이 삽니다. 1. 탁월한 점

	1)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연구 수행 – 연구자가 약 10 개월간 직접 태극기 집회 현장에 참여하여 관찰일기를 작성하고,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현장성을 구현한 점. 관찰자를 넘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동참하여 진정성을 확보한 점 2) 독창성 – 노년 세대의 신앙 형성과 증폭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공명이론을 가져와 이념선택을 넘어서 의미체계 구조로 분석함으로서 기존 연구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시도를 한 점 2. 고무되는 점 이론적 분석에서 머물지 않고 노년 세대의 기억 치유 기도회로서 실천적이로 구체적 예배 모델을 제안하여 추후 다른 교회들의 예시를 제공해주는 점 3. 발전시킬 경우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는 점 1) 세대간 비교 관점 확장 – 본 연구는 노년 세대에 집중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에서 일어나는 정치편향과 종교거부 등에 대한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신학적 시야 다변화 – 제시된 실천신학적 성찰 외에 다른 신학적 관점과 이론틀, 해석, 연구방법 등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을 때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동료 E	동료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를 조금만 보완하시면 더 명확해질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연구 과정의 괄호치기(판단보류)와 주요 개념의 초점, 아스머(Osmer) 이론의 전개를 앞부분부터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로, 목사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물리학의 공명이론과 좁은 구조를 가져오신 것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성찰에 대한 부분에 적으신 이야기를 읽으며, 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년들, 특히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을 바라보던 제 시선이 몇 문장을 통해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글이라 생각하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F	논문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인상은, 이 연구가 단순히 특정 현상을 설명하려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교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매우 민감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용기 있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년 세대의 신앙 실천을 '태극기 집회'와 같은 공적 공간 속에서 관찰하고, 그것을 정치적 행위로 단순 환원하지 않고 신앙 형성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이 연구의 가장 큰 강점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연구자가 현상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 구조를 해석하려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이 깃발을 드는 행위를 '사명'이나 '예배의 또 다른 자리'로 이해하는 진술을 단순히 비판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것을 신앙적 자기정체성의 표현으로 읽어내려는 시도는 실천신학적 연구로서 매우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노년 세대의 신앙을 외부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내적 논리와 의미 세계 안으로 들어가 이해하려는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의 강점은 연구 방법론과 이론적 틀이 비교적 잘 정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근거 이론을 통해 현장에서 범주를 도출하고, 그것을 다시 신학적

	해석의 장으로 가져오는 해석학적 순환 구조를 취한 점은 연구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 또한 실천신학의 흐름 속에서 본 연구의 위치를 설명하려는 시도 역시 학문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보완되면 좋겠다고 느낀 지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독자가 따라가기에는 다소 무거운 개념이다. 연구 전반이 의미 구조, 신앙 형성, 내면화, 학습 구조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다 보니, 논의가 깊은 대신 때로는 핵심 주장이 흐릿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닫힌 신앙–국가 의미 체계'와 같은 중요한 개념은 매우 흥미롭지만, 이를 조금 더 명료하게 정의하고 반복적으로 정리해 준다면 독자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다. 둘째는 연구자의 위치성에 대한 추가적인 성찰이다. 이미 연구자 성찰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주제가 가지는 정치적이거나 신학적인 민감성을 고려할 때 연구자가 이 현상과 어떤 거리 혹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좋겠다. 예를 들어, 목회자로서 경험한 갈등이 연구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특정 해석을 경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면 연구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한국 교회 안에서 쉽게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정직하게 탐구하고, 노년 세대의 신앙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학문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세대 갈등을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신앙 형성의 구조' 문제로 재해석했다는 점은 이후 연구로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기여라고 보인다. 전체적으로 매우 탄탄한 연구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동료 G	본 논문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자는 해당 방법론의 특성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는 도출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틀로 '공명(resonance)'과 '좁은 통로(Neck)'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독창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신학과 목회학 연구에서는 사회학, 심리학, 철학 등의 인접 학문을 해석 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물리학적 개념을 차용한 본 연구의 시도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와의 논의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개념 선택은 단순한 비유적 차용이 아니라, 신앙과 국가 상징이 특정한 조건 속에서 급격하게 결합되고 증폭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구조적 모델로서 의도된 것이다. 특히 '좁은 통로(Neck)' 개념은 의미의 흐름이 제한된 상태에서 특정 상징이 강하게 증폭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해석 틀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선택의 배경과 필요성이 논문 본문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연구의 독창성과 설득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10 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고, 면담 질문과 일부 응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료 수집 과정의 충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일부 질문이 특정한 방향의 응답을 유도하는 구조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자료가 얼마나 개방적으로 수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10 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고, 면담 질문과 일부 응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료 수집 과정의 충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별도로 구성한 이유가, 심층 면담 참여자들이

	이미 연구의 문제의식과 질문 구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연구자의 의도를 추론하여 응답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참고 문헌

Bibliography

1. 단행본 서적

강준만. *질적 연구 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강창섭. *선교학 연구 방법론: 근거 이론 활용 지침.* 서울: CLC, 2018.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nd ed.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김지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파주: 열림원, 2021.

김혜란 and 최은영.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서울: 대장간, 2013.

김혜란. *상호의존성: 포스트식민주의 여성주의 실천신학.* 서울: 동연, 2020.

김희수. *노인상담의 이해.* 서울: 동문사, 2022.

노원석. *크리스천 노인상담.* 용인: 킹덤북스, 2017.

박운오. *잃어버린 자아정체감의 회복: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대한 목회상담신학적 고찰.* 서울: 시네마플러스, 2015.

박재흥. *세대 차이와 갈등 이론과 현실.* 진주: 경상대학교출판부, 2017.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2004.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개정판 2nd ed. 서울: 박영스토리, 2018.

이미나, 김희영, 김동일, 김재옥, and 김병남. *웰빙과 웰다잉을 위한 노인돌봄과 노인상담.* 고양: 공동체, 2020.

이정엽. *촛불과 태극기: 대한민국 집회 문화의 양극화.* 서울: 한국문화연구원, 2017.

장선철 and 김남원. *노인상담.* 서울: 동문사, 2018.

정미경.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7.

지용근. *2024 가정의 힘 생애주기 리더십 컨퍼런스 모든 세대를 향한 담대한 희망.* 서울: 가정의 힘, 2024.

최성훈. *고령사회의 실버목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최유석. *세대 간 연대와 갈등의 풍경*.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6.

한국노년학포럼. *노인복지상담*. 서울: 공동체, 2013.

한정란, 조해경, and 이이정. *노인자서전 쓰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과거로의 여행*. 서울: 학지사, 2010.

홍영웅. *대중과 기억: 태극기집회의 사회적 의미*. 서울: 한국사회연구원, 2020.

Atchley, Robert. *Spirituality and Aging*.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9.

Cruikshank, Margaret. *Learning to Be Old: Gender, Culture, and Aging*.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3.

May, Gerald G. *The Dark Night of the Soul: A Psychiatrist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Darkness and Spiritual Growth*.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2004.

____________. *Care of Mind, Care of Spirit: A Psychiatrist Explores Spiritual Direc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92.

McDaniel, Eric L., Irfan Nooruddin, and Allyson F. Shortle. *The Everyday Crusade: Christian National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Merriam, S. B. and E. Tisdell.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2015.

Whitehead, Andrew L. and Samuel L. Perry. *Taking America Back for God: Christian Nationalism in the United S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2. 번역 서적

Applewhite, Ashton. *This Chair Rocks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Translated by 이은진. 서울: 시공사, 2016.

Aroson, Louise. *Elderhood 나이 듦에 관하여*. Translated by 최가영. 서울: 비잉(Being), 2020.

Charmaz, Kathy.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근거이론과 질적연구 방법론*. Translated by 정민용.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21.

Creswell, John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Translated by 신경림 and 최화진. 서울: 학지사, 2015.

Denzin, Norman K. and Yvonna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 핸드북*. Translated by 김영천.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8.

Erikson, Erik H. and Joan M.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Extended Version with New Chapters on the Ninth Stage of Development 인생의 아홉 단계: 나이 듦과 삶의 완성.* Translated by 송제훈. 서울: 교양인, 2019.

Étienne, Jean-Luc. *The Psychology and Spirituality of Aging 노화의 심리와 영성.* Translated by 김효성. 서울: 생활성서사,2019.

Fowler, James W. *Becoming Adult, Becoming Christian: Adult Development and Christian Faith 인간의 성숙과 그리스도인의 성숙: 성인 발달과 기독교 신앙*, Translated by 장윤석. 서울: 북스, 2018.

Gadamer, Hans-Georg. *Wahrheit und Methode 진리와 방법*. Translated by 김성기 and 이기상. 서울: 문학과지성, 2012.

Gerkin, Charles. *The Living Human Document: 살아있는 인간문서: 해석학적 목회상담학.* Translated by 안석모.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Haerwas, Stanley, Carole Bailey Stoneking, Keith G. Meador, and David Cloutier. *Growing Ol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듦에 관하여.* Translated by 이라이프아카데미. 서울: 두란노서원, 2021.

Richard R.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Translated by 김현애 and 김정형.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2.

Scogin, Forrest Ray. *Beginning Counseling with Older Adults 노인상담의 첫걸음.* Translated by 김영경.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8.

Segal, Daniel L., Sara Honn Qualls, and Michael A. Smyer. *Aging and Mental Health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Translated by 홍주연. 서울: 학지사, 2016.

Strauss, Anselm L. and Juliet M.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근거이론의 단계*. Translated by 신경림. 서울: 현문사, 2001.

Tournier, Paul. *The Meaning of Old Age 노년의 의미.* Translated by 강주헌. 서울: 포이에마, 2015.

Willimon, William H. *Aging: Growing Old in Church 나이 듦이 아름답다*. Translated by 김진선. 서울: 디모데, 2023.

3. 학술 논문

김진욱. “태극기집회의 이념성 인정을 위한 저항: 태극기집회의 감정동화.” *한국 정치 학회* 52, (2017):53-80.

강안일. “디트리히 본회퍼의 ‘한계’(Grenze) 개념이 갖는 윤리적 의미.” *기독교사회윤리* 58, (2024): 115 – 43.

강인철. “개신교 반공주의의 재생산 기제: 순교담론 및 순교신심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71, (2005): 195 – 223.

강준만. “왜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의 몰락을 자신의 몰락으로 여길까?” *인물과 사상* 229, (2017): 39 – 75.

공병혜. “간호연구에서의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23 (November 2004): 152 – 78.

권유경. “노인 우울증의 인지행동적 중재에 대한 일 고려.”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5, no. 2 (2016): 25-47.

김보경. “하브루타를 적용한 실천적 지식 학습 모형 개발.” *신앙과 학문* 24, no.3 (2019): 163-97.

김성원. “노인의 신앙 체험과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72, no.3 (2022):87-122.

김성일. “한국 우익진영의 대응사회운동 전개와 정치과정.” *문화과학* 91. no. 1 (2017): 134 – 59.

김승환. “맥스 L.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89, no.5 (2024): 977-1002.

김재영. “한국 개신교의 반공주의와 민족주의: 해방 이후부터 1980 년대까지.” *한국기독교와 역사* 42 (2015): 85 – 112.

김주연. “교육연극의 신체의 교육적 의미 정립: 체화 학습.” *한국교육연극학회* 11, no.1 (2019):1-17.

김진호. “‘태극기집회’와 개신교 우파: 또 다시 꿈틀대는 극우주의적 기획.” *황해문화* 95, no. 3 (2017): 76 – 93.

김진호. “한국 개신교의 미국주의, 그 식민지적 무의식에 대하여.” *역사비평* 71, (2005):224 – 51.

김창근. “상호문화주의의 원리와 과제: 다문화주의의 대체인가 보완인가?.” *윤리연구* no. 103 (2015): 184-214.

노진규 and 강현석. “내러티브로서의 이야기 기반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 운영 가능성과 교육과정적 의미 탐색,” *통합교육과정연구* no. 17 (2023):1-23.

박미경.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인적자원으로서의 노인인식과 기독교 노년교육 연구.” *신학과 실천* no. 82 (2022): 667–93.

박선교. “Dietrich Bonhoeffer’s Discourse and Far-Right Political Rallie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Christianity* 5, no. 1 (2025): 63–83.

박수민 and 이남호. “내면화의 개념과 사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어문교육* no. 34 (2021): 185–204.

박은혜. “노인의 종교적 성숙을 위한 교회교육 방안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7 (September 2021):77–116.

박현선. “태극기집회의 대중 심리와 텅 빈 신화들.” *문화과학사* 91 (September 2017): 106 – 33.

배성인. “촛불항쟁과 박근혜 퇴진의 정치사회학.” *진보평론* 70 (December 2016): 13 – 34.

서선주 and 이은성. “한국기독교의 ‘기독교 국가론’과 ‘반공신앙’의 태동과 특징에 관한 연구.” *기독교와 통일* 15, no. 1 (2024): 148–70.

손위수, 김정은, and 한미정. “세대 간 연대 인식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향성 모색: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서, 도덕기반, 연령주의, 미디어 접촉 변인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no. 136 (2023): 110–49.

손희정. “혐오의 시대: 2015 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32, (2015): 12 – 42.

신연희, 이은남, 조영신, and 정선애. “라포에 대한 개념 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24, no. 3 (2017): 187–95.

안진효 and 이종길. “Engineering Design of a Janus-Helmholtz Sensor Using Compliant Tubes 컴플라이언트 튜브를 적용한 야누스 헬름홀츠 센서의 공학적 설계.”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7, no. 2 (2025): 181–88.

이경재. “The social grounds of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crisis of the ruling class and the birth of anticommunism.” *Asian Journal of German and European Studies* 2 (April 2017): 1 – 18.

이경희. “교과서 속의 Ageism.” *교육비평* 29 (2011): 147–165.

이상림. “한국의 노년과 연령주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9): 759–777.

이성림. “코즈모폴리탄 윤리를 위한 회상적 합리성, 연대, 그리고 공동체: 메츠의 정치-신학적 담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0 no.7 (2005): 247–265.

이여주 and 송준아. “노인혐오에 대한 진화론적 개념분석.” *노인간호학회지* no. 1(2021):1-12.

이은성. “고령화 한국 사회와 교회 노인교육의 복지적 접근 및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7, no. 9 (2016):161-88.

전명수. “좋은 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종교 기반 시민단체의 의의: 로버트 벨라의 재성찰, 종교연구.” *한국종교학회* 75, no.4 (2015): 145-174.

전순영 and 김완기. “트라우마 기억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태극기집회 참여 현상.”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48, no. 4 (2020): 257–282.

전순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재기억화의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51 (2021):347-73.

전우용. “한국인의 국기관과 ‘국기에 대한 경례’: 국가 표상으로서의 국기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의 변화 과정.” *한국사연구휘보* 169, no. 4 (2015): 429–52.

정재영. “생애 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정체성과 종교: 개신교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14 (2010): 5–31.

정태연 and 윤가현. “한국노년학의 심리학 분야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8, no.3 (2018):767-82.

주경희. 김주현, and 오혜인. “노인차별 경험과 자기연령주의(self-ageism).” *한국노년학* 40, no. 4(2020):659-89.

채장수. “태극기집회의 이념성.” *마르크스주의 연구* 15, no. 4 (2018): 105–28.

_____ . “한국 보수진영의 위기와 보수주의의 특성.” *정치 정보연구* 21, no. 2(2018): 37-62.

황민효. “폴 틸리히의 종교사회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41 (2015): 87-119.

Atkinson, Paul and Martyn Hammersley. "Ethnography and Participation Observation." In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edited by Norman K. Denzin and Yvonna S. Lincoln, 248–261.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4.

Barreto, Amílcar A., and HyungJin Kim. “One Identity, Two Flags: Christian Nationalists, the Israeli Flag and National Authenticity.” *Ethnicities* 23, no. 1 (2021): 110–27.

Bellah, Robert N.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96, no. 1 (1967): 1–21.

DeDominicis, Benedict E. “South Korean State-Building, Nationalism and Christianity: A Case Study of Cold War International Conflict, National Partition and American Hegemony

for the the Post-Cold War Er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11, no. 1 (2023):1-40.

Hyung, Kang and Emily S. Ihara. "Age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Moderating Effects of Exercise." *Aging and Health Research* 5, no. 1 (2025): 1-30.

Kim, S. "Building the Nation: The Success and Crisis of Korean Civil Religion." *Religions* 12 (2021): 66.

Lee, T. S. "A Crucial Factor in Evangelicalism's Success in (South) Korea: Coalescence with Nationalism and Anticommunism." *Religion Compass* 5(2011): 646–55.

McHugh, Kevin E. "The Ageless Self? Interpretations of Aging and the Self in Gerontology." *Journal of Aging Studies* 14, no. 1 (2000): 103–15.

______________. "Three Faces of Ageism: Society, Image and Place." *Ageing & Society* 23, no. 2 (2003): 165–85.

Huber, Lynn W. *Aging as Pilgrimage: Spiritual Potentials of Late Life*. In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edited by Melvin A. Kimble and Susan H, 7-22. MN: Fortress Press, 2003.

4. 학위 논문

권미리. "연령차별주의가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자기 이미지를 매개효과로." M.A. thesis,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김수정.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서사적 정체성과 주체의 구성." M.A. thesis,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김요완.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의 부부관계 와해 과정 연구." Ph.D. diss.,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김지훈. "최인호 문학에 나타난 개인의 의미 연구." M.A. thesis,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조남현. "인간의 사회적 자아정체성 연구." M.A. thesis,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2006.

황선영. "정치 시위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M.A. thesis,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Lee Sang Soo. "Towards a postcolonial theological education in Mongolia: A qualitative study on curriculum for interdependent teaching and learning." D.Min.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19.

Park Woon Song. "Understanding Korean American pastors' wives: A feminist and cognitive behavioral reconstruction of self-identity." D.Min.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18.

5. 웹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명." https://stdict.korean.go.kr.

Baylor University. "Baylor Religion Survey." *Baylor Institute for Studies of Religion*. Accessed July 21, 2025. https://baylorreligionsurvey.research.baylor.edu.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2023. Accessed February 27, 2025. https://www.oecd.org.